여덟 번의 시계종

Les Huit Coups de l’horloge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1923년 발표 · 프랑스어 원문 번역 · 2026-06-13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Maurice Leblanc, « Les Huit Coups de l’horloge » (1923)

저자

모리스 르블랑 (Maurice Leblanc, 1864–1941)

원전 출처

fr.wikisource — Les Huit Coups de l’horloge (퍼블릭 도메인)

번역

GB10 로컬 vLLM (Qwen3.6-35B-A3B)

발행

sosig.shop/book · 2026-06-13

번역 정책

> 프랑스어 원문에서 곧장 옮겼으며, 가독성을 우선해 요즘 독자가 쉽게 읽도록 다듬되 20세기 초 신사 도둑 이야기 특유의 위트와

>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1화 탑 꼭대기에서

호르탕스 다니엘이 창문을 살짝 열며 속삭였다.

“로시니, 여기 있소?”

성 아래 쌓인 덤불 너머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있소.”

호르탕스가 몸을 조금 내밀자, 키가 크고 통통한 남자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너무 옅은 색의 수염이 얼굴을 둘러싸고 있었다.

“그래?” 그가 물었다.

“어제 밤, 삼촌과 이모와 크게 논쟁을 했소. 삼촌과 이모는 확실히 서명을 거부하고, 남편이 감금되기 전에 날린 내 지참금을 돌려주지 않아요.”

“당신이 이 결혼을 원했던 삼촌이요? 계약 조건에 따르면 삼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관없어요. 삼촌이 거부한다고요!”

“그럼 어떡하죠?”

“그럼, 당신은 여전히 나를 납치하기로 했나요?” 그녀가 웃으며 물었다.

“그 어떤 때보다도요.”

“물론 예의는 지키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물론이죠.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잖아요.”

“안타깝게도, 저는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지는 못해요.”

“사랑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사랑해 주시면 돼요.”

“조금?” “당신이 너무 요구가 많아요.”

“그렇다면 왜 저를 선택했나요?”

“운명이에요. 심심했거든요…… 제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필요했죠. 그래서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 짐이에요.”

그녀는 거대한 가죽 가방 두 개를 떨어뜨렸다. 로시니가 이를 받아 안았다.

"결정났어요." 그녀가 속삭였다. "아이프 교차로에서 차로 기다려 주세요. 저는 말을 타고 갈 거예요."

"헛! 말까지 훔칠 수는 없잖아요."

"말은 혼자 돌아올 거예요."

"완벽해요! …아, 잠깐만요."

"무슨 일이죠?"

"저기, 사흘째 머물고 있는 레닌 공작이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무도 모르는 인물인데."

"나도 몰라. 삼촌이 사냥 친구 집에서 그를 만나서 초대했대."

"그는 당신에게 아주 반한 모양이군. 어제 두 분이 함께 긴 산책을 하셨잖아. 하지만 그 남자는 내 호감이 가지 않아."

"두 시간 뒤면 당신과 함께 성을 떠날 거야. 그 일만으로도 세르지 레닌을 식힐 수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하자. 우리는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어."

몇 분간 그녀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외딴 길을 따라 멀어지는 로시니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창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멀리 공원 깊숙한 곳에서 호른 부대가 아침을 알리는 신호를 불어댔다. 사냥개 무리가 맹렬한 짖음으로 요란을 떨었다.

그것은 라마레즈 성에서 열리는 사냥의 시작이었다. 매년 초가을, 대략 9월 초에 에글로르슈 백작과 백부인이 인근의 친구들과 성주들을 모아 들이곤 했다. 에글로르슈 백작은 천하의 대 사냥꾼이었다.

오르탕스는 천천히 세수를 마치고, 유연한 허리를 돋보이게 하는 아마존 복장을 입었다. 붉은머리의 아름다운 얼굴을 감싸는 넓은 챙의 펠트 모자를 쓰고는 책상 앞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녀는 이튿날 밤에 건네줄 편지를, 삼촌인 에글로르슈 씨에게 썼다. 작별의 편지였다.

그 편지는 쓰기 어려웠다. 그녀는 여러 번 다시 썼지만, 결국 끝내지 못하고 포기하고 말았다.

'나중에 편을 쓸 거야. 기분이 가라앉은 후에.'

그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리고는 윗층의 넓은 식탁으로 향했다.

벽난로 안에서는 커다란 장작이 타올랐다. 벽에는 총과 카빈총이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손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서, 시종일관 사냥만 위해 사는 듯한 시골 영감, 외모는 둔탁하지만 목이 굵고 힘이 센 아이 글로르슈 백작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는 벽난로 앞에 서서, 손에 샴페인 잔을 든 채 건배를 하고 있었다.

오르탕스는 무심코 그의 뺨에 입맞췄다.

"어머, 삼촌! 평소엔 그렇게 절제하시던 분이……"

"하하! 일 년에 한 번쯤은…… 조금쯤은 과욕을 부려도 되지 않겠나?"

"이모께서 꾸짖으실 텐데."

"고모님이 편두통이 나서 내려오시지 않을 거야. 더구나." 그는 퉁명스러운 어조로 덧붙였다. "그건 고모님 사정이야. 너 같은 애한테는 더더욱 상관없지."

르니네 공작이 오르탕스 쪽으로 다가섰다. 그는 젊고 우아한 남성이었다. 얼굴은 야위었고 약간 창백했으며, 눈빛은 부드럽고도 강경하며, 다정하고도 냉소적인 표정으로 번갈아 변했다.

그는 젊은 여자에게 가볍게 절을 하고, 그녀의 손을 입에 대며 물었다.

"저의 좋은 약속을 기억하시나요, 친애하는 마담?"

"약속?"

"네. 어제 했던 아름다운 산책, 그리고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었던 그 성문으로 막힌 낡은 저택을 둘러보자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할랭그르 영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녀는 다소 차갑게 받아쳤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산책은 길고 저는 좀 지쳤거든요.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바로 돌아갈게요."

그들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Serge Rénine는 미소 지으며, 그녀만 들을 수 있도록 속삭였다. 그의 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당신의 약속을 지킬 거라는 건 확신합니다. 그리고 저를 동행자로 받아주실 거라고요. 그게 더 나아요."

"누구에게요? 당신에게, 맞죠?"

"당신에게도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녀는 살짝 얼굴이 붉어지며 맞받아쳤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선생님."

"하지만 저는 어떤 수수께끼도 제시하지 않았잖습니까. 길은 아름답고, 할랭그르 영지는 흥미롭습니다. 다른 어떤 산책로도 이만큼의 즐거움을 주지는 못할 겁니다."

"자신감이 넘치시는군요, 선생님."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마담."

그녀는 짜증 섞인 제스처를 취했지만, 대답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는지 입 밖으로 내지 않았다. 등을 돌린 채로 그녀는 주변 사람들에게 악수를 나누고서는 방을 나섰다.

계단 아래에서는 그룸이 그녀의 말을 태우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말에 올라타서, 공원을 이어 나가는 숲 쪽으로 떠났다.

날씨는 선선하고 고요했다. 거의 흔들림 없는 나뭇잎 사이로 수정처럼 맑은 푸른 하늘이 드러났다. 오르탕스는 굽이진 길을 따라 말의 보폭을 맞추며 걸었는데, 반 시간쯤 지나자 그녀는 계곡과 절벽이 이어지는 지역으로 들어섰다. 그곳을 대로를 가로질러 지나갔다.

그녀는 멈춰 섰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로시니는 엔진을 끄고, 아이프 교차점 주변 덤불 속에 자신의 차를 숨겨둔 듯했다.

그녀와 그 원형 도로 사이는 길어야 오백 미터였다. 잠시 망설이던 그녀는 말에서 내려, 말에게 작은 힘만 들이면 쉽게 풀려나 성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느슨하게 끈을 묶었다. 그리고 어깨에 흘러내린 갈색 베일을 얼굴에 두르고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잘못 생각하지 않았다. 첫 번째 코너를 돌자마자 그녀는 로시니를 발견했다. 로시니가 그녀에게 달려와서 덤불 속으로 그녀를 끌어들였다.

"빨리, 빨리. 아, 내가 늦어지거나… 아니면 계획을 바꿀까 봐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그런데 정말 오셨네. 믿기지가 않아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당신이 그토록 멍청한 짓을 해서 기뻐하시네요.”

“내가 기쁜 줄 아니? 당신도 기뻐할 거야, 맹세할게!”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오르탕스. 당신의 삶은 동화 같은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왕자님!”

“당신은 모든 사치와 부를 누릴 거예요.”

“저는 사치도, 부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대체 무엇을 원해요?”

“행복이요.”

“당신의 행복, 제가 책임지겠어요.”

그녀는 농담조로 말했다.

“당신이 주는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저는 조금 의심스럽네요.”

“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로요.”

그들은 자동차 근처에 다다랐다. 로시니는 기쁨으로 말더듬거리며 엔진을 가동했다. 오르탕스가 차에 올라 넓은 코트로 몸을 감쌌다. 차는 잔디 위를 따라 좁은 길을 따라 교차로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로시니가 속도를 높이려던 찰나,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야 했다.

오른쪽 옆 숲에서 총성이 뚝 끊어지며 울려 퍼졌다. 차는 좌우로 흔들리며 제멋대로 달리기 시작했다.

"앞바퀴 펑크입니다." 로시니가 차에서 내려 말했다.

"아니요, 전혀!" 오르탕스가 외쳤다. "총을 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친애하는 친구여.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때였다. 두 번의 가벼운 충격과 함께, 또 다른 두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다. 멀리서, 여전히 숲속에서였다.

로시니가 이를 갈았다.

"뒷바퀴 두 개도 펑크 났군…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내가 그놈을 잡으면…"

그는 도로 옆 둑을 넘었다.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수풀이 시야를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젠장, 젠장!" 그가 저주하며 말했다. "당신이 맞았어요… 차를 노리고 쐈던 거예요! 이제 정말 큰일 났네요. 몇 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됐어요. 바퀴 세 개를 수리해야 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왜 그러고 서 계신 거죠, 친애하는 친구여?"

젊은 여성도 이제 차에서 내려 그의 쪽으로 뛰어갔다. 그녀는 숨이 차고 떨리는 모습이었다.

"저는 떠날 거예요."

"왜요?"

"저는 알고 싶어요. 총성이 들렸잖아요. 누가 쐈는지요. 저는 알고 싶어요."

"우리 헤어지지 마요, 제발요."

"당신이 몇 시간이나 나를 기다릴 줄 아세요?"

"그럼 우리의 출발은요? 우리의 계획은요?"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성으로 돌아가세요. 짐을 가져오세요."

"제발요, 정말 제발요.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당신 표정이 나를 탓하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천만에, 여자를 납치할 때 총을 쏘지는 않는 법이죠, 내 친구. 나중에 봐요."

그녀는 재빨리 자리를 떴다. 운이 좋게도 자신의 말을 다시 찾아냈고, 라마레즈와 정반대 방향으로 말을 몰고 달리기 시작했다.

그에게 의문의 여지는 없었다. 세 발의 총성이 공작 르니네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바로 그놈이야."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가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녀를 미리 경고하지 않았던가. 미소 띤 authoritative한 어조로 말이다.

"너는 올 거야. 나는 확신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녀는 분노와 굴욕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순간, 공작 르니네가 눈앞에 나타나면, 그녀는 그를 채찍으로 내리쳤을 것이다.

그녀 앞에 펼쳐진 곳은 거칠면서도 풍광이 수려한 땅이었다. 사르트주의 북쪽을 덮고 있는 이 지역은 '작은 스위스'라 불린다.

가파른 경사길이 그녀를 자주 발걸음을 늦게 했다. 더구나 목표지점까지 약 10킬로미터를 더 걸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이 느려지고, 육체적 노력이 조금씩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 반발심이 꺾이지는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레닌 공작에게 분노하고 있었다.

그녀가 그를 원망한 이유는 그가 저지른 용납할 수 없는 행위 때문만이 아니었다. 지난 사흘간 그가 보여준 태도, 즉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 자신만만한 태도, 지나칠 정도로 정중한 태도 역시 그녀를 화나게 했다.

차량이 가까워졌다. 계곡 끝자락에 낡은 성벽이 서 있었다. 균열이 가고 이끼와 잡초가 뒤덮은 성벽 너머로, 성의 작은 첨탑과 창문에 닫힌 커튼이 엿보였다. 할랑그르 영지였다.

그녀는 성벽을 따라 걸어가 방향을 틀었다. 입구 앞에 반달 모양으로 굽은 길 한가운데, 세르지 레닌이 말 곁에 서 있었다.

그녀는 말에서 내렸다. 그가 모자를 벗으며 다가와 방문을 감사해하자, 그녀는 외쳤다.

"일단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방금 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 탄 자동차에 총격이 가해졌거든요. 그 총탄이 선생님 발사하신 것입니까?"

"네."

그녀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건가요?"

"질문해 주셨으니, 마담, 제가 답하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감히 그러셨습니까? … 무슨 권리로?"

"권리를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마담. 저는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요? 무슨 의무요?"

"당신의 삶이 처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이용하려는 남자에게서 당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손님,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저는 제 행동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저는 전적으로 자유로운 의지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담, 오늘 아침 창문 너머로 로시니 씨와 나누신 대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기꺼이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개입이 얼마나 무례하고 매너가 없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시골뜨기'로 비칠 각오를 하고서라도, 당신에게 몇 시간의 생각할 시간을 드리려 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생각한 일입니다, 부인. 한번 결심한 일은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뀠죠, 부인. 지금 여기 계신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기 계셔야 했는데."

젊은 여자는 잠시 당황했다. 분노가 순식간에 가라앉았다. 그녀는 레닌을 바라보며 놀라움에 잠겼다. 남들과는 사뭇 다른,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더 관대하며 더 이타적인 사람 앞에서 느끼는 그런 놀라움이었다.

그가 아무런 속셈이나 계산 없이 행동한다는 것을 그녀는 명확히 깨달았다. 오직 그가 말한 대로, 길을 잘못 든 여성에게 한 신사의 도리일 뿐이었다.

그는 매우 부드럽게 그녀에게 말했다.

"당신에 대해선 아는 게 많지 않지만, 당신을 도우려는 마음은 생겼습니다. 스물여섯 살, 고아이고요. 일곱 해 전, 아글레로슈 백작의 사촌 조카와 결혼했어요. 그 남자는 정신이 좀 이상해, 반쯤 미친 사람이라 감금당하고 있죠. 이혼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지참금도 탕진했으니 이제 고모부한테 의지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은 어둡습니다. 백작 부부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과거 백작은 첫 아내에게 버림받았고, 그 여자는 부인의 첫 남편과 도망갔죠. 버림받은 두 사람이 원한에 맺혔지만, 결혼 후엔 실망과 원한만 쌓였습니다. 당신은 그 여파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일 년 열두 달 중 열 한 달은 단조롭고, 좁고, 외로운 삶이 계속됩니다. 그러다 로시니 씨를 만났어요. 그는 당신에게 반해 도망치자고 제안했죠. 당신도 그를 사랑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루함, 허비되는 젊은 날,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갈망, 모험에 대한 욕구…… 결국은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연인을 쫓아내려는 거였죠. 하지만 한편으론 이런 스캔들이 고모부를 자극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으며 독립적인 생활비를 주게 되기를 바랐습니다. 지금 당신의 상황은 이렇습니

다.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로시니 씨에게로 가든, 아니면 저에게 맡기든."

그가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말뜻이 무엇이었을까? 친구처럼 진지하게, 자신을 바치겠다는 듯 건넨 그 제안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말 두 마리의 고삐를 잡아 묶었다. 그러곤 두꺼운 문을 살폈다. 문짝 각각에는 십자 모양으로 못 박힌 두 장의 판자가 덧대어져 있었다.

그리고 한 장의 선거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 날짜는 스무 년 전. 그 이후로 그 저택 문턱을 넘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듯, 포스터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레닌은 반달형 성벽을 둘러싼 철조망을 받치던 철주 중 하나를 힘껏 뽑아냈다. 그는 그 철주를 지렛대로 삼았다. 썩어 문드러진 판자가 금세 무너졌다.

그중 한 판자가 들리면서 자물쇠가 드러났다. 레닌은 날이 여러 개 달아 있고 여러 가지 공구가 달린 두꺼운 칼로 자물쇠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문이 열렸다. 문 너머에는 고사리가 무성하게 자라는 들판이 펼쳐졌고, 그 끝에는 처진 지붕의 오래된 건물이 보였

다. 건물 네 모서리에는 작은 첨탑이 서 있었고, 그 위에 작은 망루를 쌓아 올린 듯한 전망대가 우뚝 솟아 있었다.

공작은 호르탕스를 돌아보았다.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결정을 내리면 됩니다. 만약 로시니 씨가 다시 한번 당신의 마음을 움직인다면, 저는 당신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저와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어제 우리는 이 성을 방문하기로 했죠. 가볼까요? 시간을 보내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결코 흥미롭지 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복종을 명령하는 힘이 담겨 있었다. 명령하는 듯하면서도 간곡히 호소하는 듯한 분위기였다. 젊은 여성은 자신의 의지가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마비 상태에서도 저항해 보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따라 반쯤 허물어진 현관 계단 위로 올랐다. 계단 위에는 십자 모양의 판자로 단단히 고정된 문이 보였다.

레닌은 똑같은 방법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타일을 깔고, 옛 식탁과 교회용 좌석이 놓인 넓은 현관으로 들어섰다. 문 위에는 거미줄이 드리워 있었고, 그 아래에는 나무로 만든 문장이 걸려 있었다. 문장에는 돌덩어리를 발톱으로 파고든 독수리가 새겨져 있었다.

"당연히 거기가 살롱 문이죠." 레닌이 단언했다.

문을 여는 일은 더 어려웠다. 그는 어깨로 문을 쾅쾅 내리치며 흔들어야 겨우 한쪽 문짝을 열 수 있었다.

오르탕스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레닌이 진정한 솜씨로 연이은 침입을 수행하는 것을 놀라움과 함께 지켜보았다. 레닌은 그녀의 마음을 읽은 듯 돌아서서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나에겐 아이 장난 같은 거죠. 전 자물쇠 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팔을 꽉 잡으며 속삭였다.

"들어 봐요."

"무엇을?" 그가 물었다.

그녀는 그의 팔을 더 단단히 쥐며 침묵을 요구했다. 곧이어 그 역시 중얼거렸다.

"맞아요. 정말 이상하네요."

"들어 봐요… 들어 봐요…" 호르랑스가 놀라 반복했다. "세상에, 정말 가능할까요?"

그들은 바로 근처에서 건조한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인 간격을 두고 되풀이되는 작은 충격음이었다. 귀를 기울여 잘 들어보니, 시계의 틱톡 소리였다.

정말, 어둑한 거실의 큰 침묵을 박자 있게 채운 것은 바로 그 소리였다. 진자추의 무게를 이겨내는 듯한, 매우 느리고 메트로놈처럼 정확한 리듬의 틱톡이었다.

그것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기계가 성의 죽음 속에서도 살아 숨 쉬며 계속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기적이나 설명할 수 없는 현상 덕분에 가능했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더없이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하지만, 호르방스가 더듬거렸다. 목소리를 높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도."

"스무 해 동안 감지 등도 안 걸린 채 시계가 돌아가다니,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럼 대체 무슨 일일까요?"

르니느는 창문 세 개를 모두 열었다. 그다음에는 창문 닫개를 억지로 들어 올렸다.

그들은 분명 거실에 있었다. 그런데 이 거실은 조금도 어지럽지 않았다. 의자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가구는 하나도 빠지지 않았다.

이 방을 가장 아끼는 공간으로 가꾸었던 주인들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채 떠났다. 책상 위에 정리해 둔 잡동사니도, 손에 쥐고 있던 책도 남김없이 두고 간 것이다.

르니느는 벽난로 옆에 걸린 오래된 시계를 살폈다. 조각이 새겨진 높은 시계 상자 안에는 타원형 유리창이 있어, 진자 바퀴의 원반이 보였다.

그는 시계 상자를 열었다. 로프에 매달린 추들은 이미 끝까지 내려가 있었다.

그때였다. '딸깍' 하는 소리가 났다.

시계가 여덟 번을 쳤다. 그 소리는 깊고 굵어서, 그 젊은 여자는 평생 잊지 못할 것이었다.

"세상일이라니!" 그녀가 속삭였다.

"말 그대로 기적이지." 그가 말했다. "이 장치는 매우 간단해서, 일주일 치 무게추 움직임밖에 허용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특별히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 적어도…"

그는 몸을 굽혔다. 그리고 추추장 깊숙이 숨겨져 있던 금속 튜브를 꺼내, 빛이 비치는 쪽으로 돌려들었다.

"망원경이군요."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왜 여기에 숨겨둔 걸까… 그리고 온전히 그대로 두다니… 이상하군. 대체 무슨 뜻일까…?"

한 번 더, 습관처럼 시계가 울리기 시작했다. 여덟 번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레닌은 덮개를 닫고, 망원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 조사를 계속했다.

넓은 창문이 거실과 더 작은 방, 일종의 연회장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곳도 가구가 갖춰져 있었지만, 총기 진열대가 눈에 띄었다. 선반은 텅 비어 있었다.

인접한 벽에 걸린 달력은 한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9월 5일.

"아!" 호르타스가 놀라 외쳤다. "오늘 날짜와 똑같아요! 그들은 달력에서 9월 5일까지의 페이지를 모두 찢어냈어요.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의 기념일이라니! 정말 놀라운 우연이에요."

"놀라운 일이지." 그가 말했다. "그들이 떠난 날의 기념일입니다. 오늘로 꼭 스무 해가 되는 날이죠."

"인정해야 해요, 이 모든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녀가 말했다.

"네, 물론이죠. 하지만 좀 이상하잖아요."

"무슨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가 몇 초 만에 답했다.

"제가 궁금한 건, 저 숨겨져 있던 망원경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던져진 것처럼 버려졌잖아요. 대체 그게 무슨 용도였을까요? 1층 창문에서는 정원의 나무들만 보이죠. 아마 다른 모든 창문에서도 마찬가지일 거

예요. 우리는 어느 절벽도 없는 계곡에 앉아 있거든요. 지평선이라곤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 망원경을 쓰려면 꼭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했을 거예요. 같이 올라가 볼까요?"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전체에서 풍겨나는 신비로움이 그녀의 호기심을 너무도 강하게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레닌을 따라가고, 그의 수사를 돕는 일만 생각했다.

그들은 주계단을 올라 두 번째 층에 도착했다. 그곳은 나선형 계단이 시작되는 플랫폼이었다. 바로 그 위는 야외 테라스였다. 하지만 높이가 두 미터가 넘는 난간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예전에는 성벽의 해자처럼 생긴 부분이었을 겁니다. 나중에 메워졌죠."

르니네 공작이 말했다.

"여기서요. 예전에는 창문이 있었어요. 지금은 막혔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망원경이 필요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이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시야가 트인 곳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망원경이 사용된 곳도 여기일 것입니다."

손목의 힘을 실어 그는 난간 꼭대기까지 기어 올랐다. 그곳에서 내려다보니 온 계곡이 한눈에 들어왔다. 큰 나무들이 지평선을 이루고 있던 공원도 보였다.

그리고 꽤 멀리, 숲이 우거진 언덕의 틈새 너머에는 다른 폐허가 된 탑이 있었다. 매우 낮고, 덩굴식물로 뒤덮인 그 탑은 아마도 일백에서 이백 미터쯤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레닌은 다시 관찰을 이어갔다. 그에게 모든 문제는 망원경의 사용법에 집약되어 있는 듯했다. 그리고 그 사용법을 알아내면 문제는 즉시 해결될 것 같았다.

르니느는 창문 하나하나를 살폈다. 그중 한 곳, 정확히는 그 창문이 있던 자리만 유난히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벽을 막으려고 바를 회반죽 한가운데를 보면, 흙이 가득 찬 움푹 패인 자국이 있었다. 그 안에서는 잡초들도 자라고 있었다.

그는 잡초를 뽑아내고 흙을 치웠다. 그러자 지름 스무 센티미터나 되는 구멍이 드러났다. 구멍은 벽을 뚫고 완전히 관통하고 있었다.

르니느는 몸을 숙여 구멍 안을 들여다보았다. 좁고 깊은 그 틈새는 시선을 강제로 이끌었다. 우거진 나무 꼭대기를 넘어서, 언덕의 굴곡

을 따라 시선이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덩굴이 뒤덮인 탑이 보였다.

그 도랑 끝, 물줄기처럼 길게 파인 홈 안에 망원경이 딱 들어맞았다.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안 될 정도로 완벽하게 고정되어 있었다.

레닌은 렌즈 바깥쪽을 닦았다. 하지만 시선을 조금도 어긋나게 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 그리고는 기계를 들고 눈까지 가져갔다.

그는 서른에서 마흔 초쯤 그 자리에 멈춰 섰다. 숨을 죽이고, 고요하게.

그때 그가 몸을 일으켰다.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끔찍해… 정말 끔찍해."

"무슨 일이야?"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봐."

그녀가 몸을 굽혔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상이 흐릿했다. 망원경을 직접 눈앞에 가져다 대야 했다.

그리고 곧장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두 개의 허수아비잖아. 둘 다 저 위에 올라타 있네? 그런데 왜 그래?"

"보세요. 다시 한번, 더 주의 깊게 보세요. 모자 아래, 얼굴을."

"오!" 그녀가 쓰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끔찍하다!"

망원경 시야 안에는, 빛이 투사된 원형 화면처럼 잘려 나간 풍경이 펼쳐졌다. 잘려나간 탑의 플랫폼이었다. 벽은 가장 멀리 있는 부분에서 더 높게 솟아 마치 배경화면처럼 작용했고, 거기서 아이비가 물결치듯 흘러내렸다. 그 앞, 덤불이 엉킨 가운데에는 두 개의 인간이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들은 무너진 돌무더기에 기대어, 뒤로 쓰러진 채 누워 있었다.

그 두 형체를 정말 남자와 여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두 개의 음산한 인형처럼 보였지만, 옷은 입고 있고 모자 찌꺼기도 남아 있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더 이상 눈도, 볼도, 턱도, 살조각 하나도 없었다. 그들은 엄연히, 그리고 실제로 두 개의 해골일 뿐이었다.

"해골이에요… 두 해골이요." 오르탕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옷을 입은 해골… 누가 저기까지 운반한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와 여자는 수년 전, 이 탑 꼭대기에서 죽었을 겁니다. 옷 속의 살은 썩어 없어졌고, 까마귀들이 그걸 먹어 치웠죠."

“참으로 끔찍해요! 끔찍하다니요!” 오르탕스가 말했다. 그녀는 온통 하얗게 질린 얼굴로, 혐오감에 경직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프 시간이 흐른 뒤, 오르탕스 다니엘과 세르즈 레닌은 알랑그르 성을 떠났다.

떠나기 전, 그들은 담쟁이덩굴이 감긴 탑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세 부분 중 두 부분이 무너진 오래된 성채의 흔적이었다.

탑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비교적 최근까지만 해도 사다리와 나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갔을 터였다. 그 잔해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탑은 공원의 끝자락을 표시하는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호르랑스는 놀랐다. 레닌 공작은 더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지 않았다. 마치 그 사건이 자신에게는 더 이상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말조차 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마을의 여관에서 두 사람에게 약간의 식사가 제공되었다. 이때는 호르랑스가 여관주인에게 버려진 성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그 남자는 이 지역에 새로 온 터라 어떤 정보도 줄 수 없었다. 그는 성주 이름조차 몰랐다.

그들은 라 마레즈로 가는 길을 다시 시작했다. 여러 차례 호르랑스는 그 추악한 광경을 떠올리며 말했다.

하지만 레닌은 매우 명랑했다. 동행자에게 세심한 배려를 보이며, 이런 질문들에 완전히 무관심한 듯했다.

"자, 어때!" 그녀가 조바심하며 외쳤다. "이대로 끝낼 수 없어! 무언가 해결책이 나와야 해."

“맞아요. 해법이 하나 떠오르네요. 로시니 씨에게 상황을 정확히 알리고, 그에게 내릴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그녀는 어깨를 으쓱였다.

“하!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더 이상…”

“오늘은?”

“지금 중요한 건 이 두 시체가 대체 누구인지 알아내는 거예요.”

“하지만 로시니 씨는…”

“로시니 씨는 기다리게요.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렇군요. 더구나 그가 아직 타이어 수리를 끝내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그녀에게 뭘 말해야 할까? 그게 핵심 문제였다.

“핵심은 우리가 본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알 수 없는 신비 앞에 세웠어요. 그 밖의 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이제 당신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의 의도라니?

"네, 시체가 두 구 있습니다. 당신은 곧바로 사법 당국에 알리겠죠?"

"천국에 감사하네!" 그가 웃으며 말했다. "도대체 왜?"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있소. 끔찍한 비극이 말일세."

"우린 그런 일로 아무도 필요 없네."

"뭐라고? 그걸 당신이 이해한다는 말이오?"

"글쎄, 책에 자세히 설명된 그림이 곁들인 이야기처럼 거의 똑같이 이해하고 있네. 정말 간단해."

그녀는 눈꼬리로 그를 흘겨보며, 그가 자신을 조롱하는 건지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매우 진지해 보였다.

"그럼 어떻게 된 거지?"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다. 그들은 빠르게 걸었고, 라 마레즈에 가까워지자 사냥꾼들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럼 이제요." 그가 말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추가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적임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저의 삼촌이요. 그는 이 지역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드에글로로슈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사실이 얼마나 엄밀한 논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겁니다. 첫

고리를 잡으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고리까지 닿게 되어 있죠. 이보다 더 재미있는 일은 없습니다."

성당에 도착해 그들은 헤어졌다. 오르탕스는 짐을 찾았고, 로시니가 보낸 격분한 편지도 발견했다. 그 편지에는 작별 인사와 함께 그가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감사할 일이지.' 오르탕스는 생각했다. '이 우스꽝스러운 녀석이 가장 현명한 해결책을 찾아냈군.'

그는 그와의 친밀함, 도주, 그리고 계획까지 모두 잊어버렸다. 로시니는 그녀의 삶과 동떨어진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 반면, 몇 시간 전만 해도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던 레닌은 그녀를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로 강렬한 존재로 다가왔다.

레닌이 그녀의 문두드렸다.

"당신의 삼촌이 서재에 계십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제가 방문할 것임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녀는 그를 따라갔다.

레닌이 덧붙여 말했다.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계획을 방해하고 저에게 자신을 맡겨달라고 간청하면서, 저는 당신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곧 이행할 것입니다. 곧 그 증거를 직접 보게 되실 테니까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한 약속은 하나뿐이에요. 제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겠다는 거죠."

"확실합니다. 아예르로슈 씨가 제 추리를 인정한다면, 그분은 상상 이상으로 만족하실 겁니다."

그는 진지한 어조로 단언했다.

실제로 아예르로슈 씨는 혼자였다. 파이프를 피우며 샤리를 한 잔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뤼팽에게 한 잔 권했지만, 뤼팽은 거절했다.

"너는 어때, 오르탕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무거웠다.

"여긴 9월의 이 시기 말고는 별 재미가 없어. 마음껏 즐겨. 뤼팽과 산책 잘 했어?"

"바로 그 일 때문에 말씀드리려 왔습니다, 각하."

프린스가 말을 끊었다.

"미안하지만, 10분 뒤에는 기차역에 나가 아내의 친구를 데려와야 해."

"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담배 한 대 피울 시간 정도로?"

"그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뤼팽은 드 에글로르슈가 건네주는 상자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피우며 말했다.

"이 산책 덕분에 우연히 아주 오래된 저택으로 가게 됐습니다. 물론 그 곳도 잘 아시죠, 할랭그르 저택요."

"물론이죠. 하지만 사십 년 넘게 문이 닫혀 있고, 성문도 막혀 있습니다. 혹시 안으로 들어갔나요?"

"들어가 봤죠."

"세상에! 재미있는 구경이었나요?"

"상당히요. 정말 기이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요?"

백작이 시계를 보며 물었다.

뤼팽이 이야기를 이어갔다.

"성문이 막혀 있는 방들, 일상적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된 서재, 그리고 기적처럼 우리의 방문을 알리는 종소리까지…"

드 에글로르슈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별것 아닌 세부 사항이군요."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랐어요. 거기서 보니 성에서 꽤 떨어진 곳에 탑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그 탑 위에서 우리는 두 시체를 보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뼈더미요. 아직 죽을 때 입었던 옷을 그대로 걸친 채로 방치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시신이었습니다."

"오, 오! 살해당했다니요? 그냥 추측일 뿐이죠."

"확실합니다. 바로 그 일 때문에 저희가 귀찮게 여쭈러 온 겁니다."

"이 사건은 정확히 말하면 약 스무 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당시에는 아무도 알지 못했나요?"

"글쎄요, 아니요." 아이글로르슈 백작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런 범죄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레닌이 약간 당황한 기색을 드러냈다. "약간이라도 정보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유감입니다."

"그렇다면 실례하겠습니다."

그는 시선으로 오르탕스를 확인한 뒤 문 쪽으로 발을 옮겼다. 그러나 이내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물었다.

"최소한이라도, 친애하는 뤼팽 씨. 당신 주변이나 가족 중,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연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내 가족? 왜 그런 일을?"

"할랭그르 영지가 원래는, 그리고 아마 지금도 드 에글르로슈 가의 소유일 테니까요. 문장에 새긴 문장은 돌더미 위, 아니 바위 위를 나는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바로 연관이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백작이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술병과 잔을 밀어내고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런 이웃이 있다는 건 나도 몰랐습니다."

레닌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대께서 이 미지의 소유주와 어떤 혈연 관계도 인정하려 하지 않으시는 것이, 그리 급하지 않으신 것 같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남자는 신용할 수 없는 인물인가?"

"그렇습니다. 그냥 살인자일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르탕스는 크게 놀라 입을 열었다.

"정말 살인이 있었고, 그 범인이 성 안의 누군가라는 것이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그런 확신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나는 두 희생자와 살인의 동기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닌 공작은 단정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의 말투를 들으면, 그가 가장 확실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글로르슈 씨는 방 안을 오가며 등을 짚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있었을 거라고 늘 직감했어. 하지만 진상을 파헤치려 하지는 않았지. 그래서 맞아요, 스무 해 전, 내 친척 중 먼 친척인 한 사촌이 할랭그르 영지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진 이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했던 이 일이, 하지만 내가 의심했던 그 일이, 영원히 묻히기를 바랐죠."

"그렇다면, 그 사촌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인가?"

"네, 그는 살인을 강요당했습니다."

레닌이 고개를 저었다.

"죄송하지만 그 말은 바로잡겠습니다, 친애하는 선생님.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의 사촌은 오히려 냉정하고도 비겁하게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토록 냉철하고 교묘하게 계획된 범죄는 제가 알기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이제 뤼팽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차례였다. 그 순간은 무겁고 긴장감 넘치는 것이었다. 오르탕스도 그 엄숙함을 잘 알고 있었다. 비록 그녀가 아직 공자가 어떤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무래도 드에글로로슈 씨는 결혼한 상태였고, 할랭그르 영지 근처에는 또 다른 부부가 살고 있었을 겁니다. 두 가문은 친한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네 사람 중 누가 먼저 두 가문의 평화를 깨뜨렸을까요?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버전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사촌부인, 드에글로로슈 부인이 이베르 타워에서 다른 남편과 만나던 중이었을 것이라는 설입니다. 이 타워는 시골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촌 부인은 복수를 결심합니다. 하지만 스캔들을 피하고, 심지어 범인들이 죽었다는 사실조차 알려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습니다. 제가 방금 확인한 것처럼, 성의 벨베데레에서 나무와 공원의 구불거리는 지형을 넘어 약 800미터 떨어진 타워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게다가 그 장소가 타워 정상을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성벽 난간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옛날에 막아둔 화구 자리였죠. 그리고 그 구멍 깊숙이 망원경을 고정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그는 두 범인의 밀회를 조용히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9월 5일. 성에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그는 모든 거리를 계산하고 준비를 마친 뒤, 그 구멍을 통해 두 연인을 총으로 두 발 쏴 죽였습니다."

사실이 드러났다. 새벽빛이 어둠을 밀어냈다. 백작이 중얼거렸다.

"그래… 분명 그런 일이 있었지… 내 사촌 아글로로슈가…"

"살인자 말입니다." 레닌이 말했다. 그는 구멍을 흙덩이로 꼼꼼히 막았다.

누가 알겠는가. 아무도 찾지 않는 이 탑 꼭대기에 두 시체가 썩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계단까지 철거하는 신중함을 떨쳤다. 이제 남은 일은 아내와 친구의 실종을 설명하는 것뿐이었다. 쉬운 일이었다. 그들은 함께 도망쳤다고 그는 몰아세웠다.

오르탕스가 몸을 떨었다.

마지막 문장이 완전한 계시처럼, 그리고 그녀에게 전혀 예상치 못하게 들렸는지, 단번에 레닌이 말하려는 바를 깨달았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에글로로슈 백작은 아내와 친구가 함께 도망쳤다고 비난했죠."

"아니요, 아니에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건 우리 삼촌의 사촌 형제였거든요. 그런데 왜 두 가지 사건을 섞어서 말하려는 거죠?"

"당시 다른 이야기와 왜 섞어서 말했느냐고요?" 공작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두 사건을 섞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부인. 사실은 사건이 하나뿐이죠. 저는 일어난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르탕스가 삼촌을 돌아보았다. 삼촌은 팔짱을 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다. 램프의 갓이 드리운 어둠 속에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왜 그는 항의하지 않았을까?

레닌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이야기는 하나뿐이다.

9월 5일 밤 8시, 드에글로로슈 씨는 도망간 자들을 쫓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성문을 봉쇄한 뒤 성을 나섰다. 그는 모든 방을 제자리에 그대로 둔 채, 유리창에 걸린 총들만 챙겨 들고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는 직감했다. 자신의 범죄 준비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이 망원경을 발견하는 것이, 곧 수사 시작의 단서가 될지

도 모른다고. 그 직감은 오늘 맞아떨어졌다. 그는 망원경을 시계 기계통 안에 던져 넣었는데, 우연히도 그 망원경이 진자의 움직임을 막고 있었다.

이 본능적인 행동은 모든 범죄자가 저지르는 실수였다. 결국 20년 후, 그를 발각하게 만든 것이다.

방 문을 흔들려 깨뜨리던 때, 진자가 풀려났다.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8시의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나는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아리아네의 실을 손에 쥐게 되었다.

호르타스가 더듬거렸다.

"증거가 필요해요! …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라니요?" 레닌이 거칠게 반박했다. "증거는 넘쳐납니다. 당신도 저와 똑같이 알고 있죠. 팔백 미터 밖에서 사람을 쏘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숙련된 사냥꾼, 사냥에 미친 자 말고는 없겠지요, 아예로슈 씨?"

"증거라니요? 성에서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총기 말고는요. 사냥에 미친 자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총들, 아예로슈 씨."

"그 총들이 여기, 장식용 진열대처럼 놓여 있잖아요."

"증거라니요? 그리고 9월 5일이라는 날짜 말입니다. 그날이 바로 살인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날의 끔찍한 기억이 범인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져서, 매년 그 시기가 되면 그는 오직 그날만 특별하게 보내며 즐거움을 찾고, 매년 9월 5일에는 절제하던 습관을 잊어버립니다."

"지금, 바로 오늘이 9월 5일입니다."

"증거라니요? 다른 증거가 없더라도, 이것 하나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르니느가 팔을 뻗어 아글로로슈 백작을 가리켰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그를 짓눌렀다. 백작은 안락의자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오르탕스는 단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생 삼촌, 정확히 말해 시삼촌을 좋아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즉각 그를 비난하는 증언에 동의했다.

1분이 흘렀다.

아글로로슈 부인은 연신 쉐리를 따라 마셨다. 두 잔을 비우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르니느 앞으로 다가섰다.

"사실이든 허구든 간에, monsieur. 남편이 명예를 지키기 위해 불륜의 아내를 제거하는 것을 범죄자라 부를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레닌이 재차 말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사건의 첫 번째 버전일 뿐입니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더 그럴듯한 다른 버전이 있어요. 만약 더 면밀한 조사를 했다면 그쪽으로 결론이 났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습니다. 아마도 그 남자는 제가 관대하게 추측했던 것처럼 '처분을 내린 남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파산한 남자가, 친구의 재산과 아내를 노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기 위해 그는 친구와 아내를 유인해 함정에 빠뜨립니다. 버려진 탑을 구경하라고 권하고, 멀리서 안전하게 몸을 숨긴 채 총으로 그들을 쏘아 죽이는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백작이 반박했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반박하진 않겠소. 제 주장은 증거뿐 아니라 지금까지 아주 정확히 맞아떨어진 직감과 추론에 기반하고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설이 틀렸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책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죄인을 징벌할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사람을 죽일 때는 느끼죠. 그 무게는 견디기 버거운 짐이니까요."

"아를로슈 씨가 나중에 피해자의 과부와 결혼한 것은, 더 큰 힘을 얻기 위해서였을까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선생님. 왜 결혼했습니까? 아를로슈 씨는 파산했을까요? 두 번째로 맞은 여자는 부유했을까요? 아니면 서로 사랑했고, 아를로슈 씨가 첫 번째 아내와 두 번째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데 그녀가 동의했을까요? 모두 제가 알지 못하는 문제들입니다. 당장에는 중요하지 않지만, 사법 기관이 가진 모든 수단으로 쉽게 밝힐 수 있는 일들입니다."

아를로슈 씨가 비틀거렸다. 그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야 했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더듬거렸다.

"당신은 사법 기관에 알리겠습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레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먼저 시효가 지났잖아요. 게다가 스무 해 동안의 죄책감과 공포, 그리고 범인을 최후의 순간까지 쫓아다닐 기억, 가정에서의 불화, 서로에 대한 증오, 매일의 지옥 같은 삶…… 그리고 결국 그곳으로 돌아가 두 번의 끔찍한 살인 흔적을 지워야 하는 의무, 그 탑에 올라가 해골들을 만지고, 벗기고, 묻어야 하는 끔찍한 형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하죠. 더 이상 요구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사실들을 대중에게 내다 팔아 스미르로슈 백작의 조카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스캔들로 만들지 맙시다. 아닙니다. 이런 추악한 것들은 모두 묻어두죠."

백작은 책상 앞에 다시 서서 손으로 이마를 꼭 쥐었다. 그는 속삭였다.

"그럼, 대체 왜?"

"왜 제가 나섰느냐고요?" 뤼팽이 물었다. "제가 말을 건넨 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록 사소한 일이라 해도,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우리 대화에는 실속 있는 결말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드 에글로르슈 백작님은 아주 저렴하게 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싸움은 끝났다. 백작은 이제 남은 절차, 즉 작은 양보만 받아들이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금씩 자신감을 되찾으며, 다소 냉소적인 어조로 물었다.

"얼마나?"

뤼팽은 웃음을 터뜨렸다.

"훌륭하군요. 당신은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나를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는 명예를 위해 일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는 일은 고작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돌려준다고요?"

뤼팽은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서랍 중 하나에 당신의 서명이 필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당신과 조카인 오르탕스 다니엘 사이의 재산 관련 합의서죠. 조카의 재산은 이미 탕진되었고, 그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합의서에 서명하세요."

드아글로로슈 백작은 몸을 움찔했다.

"금액을 아시나요?"

"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거부하면?"

"드아글로로슈 부인을 만나뵙겠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백작은 서랍을 열었다. 인지용지에 적힌 문서를 꺼내 재빨리 서명했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이에 더 이상 아무런 연관도 없기를 바라는 것 아닙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밤 제가 떠날 테고, 아마 내일 조카도 떠날 겁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각하."

손님들은 아직 아무도 내려오지 않은 거실에서, 레닌은 문서를 HORTENSE에게 건넸다.

그녀는 방금 들은 모든 일에 깜짝 놀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당황하게 만든 것은, 과거에 쏟아부은 그 냉혹한 조명 그 자체가 아니었다.

최근 몇 시간 동안 사건을 조종하고, 아무도 목격하지 못한 비극의 장면들을 눈앞에 펼쳐 보이던 그 남자의 놀라운 통찰력과 비범한 명석함이 그녀를 압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제게 만족스럽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녀는 두 손을 그에게 내밀었다.

"당신이 저를 로시니에서 구해 주셨습니다. 자유와 독립을 주셨죠.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처음부터 원한 건 당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었어요. 당신의 삶은 단조로웠고, 예상치 못한 일이 없었죠. 오늘도 마찬가졌나요?"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십니까? 저는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 기이했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삶입니다. 보고, 파고들 줄 안다면 말이지. 모험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장 비참한 오두막 깊은 곳에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 가면 뒤에도 말이죠. 원한다면 어디에나 감동을 받을 이유, 선을 행할 기회, 희생자를 구할 틈, 부당함을 끝낼 구실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서 느껴지는 위엄과 권위에 압도된 듯 속삭였다.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단순한 모험가일 뿐입니다. 모험을 즐기는 사람 말이죠. 인생은 모험이 있을 때만 살아볼 가치가 있습니다. 남의 모험이든 내 모험이든 상관없죠. 오늘 일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흔들린 건, 그 일이 당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의 모험도 equally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어떻게요?"

"저와 모험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누군가 제게 도움을 요청하면, 저와 함께 구해줍시다. 우연이나 제 직감이 범죄의 흔적이나 고통의 자취를 따라가게 될 때, 두 사람이 함께 떠나봅시다.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레닌의 속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다.

"하지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당신은 좀 의심이 많군요. '이 모험을 좋아하는 녀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려는 걸까? 분명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 게 분명해. 언젠가는 자신의 보수를 챙기고 싶겠지.'"

"당신이 옳아요. 우리 사이에는 명확한 계약이 필요해요."

"매우 명확하게요." 오르탕스가 말했다. 그녀는 대화를 장난기 있는 톤으로 이끌고 싶었던 것이다. "당신의 제안을 들어볼게요."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말을 이었다.

"자, 그래요. 오늘, 첫 번째 모험의 날, 할랭그르의 시계가 여덟 번 울렸죠. 그 시계가 내린 판결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예를 들어 삼개월 동안, 일곱 번 더 함께 멋진 모험을 이어갈까요? 그리고 여덟 번째 시계 종소리가 울릴 때, 당신이 저에게 응해 주기로 할까요? …"

"무슨 말?"

그는 대답을 잠시 멈췄다.

"물론 제가 중간에 흥미를 잃게 되면, 언제든 저를 버리실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끝까지 따라오게 해준다면, 그리고 세 달 뒤인 12월 5일, 이 시계가 여덟 번째 타종을 울리는 순간까지 함께 여덟 번째 모험을 완성해 주신다면…… 그 순간, 확신하건대 구리 진자가 멈추지 않을 것이니 시계는 반드시 울릴 것입니다…… 그 때, 당신은 저에게……"

"무슨 말?" 그녀는 기다림에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그는 입을 다물었다. 그는 보상을 위해 청하고 싶은 그 아담한 입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이 이미 자신의 뜻을 이해했다고 확신했기에, 더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당신을 뵙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합니다.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저의 몫이 아니라 당신의 몫입니다. 어떤 조건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그녀는 그의 존중하는 태도에 고마움을 느끼며 웃으며 대답했다.

"내가 요구한다니?"

"그래."

"아주 어려운 것을 요구해도 될까?"

"당신을 얻고자 한다면 모든 것이 쉬워진다."

"만약 내 요구가 불가능한 것이라면?"

"불가능한 것만이 내 관심을 끄는 일이지."

그때 그녀가 말했다.

"오래된 코르사주용 버클을 돌려주세요. 필그리 메탈로 장식된 카르넬리언 스톤이 박힌 거요. 그건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물이었고, 어머니는 또 그분의 어머니께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누구나 그 버클이 그분들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고, 나에게도 행운을 가져다준다고 알았죠. 그 버클이 넣혀 있던 상자에서 사라진 이후로, 저는 행복을 잃었어요. 돌려주세요, 선한 영혼이시여."

"그 버클은 언제 도난당했소?"

그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일곱 해 전일까요… 여덟 해 전일까요… 아홉 해 전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도난당했는지… 어떻게 도난당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행복해질 거예요."

뤼팽이 단호하게 말했다.

제2장 - 물병

제2화 물병

파리에 정착한 지 사흘째 되는 날, 오르스망 다니엘은 뤼팽의 가명을 쓴 레닌 공작과 만나기로 했다. 날은 맑고 화창했다. 두 사람은 부아드 부아뉴의 임페리알 레스토랑 테라스에 자리를 잡았다. 조금은 한가한 곳이었다.

젊은 여자는 생기가 넘쳤다. 유쾌하고, 우아했으며, 매혹적이었다. 그녀를 놀라게 할까 봐 레닌 공작은 자신이 제안한 계약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오르스망은 라 마레즈를 떠난 일을 이야기했고, 로시니에 대한 소식은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저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레닌 공작이 말했다.

"아!"

"네, 그가 증인을 보냈더군요. 오늘 아침에 결투가 있었습니다. 로시니의 어깨에 총알이 스쳤죠. 일은 끝났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로시니는 더 이상 거론되지 않았다.

레닌은 곧장 오르탕스에게 자신이 구상한 두 차례의 원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원정에 그녀를 동참시키려 했지만, 그의 태도는 냉담하기 그지없었다.

“가장 훌륭한 모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오는 법이지.”

그는 말했다.

“예고 없이 갑자기 나타나, 아무도 그 기회를 눈치채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손끝에 닿을 듯 가까이 다가온 행동의 기회를, 오직 내통자들만 알아차릴 뿐이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용납되지 않는다. 지나가버리면 끝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일깨워 주는 특별한 감각이 필요하다. 여러 향기가 뒤섞인 속에서 올바른 냄새를 분별해 내는 사냥개의 후각처럼.”

주변의 테라스에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나갔다. 옆 테이블에는 이목구비가 평범하고 긴 갈색 수염을 기른 젊은이가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餐厅 창문 너머로는 멀리서 오케스트라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안쪽 살롱에서는 몇몇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오르탕스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관찰했다. 마치 그들 중 누군가에게서, 인생의 비극이나 불운한 운명, 혹은 범죄자의 자질을 보여주는 작은 단서를 찾아내려는 듯했다.

그때 레닌이 계산서를 정리하고 있던 찰나였다. 긴 수염의 젊은이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목소리가 떨리는 대로 웨이터를 불렀다.

"저, 얼마를 더 내야 합니까?… 동전이 없나요? 아, 신이여, 빨리 해주세요!"

르니느는 주저 없이 신문을 집어 들었다. 그는 잠깐 눈을 빛내더니, 낮은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읽었다.

"자크 오브리외의 변호인인 두르당 씨가 엘리제 궁에서 대통령을 접견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사면이 거부되었고, 처형이 내일 아침에 집행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젊은이가 테라스를 지나자, 그는 정문 아치 아래에 서 있었다. 그곳에서 한 부부가 그의 길을 막아 섰다. 남자가 그를 향해 말했다.

"실례합니다. 당신의 놀란 표정을 보고 말았습니다. 자크 오브리외의 일일까요?"

"네… 네… 자크 오브리외입니다." 젊은이는 더듬거렸다.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인데, 지금 그의 아내 집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녀는 슬픔으로 미쳐 있을 겁니다."

"도움을 드릴까요? 저는 레닌 공작입니다. 부인和我는 오브리유 부인을 만나 뵙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젊은이는 자신이 읽은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진 듯했다. 어색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듀트뢰유…… 가통 듀트뢰유입니다."

레닌은 멀리서 기다리고 있던 클레망, 즉 자신의 운전사에게 손짓했다. 그리고 가통 듀트뢰유를 자동차 안으로 밀어 넣으며 물었다.

"주소가 어디죠? 오브리유 부인 주소가요?"

"루르 대로 23번지입니다."

오르텐스가 차에 올라타자마자, 레닌은 운전사에게 주소를 반복해 알려주었다. 차가 막 출발하자마자 그는 가통 듀트뢰유에게 질문을 던졌다.

"사건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두 문장만 설명해 주십시오. 자크 오브리유가 가까운 친족 한 명을 죽였다고요, 맞습니까?"

"그는 무죄입니다, 선생님." 젊은이는 아무런 설명도 할 수 없는 듯이 대답했다. "무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제이크와 저는 스무 해 동안 친구 사이입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그러니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어떻게 해도 더 이상 말을 끄집어낼 수 없었다. 하지만 이동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들은 사블론 문을 통해 뉘이로 들어섰고, 두 분 후 좁고 긴 담장 길을 따라 작은 단층 별장 앞에 멈춰 섰다.

가스통 뒤뢰유가 종을 쳤다.

"부인이 거실에서 어머니와 함께 계십니다." 문을 연 하인이 말했다.

"저도 그분들을 뵙겠습니다." 그는 레닌과 오르탕스를 데리고 말했다.

방은 꽤 넓었고 가구도 곱게 차려져 있었다. 평소에는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다. 두 여자가 그곳에서 울고 있었다. 그중 한 명은 나이가 좀 든 여성으로, 회색빛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스통 뒤트뢰유를 향해 다가왔다.

뒤트뢰유는 레닌 공의 존재를 설명했다. 그러자 그 여성은 흐느끼며 즉시 외쳤다.

"제 딸의 남편은 무죄입니다, 선생님. 자크! 그는 정말로 가장 착한 사람이에요. 마음이 너무도 따뜻하죠. 그가 사촌을 살해하다니요! 그는 사촌을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는 무죄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들은 그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아, 선생님, 제 딸은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레닌은 이 사람들이 몇 달째 이 무죄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무고한 사람이 처형될 리 없다는 확신으로 버텨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처형 소식은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소식이 그들을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허리가 굽은 한 가엾은 여자에게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얼굴은 아직 어렸고, 곱슬곱슬한 금발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지만, 절망에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호르탕스는 이미 그 여자의 곁에 앉아 부드럽게 그 여자를 끌어안아 자신의 어깨에 기대게 하고 있었다. 레닌이 그에게 말했다.

"부인,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라고 자부합니다. 그러니 제게 답해 주십시오. 부인의 답이 얼마나 명확하고 또렷한지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것처럼, 그리고 부인이 자크 오브리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와 공유해 주시길 바라는 것처럼요. 그는 무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 monsieur!" 그녀가 온몸으로 감정을 쏟아내며 외쳤다.

"그렇다면 그 확신을 저에게만은 꼭 전해주십시오. 법정에선 전하지 못했던 그 확신을요. 자세한 상황을 다시 떠올리며 끔찍한 고문을 겪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몇 가지 질문에 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monsieur."

그녀는 완전히 제압당했다. 몇 마디 말로 뤼닌은 그녀를 굴복시켰고, 복종하라는 의식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르탕스는 뤼닌 속에 얼마나 큰 힘과 권위, 그리고 설득력이 깃들어 있는지 깨달았다.

"당신의 남편은 무슨 일을 하셨소?"

그는 어머니와 가통 뒤트뢰유에게 절대 침묵을 지켜달라고 요청한 뒤 물었다.

"보험 중개인이었습니다."

"사업은 잘 되셨소?"

"작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럼 최근 몇 달간 자금 사정이 어려웠다는 말이오?"

"네."

"그리고 그 범죄는 언제 저질러졌소?"

"작년 3월, 일요일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누구였소?"

"수레즈에 사는 먼 사촌인 기욤 씨였습니다."

"도난 금액은?"

"그 사촌이 전날 오래된 채무를 변상받으며 받은 천 프랑 지폐 여섯 장이었습니다."

"당신 남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소?"

"네. 일요일에 사촌이 전화로 그렇게 말했죠. 자크는 사촌이 그 많은 돈을 집에 두지 말고 다음 날 바로 은행에 넣으라고 재촉했어요."

"그건 오전이었나요?"

"오후 한 시쯤이었죠. 자크는 오토바이를 타고 기욤 씨 댁에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피곤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미리 알렸죠.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혼자서?"

"네, 혼자였어요. 집안일 하는 여자 두 명은 쉬는 날이었으니까요. 저는 어머니와 두트뢰유 친구와 함께 테르느의 극장에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기욤 씨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다음 날 아침 자크가 체포되었죠."

"무슨 혐의로요?"

불쌍한 여자는 망설였다. 죄목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이다. 그러자 레닌의 손짓에 그녀는 주저 없이 선을 그었다.

"살인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생클루로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자국들은 제 남편의 오토바이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이니셜이 새

겨진 손수건이 발견되었고, 범행에 사용된 권총도 남편 소유였죠. 게다가 이웃 중 한 사람은 오후 세 시에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이웃은 오후 네 시 반에 남편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죠. 그런데 살인 사건은 오후 네 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자크 오브리외는 어떻게 자신을 변호합니까?"

"그는 오후 내내 잠을 잤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누군가가 찾아와 창고를 열고 오토바이를 타고 수르네로 향했다는 거죠. 손수건과 권총은 가방 속에 있었는데, 범인이 그걸 썼다고 해서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설명도 그럴듯하군요."

"네, 하지만 검찰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아무도, 정말 아무도 제 남편이 종일 집에 있을 줄 몰랐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는 매주 일요일 오후면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는 것이 상습이었으니까요."

"다음은요?"

젊은 여자는 얼굴이 붉어지며 속삭였다.

"기욤 씨의 부엌에서 범인은 와인 병의 절반쯤을 직접 마셨어요. 그 병에는 제 남편의 지문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녀가 모든 힘을 다 쏟은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레닌의 개입이 그녀 속에 심어 준 무의식적인 희망도, 쌓여 가는 증거들 앞에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그녀는 다시 제자리로 주저앉았다. 호르탕스의 세심한 배려도 통하지 않는, 고요한 몽상에 빠졌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무죄입니다, 맞죠, 선생님? 무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제 딸을 죽일 권리는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박해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불쌍한 마들렌이여……"

"자살할 겁니다," 뒤퇴유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말했다. "자크가 단두대에 오르는 상상을 결코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방금 전…… 오늘 밤…… 그녀는 반드시 자살할 겁니다."

레닌은 방 안을 오갔다.

"무슨 수라도 써볼 수 없는 건가요?" 호르타스가 물었다.

"지금 열한 시 반입니다. 내일 아침이 다가오고 있죠." 레닌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가 유죄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습니다. 불쌍한 여인의 확신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합니다. 수년간 옆에서 함께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를 그렇게 오해할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요!"

그는 소파에 기대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무도 그의 명상을 방해하지 못한 채 담배를 세 개를 연속으로 피워댔다. 가끔 시계를 쳐다보곤 했다. 그 순간의 분초가 얼마나 중요한지.

마침내 그는 마들렌 오브리외 곁으로 돌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아주 부드럽게 말했다.

"죽이지는 않을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희망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침착함과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침착할 겁니다." 그녀는 처량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겠소?"

"신뢰하겠습니다."

"좋소. 잠시만 기다리시오. 두 시간 안에 돌아오겠소. 뒤트뢰이 씨, 우리와 함께 가시겠습니까?"

차에 오르려는 순간, 그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파리 근처, 손님이 많지 않은 작은 식당을 아시오?"

"테른 광장에 있는 제 집 지하실에 '뤼테치아'라는 브라스리가 있습니다."

"완벽하군. 우리에겐 아주 편리하겠소."

차 안은 거의 말이 없었다. 하지만 레닌은 가통 뒤트뢰이를 향해 질문을 던졌다.

"기억이 맞다면, 수표 번호는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네, 윌리엄 사촌이 수표 번호 여섯 개를 수첩에 적어 뒀어요."

르닌은 잠시 침묵하다가 나직이 말했다.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어. 그 수표들이 어디 있느냐가 관건이지. 수표를 찾아내면 모든 게 해결돼."

뤼테시아 양조장 안의 전용 객실에는 전화기가 있었다. 르닌은 점심을 먹으라고 권하며 두 사람을 기다리게 한 뒤, 혼자 남았다. 그는 호르탕스와 뒤트뢰이와 함께 있을 때를 기다려, 단호한 손길로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경찰청으로 연결해 주시겠어요, 자매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경찰청이신가요? 저는 보안과로 연결되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연락입니다. 레닌 왕자님 편입니다."

수화기를 귀에 대고, 그는 가스토 뒤트뢰이를 돌아보았다.

"여기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괜찮죠? 우리가 완전히 조용히 있을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그는 다시 귀를 기울였다.

"안전부 국장의 비서라니? 아, 좋습니다, 비서님. 저는 두두아 국장과도 몇 번 교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사건에서 그에게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죠. 그는 분명 '레닌 공자'를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그에게, 살인자 오브리외가 사위에게서 훔친 천 프랑짜 지폐 여섯 장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다. 제 제안이 마음에 든다면, 테른 광장에 있는 뤼테시아 맥주집으로 형사를 보내주십시오. 저는 한 여자와 오브리외의 친구인 뒤뢰이와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비서님."

전화기를 놓은 레닌은 곁에서 호르탕스와 가스통 뒤뢰유의 놀란 표정을 보았다.

호르탕스가 중얼거렸다.

"무슨 걸 아시는 거예요? 뭔가 밝혀내신 건가요?"

"아무것도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요?"

"알고 있는 척 행동할 뿐이죠. 그건 또 다른 방법일 뿐이에요. 자, 점심이나 먹을까요?"

시계는 한 시 사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스물 분 안으로, 검찰청의 사절이 올 거예요."

"만약 아무도 오지 않으면요?" 호르탕스가 반문했다.

"그건 좀 의외군요. 아, 만약 제가 두두아 씨에게 '오브리외는 무죄다'라고 말하게 했다면, 제 효과가 반감될 뻔했네요. 처형 전 날에 경찰이나 사법 관계자들을 설득해서 사형수가 무죄라고 믿게 하라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자크 오브리외는 이미 처형수의 목록에 오른 셈입니다. 하지만 그 육십 장 지폐의 존재, 그것이야말로 이 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구실이지요. 생각해보세요. 그 지폐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이 오히려 기소의 약점이 된다는 것을."

"하지만 당신도 아무것도 모르는 걸요…"

"친애하는 친구여, 이렇게 불러도 될까요?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없을 때는, 그 모든 증명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하나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행동하지요. 저도 지금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레닌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다 끝내고 나서야, 비로소 입을 열었다.

"당연하지요. 제가 무언가를 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며칠의 시간이 있었다면, 저는 먼저 이 가설을 검증하는 수고를 들였을 겁니다. 이 가설은 제 직감과 몇몇 단편적인 사실의 관찰, 두 가지에 모두 기반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오직 두 시간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지의 길을 떠납니다. 마치 그 길이 진리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사람처럼."

"혹시 잘못 알고 계신 건 아닐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미 때가 늦었어요."

문이 두드려졌다.

"잠깐, 한 마디 더 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절대 저를 반박하지 마세요. 듀트뢰이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문을 열었다. 수염이 붉은 마른 사내가 들어섰다.

"레닌 공작이십니까?"

"네, 저입니다. 뒤두아 씨의 말씀인가요?"

"네."

새로 온 사내가 자신을 소개했다.

"수석 경위 모리소입니다."

레닌 공작이 말했다.

"신속히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리소 수석 경위님. 뒤두아 씨가 당신을 보냈다는 소리를 듣고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실적을 잘 알고 있고, 몇몇 당신의 활약상을 감탄하며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경위는 매우 기쁜 듯 고개를 숙였다.

"두드위이 씨가 당신을 전적으로 저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 남겨둔 형사 두 명도 함께 협조할 것입니다. 그 두 사람도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 이 일을 처리했습니다."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앉으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몇 분 안에 끝내야 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죠?"

"기욤 씨에게서 훔쳐간 천 프랑 지폐 육십 장과, 그 번호 목록입니다."

레닌은 목록을 살펴본 뒤 단호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일치본입니다."

모리소 형사는 매우 감동한 표정이었다.

"상관이 당신의 발견에 지대한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레닌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주 inspecteur, 제가 혼자서 철저히 진행한 수사가 밝혀낸 사실은 이렇습니다. 곧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살인자는 수르네스에서의 일을 마치고 돌아온 뒤, 루르 대로에 있는 차고에 오토바이를 치워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발길도 재촉해 트르느 거리까지 달렸고, 결국 그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집?"

"네."

"도대체 거기서 무엇을 하려던 거죠?"

"도둑질한 보물, 즉 천 프랑 지폐 육십 장을 숨기려던 것이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자신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5층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가통 뒤뢰이유는 깜짝 놀라 외쳤다.

"5층이라니요? 거기에는 제 아파트 하나뿐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 말입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그 시간대에 당신은 오브리외 부인과 그 어머니와 함께 극장에 있었으니, 아무도 없는 틈을 타서…"

"절대 불가능해.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어."

"열쇠 없이도 들어갈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아무런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어."

모리소가 나섰다.

"잠깐,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자. 지폐들이 뒤트뢰이 씨 집에 숨겨졌다고?"

"맞아요."

"하지만 자크 오브리외는 다음 날 아침에 체포됐잖아. 그럼 그 지폐들은 아직 그 집에 남아 있는 거야?"

"그게 내 생각이에요."

가통 뒤트뢰이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말도 안 돼. 내가 발견했을 거야."

"당신은 찾았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언제든 발견했을 거예요. 그 집은 손바닥만 하거든요. 볼까요?"

"아주 작더라도, 지폐 여섯 장을 넣기에는 충분하죠."

"물론이죠." 뒤트뢰이가 말했다.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죠. 하지만 제 생각엔 아무도 제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열쇠는 하나뿐이고, 저는 직접 청소도 하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군요."

호르타느 역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녀는 레닌 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려 애썼다. 그는 무슨 수를 부리는 걸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해 줘야 할까? 결국 그녀는 입을 열었다.

"수석 형사님, 레닌 공이 지폐가 저 위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찾아보는 거 아닙니까? 뒤트뢰이 씨가 우리를 안내해 주시겠죠?"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이가 말했다. "맞습니다. 그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네 사람은 함께 다섯 층의 계단을 올랐다. 뒤트뢰이가 문을 열자, 그들은 좁은 아파트 안으로 들어섰다. 방 두 개와 작은 방 두 개로 이루어진 이 집은 유난히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거실로 쓰인 방에는 소파와 의자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파이프를 놓는 선반, 성냥을 두는 곳도 따로 정해져 있었다. 벽에는 못 세 개에 지팡이 세 개가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순서대로 걸려 있었다.

창가 곁의 작은 원탁 위에는 모자 상자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실크지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뒤트뢰이가 조심스럽게 펠트 모자를 상자 안에 넣었다. 그 옆 뚜껑 위에는 장갑을 펴서 올렸다.

그의 행동은 차분했고, 무의식적이었다. 자신이 정해둔 자리에 사물이 놓이는 것을 즐기는 남자의 태도였다.

레닌이 물건을 조금만 움직여도, 뒤트뢰이는 즉시 항의하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 그는 모자를 다시 집어쓰고, 창문을 열어 등을 돌린 채 창턱에 팔을 기댔다. 마치 그런 광경을 볼 수 없어 몸을 돌린 것처럼 보였다.

"당신은 단언하는군요, 그렇죠?" 가니마르 형사가 레닌에게 물었다.

"네, 네. 저는 단언합니다. 살인 사건 이후, 백프랑 지폐 여섯 장이 바로 여기로 옮겨졌다고요."

"찾아봅시다."

찾기는 쉬웠고, 실행도 빨랐다. 반 시간도 지나지 않아, 조사하지 않은 구석은커녕 손대지 않은 장식품 하나도 남지 않았다.

"없습니다." 모리소 형사가 말했다. "계속해야 합니까?"

"아니요." 레닌이 대답했다. "지폐는 더 이상 여기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폐가 누군가 가져갔다는 뜻입니다."

"누구입니까? 혐의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시오."

레닌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스통 뒤뢰유가 몸을 돌렸다. 그는 숨이 턱 막힐 지경이었다.

"형사님, 제가 그 주장을 좀 더 명확히 해 드릴까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기엔 한 명의 사기꾼이 있다는 뜻입니다. 살인자가 숨겨둔 지폐들을 그 사기꾼이 발견해 빼앗았고,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는 거죠. 바로 그 말씀이시죠? 그리고 그 사기꾼을 바로 저라고 지목하시는 거죠?"

그는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나요? 제가요! 제가 그 지폐들을 발견해 혼자 먹었단 말입니까?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레닌은 여전히 입을 열지 않았다. 뒤트뢰이는 격분해 하며 형사 모리소에게 화살을 돌렸다.

"이봐, 당신 말입니다!"

"형사님, 저는 이 모든 연극에, 그리고 형사님께서 무심코 맡고 있는 역할에 강력히 항의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 레닌 공작은 부인인 저와 저에게,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일에 운에 맡겨 임한다고, 그저 막연히 첫 번째로 보이는 길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라고, 자신의 행운에 맡긴다고 말했습니다. 맞죠, 공작님?"

레닌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말씀하세요, 선생님! 설명이나 해 보세요. 결국 증거 하나 없이 터무니없는 주장만 늘어놓으시니 말이죠. 제가 지폐를 훔쳤다고 쉽게 말하실 수 있겠지만, 그 지폐가 정말 여기에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가져왔을까요? 왜 살인자가 제 아파트를 선택해 숨겼을까요? 이건 모두 터무니없고, 비논리적이며,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증거를 주세요, 선생님! 단 하나의 증거만!"

모리소 형사는 고민에 빠진 듯했다. 그는 레닌을 바라보며 눈으로 물었다.

레닌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오브리외 부인 본인이 직접 말씀하실 겁니다. 전화가 있죠. 내려가 봅시다. 일분이면 진상이 드러날 테니까요."

뒤트뢰이는 어깨를 으쓱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시간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그는 몹시 화가 난 듯했다. 뜨거운 햇살 아래 창가에 오래 서 있다가 땀이 비 오듯 흘렀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물 한 병을 들고 다시 돌아왔다. 몇 모금 마신 뒤, 그는 그 병을 창가 가장자리에 내려놓았다.

"자, 가자." 그가 말했다.

레닌 공작은 비웃듯 웃었다.

"여기서 빨리 나가시고 싶으신가 보군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어서 그래." 뒤트뢰이가 문을 쾅 닫으며 말했다.

그들은 내려가 전화기가 놓인 개인실로 향했다.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레닌은 가스토 뒤트뢰이에게 오브리외 가의 번호를 물어본 뒤, 수화기를 들어 연결을 받았다.

전화가 연결되자, 집사가 나왔다. 그는 오브리외 부인이 절망적인 충격을 받아 쓰러졌고, 지금은 잠들었다고 전했다.

"어머니를 불러 주시오. 레닌 공작이라고 하세요. 급한 일입니다."

그는 모리소에게 수화기를 건넸다.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서 뒤따르던 뒤트뢰이와 오르랑스도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들을 수 있었다.

"어머님, 맞으신가요?"

"네. 레닌 공작이시죠? 아, 선생님,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혹시 희망이 있는 건가요?" 노부인이 애원하듯 물었다.

"수사는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머님도 희망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쭙고자 왔습니다." 레닌이 말했다. "범행 당일, 가스통 뒤트뢰이가 어머님을 찾아가셨나요?"

"네. 점심식사 후, 저희를 모으러 오셨죠. 저와 딸이요."

"그때 그사촌 기욤이 집에 6만 프랑을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네. 제가 직접 말씀드렸어요."

"자크 오브리외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서 평소처럼 오토바이를 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자고 있었나요?"

"네, 맞습니다."

"그걸 확신하시나요, 마담?"

"물론이죠."

"그럼 여러분 세 분이 함께 극장에 가셨다는 건가요?"

"네."

"그때 서로 옆에 앉아 계셨나요?"

"아니요, 빈 자리가 없어서요. 그는 좀 더 멀리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마담이 그를 볼 수 있었나요?"

"아니요."

"하지만 간식 시간 중에 마담 쪽으로 와서 앉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그를 본 건 극장 문을 나서고 나서가 처음이었죠."

"그 부분에 대해 의심의 여지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좋습니다, 마담. 한 시간 뒤면 제가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절대 오브리외 부인을 깨우지 마세요."

"만약 그녀가 스스로 깨어났다면요?"

"그녀를 안심시키고 자신감을 심어주십시오. 상황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나빠요."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웃음을 터뜨리며 뒤돌아 Dutreuil을 바라보았다.

"이봐, 젊은이. 이제 막 궤도에 오르는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말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고 Rénine은 그 통화에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 것인가? 침묵이 무겁고 고통스럽게 내려앉았다.

"수석 형사님,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있나요?"

"병장 두 명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사장님께 어떤 명분으로도 우리를 방해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Morisseau가 돌아왔을 때, Rénine은 문을 닫고 Dutreuil 앞에 섰다. 그리고 좋은 기운을 담아 또렷이 말했다.

"요컨대, 젊은이. 그 일요일 오후 삼시부터 다섯시까지, 그 여자들은 당신을 보지 못했다는 거요. 꽤 흥미로운 사실이지."

"당연한 일이죠." 뒤트뢰이가 반박했다. "그게 무슨 증거가 되겠어요."

"증거가 된다는 거요, 젊은이. 당신에게 두 시간이라는 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물론이죠. 저는 그 두 시간을 영화관에서 보냈습니다."

"혹은 다른 곳일 수도 있고."

뒤트뢰이가 그를 노려보았다.

"다른 곳?"

"네. 당신이 자유로운 시간이었다면, 마음대로 산책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예를 들어 수르네 쪽으로."

"오호!" 뒤트뢰이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수르네는 꽤 먼데요."

"그리 멀지 않아요. 친구 자크 오브리외의 오토바이를 타고 갔을 텐데."

그 말 뒤에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뒤트뢰이는 이해하려는 듯이 눈썹을 찌푸렸다. 그리고 끝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그가 말하려던 바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음흉한 놈이로군."

레닌이 그의 어깨에 손을 내리쳤다.

"수다 떨지 말고 사실만 말해라. 가통 뒤트뢰이, 당신은 그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윌리엄 사촌이 집에 6만 프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둘째, 자크 오브리외가 외출하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는 것. 당신은 순식간에 범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토바이는 이미 당신의 손아귀에 들어와 있었고요. 당신은 회의 도중 빠져나와 쉬르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사촌을 죽였습니다. 지폐 여섯 장을 챙겨 집으로 가져갔죠. 그리고 오후 5시가 되자, 다시 이 여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듀트뢰이는 비웃는 기색과 어리둥절한 표정을 섞어 들으며, 가끔 형사 모리소 쪽을 힐끔거렸다. 마치 그의 증언을 확인하려는 듯이었다.

"저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탓하지 마세요."

레닌이 말을 마치고 나자, 그는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재미있군. 아주 훌륭한 장난이야. 그러니까 이웃사람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가는 나를 본 거지?"

"네, 자크 오브리외의 옷을 뒤집어쓰고 숨어 계셨죠."

"그리고 시종 가문의 부엌에 있던 병에 남은 내 지문도?"

"그 병은 자크 오브리외가 점심때 자기 집에서 마셨어요. 그리고 그걸 증거물로 가져간 건 당신이었죠."

"점점 더 재밌어지네요." 뒤트레이유가 진심으로 즐기는 듯한 표정으로 외쳤다. "그렇다면 제 계획은 자크 오브리외를 이 살인죄로 몰아넣는 것이었던 셈이군요?"

"그게 바로 당신을 누명에서 벗어나게 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자크는 어린 시절부터의 친구예요."

"당신은 그의 아내를 사랑하고 있군요."

젊은 남자는 갑자기 분노에 치밀어 오르는 듯 벌떡 일어섰다.

"당신은 감히! 무슨… 이런 추잡한 누명을 씌우다니!"

"그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오브리외 부인에게 늘 존경과 경외심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겉으로만 그렇죠. 하지만 당신은 그녀를 사랑합니다. 그녀를 갈망하죠. 부인하지 마십시오. 모든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저를 방금 만났을 뿐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이미 며칠 동안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며, 당신을 덮칠 타이밍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는 젊은이의 어깨를 잡으며 거칠게 흔들었다.

"자, 뒤트뢰유, 시인합시다. 증거는 다 있습니다. 곧 안전부 장관 앞에서 목격자들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시인하세요! 당신 속에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남아 있죠. 레스토랑에서 신문을 읽고 난 후의 공포를 기억하십시다. 하하! 자크 오브리외가 사형을 선고받았다고요? 그건 당신이 원했던 결과보다 훨씬 더한 것이었습니다. 감옥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만족했죠. 하지만 교수대라니요… 내일 자크 오브리외가 처형된다고요? 그는 무고한 사람입니다! 시인하세요. 당신의 목을 구하기 위해 시인하세요. 시인하라고요!"

그는 온 힘을 다해 몸을 굽혀, 젊은이에게서 자백을 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곧장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냉정하게, 일종의 경멸을 담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 미쳤군요, 선생님. 말씀하시는 건 상식과 거리가 멉니다. 모든 혐의가 거짓입니다. 그리고 지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 집에서 발견하셨습니까?"

열받은 레닌이 주먹을 불끈 쥐며 그에게 다그쳤다.

"아, 음흉한 놈! 네 살해당할 거야."

그는 형사를 끌고 나갔다.

"어때요? 확실히 꾀죄죄한 악당 아닙니까?"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아마도 그럴지도… 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모리소 씨." 레닌이 말했다. "두두이 씨를 만나게 될 때까지요. 그리고 두두이 씨, 총국에서 만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후 세 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럼 보십시오, 수석 형사님! 당신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레닌은 일사천리로 돌아가는 사건을 보며 비웃듯 웃었다. 그 곁에 있던 오르탕스는 남들의 귀에 들리지 않게 말을 건넬 수 있었다.

"당신, 그를 잡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잡았다고요? 오히려 처음부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너무도 끔찍한데요. 증거는요?"

"증거라니, 그림자 하나 없습니다. 제가 그를 무너뜨릴 셈이었죠. 하지만 그 악당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럼에도 당신은 그가 맞다고 확신하나요?"

"그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직감했죠. 그리고 그 이후로 눈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제 수사가 그를 둘러싸듯, 그리고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의 불안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는 오브리유 부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두 이론적인 추측이거나, 제 개인적인 확신일 뿐입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단두대의 칼날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아, 만약 지폐를 찾아낸다면, 뒤두아 씨가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는 제 얼굴을 보며 비웃을 테죠."

호르타느는 가슴이 조여오는 불안에 떨며 속삭였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죠?"

모리소 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방 안을 오가며 기뻐하는 체하며 손바닥을 비볐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말로, 거의 스스로 해결되는 일들을 다루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총국으로 가시죠, 모리소 씨. 국장이 이미 그곳에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끝을 봐야죠. 뒤트뢰이 씨도 함께 가시겠습니까?"

"왜 안 되겠어요?" 뒤트뢰이 씨는 오만하게 굴며 말했다.

뤼팽이 방금 문을 열려는 찰나, 복도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사장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며 팔을 휘저었다.

"듀트뢰유 씨, 아직 계십니까? 듀트뢰유 씨, 방에 불이 났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알려주더군. 광장에서 그 불길을 봤다고요."

젊은이의 눈이 번뜩였다. 반쯤은 웃음기 섞인 찌푸림이 입가에 스쳤고, 뤼팽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아, 속았군! 네가 방화했지? 저 위에서 불을 질러서 지금 지폐들이 타버리는구나."

뤼팽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내려가세요!" 듀트뢰유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불이 났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보세요, 여기 열쇠가 있어요… 제발 비켜주시오, 천하장사야!"

뤼팽은 그의 손에서 열쇠를 빼앗더니, 옷깃을 잡은 채 그를 붙들었다.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친구. 이제 게임은 끝났습니다. 아, 악당! 모리소 씨, 부사관에게 그 눈을 떼지 말라고 명하십시오. 도망치려 하면 바로 쏘라고요. 부사관, 당신을 믿습니다. 머리에 총알 하나요."

그는 급하게 계단을 올랐다. 호르탕스와 가니마르 형사가 뒤따랐다. 형사는 성이 나 있는 듯 항의했다.

"잠깐만, 그건 그가 불을 지른 게 아니야. 우리가 함께 있었잖아."

"그럼 그가 미리 불을 놓았겠지."

"무슨 소리야? 내가 반복해서 말하는데,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겠나! 하지만 문서가 불태워져야 할 때, 이유 없이 갑자기 불이 나지는 않는 법이야."

위에서 소리가 났다. 양조장 직원들이 문을 부수려던 참이었다. 계단에는 쎄한 연기가 가득 찼다.

레닌은 마지막 층에 도착했다.

"피하세요, 친구들! 내가 열쇠를 갖고 있소."

그는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 문을 열었다.

연기가 거세게 밀려왔다. 온 층이 불타고 있는 줄 알 만큼 강렬했다. 하지만 레닌은 곧바로 불이 스스로 꺼졌음을 알아챘다. 연료도 없었으니 불꽃은 더 이상 피지 못했다.

"모리소 씨, 우리와 함께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오. 사소한 방해꾼이라도 나타나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될 수 있소.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게 좋겠소."

그는 앞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이 화재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눈에 띄었다. 가구는 벽, 천장 모두 연기에 그을렸지만, 화상을 입지는 않았다.

사실 불꽃은 방 한가운데, 창문 앞에 쌓여 타오르던 종이들만 태우고 있었다.

레닌이 이마를 치며 소리쳤다.

"미친놈 같으니라니!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거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가니마르 형사가 물었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모자 상자 말입니다. 그가 종이를 숨긴 곳이 바로 거기에 있었어요. 우리 압수수색을 받을 때에도 그곳에 종이가 있었죠."

"말도 안 돼!"

"맞아요. 사람들은 늘 그걸 잊습니다. 너무 눈에 띄어서, 손이 닿는 곳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도둑이 모자를 들어올리며 무심코 올려놓은, 열린 상자 속에 6만 프랑을 그대로 둬요. 누가 거기서 돈을 찾을 수 있겠어요… 잘했어요, 뒤트뢰이 씨!"

형사는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아니, 아니에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는 그와 함께 있었고, 그가 직접 불을 지를 수 없었어요."

"경보가 울릴 경우를 대비해 모든 게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상자, 실크 종이, 지폐까지 모두 인화성 약제로 스며들게요. 떠나기 직전, 성냥이나 약품, 뭐 그런 걸 던졌겠죠. 정확히 뭔지는 저도 모르지만요."

"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지 않았겠어요, 천만에요! 게다가 6만 프랑을 훔치기 위해 살인을 저지른 남자가, 그 돈을 그렇게까지 파괴할 리가 있나요? 만약 숨겨진 곳이 정말로 완벽했다면—우리가 찾지 못했으니 분명 그랬겠죠—왜 굳이 쓸데없이 없애버렸을까요?"

"겁을 먹었죠, 모리소 씨. 그가 자신의 목을 건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단두대보다는 무엇이든 낫죠. 그리고 이 지폐들은 그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어떻게 그가 그 증거를 그대로 두었겠어요?"

모리소우는 깜짝 놀랐다.

"무엇! 유일한 증거라니…"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 증인들, 그리고 증거들… 수사관에게 보고해야 할 모든 것들은요?"

"다 허세였죠."

"세상에, 어이가 없군." 당황한 가니마르 형사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정말 대담하구려!"

"그렇지 않았다면 제가 믿었겠어요?"

"아니죠."

"자, 뭘 요구하는 겁니까?"

레닌은 재를 뒤적거리기 위해 몸을 굽혔다. 하지만 거기에는 종이 조각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불에 탄 종이들은 원래의 형태를 간직한 채 단단하게 굳어 있는 것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아무것도요." 그가 말했다. "정말 기막힌 일이지! 도대체 어떻게 불을 피웠단 말인가?"

그는 일어나서 생각에 잠겼다.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호르탕스는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고 있는 것 같았다. 짙은 어둠 속에서의 마지막 결투를 치른 뒤, 그는 승리의 계획을 세우거나, 패배를 인정할 것만 같았다.

기운이 빠진 그녀는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든 것이 망한 거죠, 맞죠?"

"아니요… 아니요…"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모든 것이 망한 것은 아닙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희망을 주는 빛이 하나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 신이여! 이것이 진실이길!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진 말자고."

그가 말했다.

"단순한 시도일 뿐이야. 하지만 아주 훌륭한 시도지. 성공할 수도 있어."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재미있다는 듯 미소 지었다. 그리고 혀를 차며 말했다.

"드퇴유가 정말 대단하군. 지폐를 불태우는 그 방법, 정말 독창적이야. 그리고 그 차분함이라니! 그 녀석이 나를 얼마나 골치 아프게 했는지 몰라. 이 놈은 장수야!"

그는 빗자루를 찾아 방 안의 재 중 일부를 옆방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그 옆방에서, 불태워진 것과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모자 상자를 가져왔다. 그는 상자를 작은 탁자에 올려놓은 뒤, 안에 채워진 실크 종이를 한참 뒤적였다. 그리고 성냥불을 붙여 상자에 불을 질렀다.

불꽃이 치솟았다. 그는 그 불꽃을 껴안듯 감싸 안았다. 불은 판지 반쪽과 거의 모든 종이를 태웠다.

그는 조끼 안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냈다. 그중 여섯 장을 골라 거의 다 태웠다. 그리고 그 재를 정리한 뒤, 나머지 지폐는 판지 바닥, 재와 태어난 종이들 사이에 숨겼다.

"모리소 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와주십시오."

그가 말했다.

"뒤트뢰이를 데려오시오. 이렇게만 전하시오."

"너의 정체가 드러났다. 지폐는 타지 않았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를 이곳으로 데려오라고.

주저함과, 치안국장의 지시를 넘어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수석 형사는 레닌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력을 피할 수 없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

레닌이 젊은 여성을 향해 돌아섰다.

"전투 계획을 이해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위험한 시도입니다. 뒤트뢰가 함정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건 그의 신경 상태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급습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죠."

"그런데 만약 그가 어떤 단서로 상자 속물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다면요?"

"물론 모든 가능성이 그에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이 녀석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영리하고, 스스로를 구해낼 가능성도 충분하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얼마나 불안해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귀에는 피가 끓고 눈은 흐려질 테니까요. 아니, 아니요. 그는 버티지 못할 겁니다. 결국 무너질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교환하지 않았다. 레닌 공작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르탕스는 깊은 곳까지 흔들린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는 한 무고한 남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였다. 전술의 작은 실수, 혹은 조금의 불운만으로도, 열두 시간 뒤 자크 오브리외는 처형당할 판이었다.

그리고 끔찍한 불안과 함께,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뜨거운 호기심을 느꼈다. 레닌 공작은 무엇을 할 것인가? 시도된 실험은 어떻게 될 것인가? 가통 뒤뢰유는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그녀는 초인적인 긴장감 속에 있는 순간들을 살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생명이 극도로 예민해지고, 그 가치를 온전히 드러낸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급히 걷는 남자들의 발소리였다.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들은 마지막 층에 도착하고 있었다.

오르탕스가 동료를 바라보았다. 그는 일어서 있었다. 이미 표정이 변화한 채,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긴장을 풀고, 도약하듯 문 쪽으로 달려가 외쳤다.

"빨리! … 끝내자!"

형사들과 양조장 직원 두 명이 들어왔다. 형사들 무리 속에서 그는 뒤트뢰이를 붙잡아 팔을 당기며 경쾌하게 말했다.

"잘했어, 친구. 그 탁자와 병을 이용한 술수, 훌륭하군! 걸작이야. 다만 실패했을 뿐이지."

"뭐? 무슨 일이야?" 젊은이가 비틀거리며 중얼거렸다.

"주님, 맞아요. 불은 실크 종이와 판지만 반쯤 태웠을 뿐이죠. 지폐가 불에 탔다면, 실크 종이처럼 다른 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바닥에 말이죠. 알겠어요? 그 유명한 지폐들, 범죄의 결정적 증거요. 당신이 숨겨둔 곳에 그대로 있어요. 우연히 불에 타지 않았죠. 보세요. 번호가 보이잖아요. 당신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당신은 끝장이에요, 친구."

젊은이는 몸을 굳혔다. 눈이 휘둥그레졌다. 레닌이 보라고 권했지만, 그는 보지 않았다. 판지도 지폐도 살펴볼 새 없이, 생각할 시간도, 본능이 경고할 틈도 없이 그는 믿어버렸다. 그리고는 거칠게 의자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레닌의 표현대로, 기습 공격은 성공을 거뒀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적에게 모든 비밀이 노출된 것을 본 그 비천한 자는 더 이상 방어할 기력도, 통찰력도 잃고 말았다. 그는 승부를 포기했다.

레닌은 그에게 숨 쉴 틈도 주지 않았다.

"좋아! 네가 목숨을 건진 거야, 그냥 그뿐이지, 내 친구. 자백이라도 써서 이 문제를 털어버려라. 여기 펜이 있네…… 아, 네가 운이 없었던 건 인정해야겠다. 마지막 순간의 그 계획은 정말 치밀하게 짜여 있었어. 그렇지? 은행권 같은 게 귀찮아서 불태우고 싶었던 거지? 그건 간단해. 창가 가장자리에 볼록한 병을 올려두면 돼. 유리가 돋보기 역할을 해서 햇빛을 모아, 미리 준비해 둔 종이와 실크 천에 집중시키거든.

열 분만 지나면 불이 붙지. 경이로운 발명이야! 그리고 모든 위대한 발견이 그러하듯, 이 역시 우연에서 비롯된 거야, 그렇지? 뉴턴의 사과처럼 말이지. 어느 날, 이 병을 통과한 햇빛이 이끼 조각이나 성냥의 유황에 불을 붙인 게 아니었을까. 방금 전에도 네가 햇빛을 마음대로 쓸 수 있었으니, 너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갑시다."

그는 카라프를 정확한 자리에 올려놓았다.

"잘했어, 가스통. 내 축하를 받아."

그가 종이 한 장을 건넸다.

"'제가 기욤 씨를 살해한 범인입니다.'라고 쓰세요."

"제발, 저주할 년아! 써!"

그는 젊은이 위에 몸을 굽혔다. 그의 압도적인 의지로 그를 억누르며, 손길을 직접 안내해 문장을 대필하게 했다.

기운이 빠져나가 허탈해진 뒤트유이는 결국 종이에 글자를 적었다.

"검사님, 자백서입니다."

레닌이 말했다.

"두두아 씨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이 분들은 증인으로 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는 주점의 직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뒤트유이는 절망에 짓눌려 꼼짝도 하지 않았다. 레닌이 그를 툭 치며 밀쳤다.

"야, 동지! 몸을 좀 풀어야지."

"자백까지 했으면 끝까지 해라, 바보."

다른 한 사람이 그 앞에 서서 그를 지켜보았다.

"당연한 말이지." 레닌이 다시 말했다. "넌 정말 멍청한 놈이로군. 그 카드는 분명히 태워졌고, 지폐들도 마찬가지였어. 지금 네 손에 든 건 다른 카드고, 이 지폐들은 내 거야. 더더욱 네가 속도록 하려고 지폐 여섯 장까지 태웠거든. 넌 아무것도 모른 채 속았지. 정말 멍청하기 짝이네."

마지막 순간에, 내가 단서 하나 없는데도 나를 속일 증거를 건넸어! 그것도 어떤 증거라고? 친필 자백서! 증인 앞에서 쓴 자백서! 잘 들어, 친구. 네 목이 잘린다면, 내가 바라는 대로,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일 거야. 잘 가, 뒤트뢰이.

거리에서 레닌 공작은 오르탕스 다니엘에게 차를 타고 마들렌 오브리외를 찾아 가서 사정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당신은요?" 오르탕스가 물었다.

"할 일이 많아요. 급한 약속도 있고요."

"새 소식을 전하는 기쁨조차 거절하시나요?"

"그런 기쁨은 금방 식어버려요. 변함없이 새로워지는 기쁨은 오직 전투뿐이죠. 그 이후엔 더 이상 재미가 없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쥐었다. 잠시 동안 그 손을 자신의 손 안에 감싸 안았다. 그녀는 이 이상한 남자에게 자신의 감탄을 모두 전하고 싶었다. 그는 마치 스포츠를 하듯 선을 행하고, 마치 천재적인 재능을 발휘하듯 그 선을 실행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일련의 사건들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감정이 목을 조이고 눈물을 흘리게 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미 보상을 받았으니까요."

제3장 — 테레즈와 제르멘

제3화 테레즈와 제르멘

가을의 끝자락은 유난히 포근했다. 10월 2일 아침, 에트르타의 별장들에 머물던 몇몇 가족들이 해변으로 내려왔다.

수평선 너머의 구름과 절벽 사이로 펼쳐진 바다는 마치 산속 바위틈에 잠든 호수 같았다. 하지만 공기 중의 가벼운 기운과 하늘의 연하고 애매한 색조가 그것을 방해했다. 이 지방의 특정 날들만이 지닌 특별한 매력을 자아내는 색들이었다.

“정말 맛있어요.”HORTENSE가 속삭였다.

잠시 후 그녀는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는 자연 경관을 즐기러 온 게 아니에요. 아니면 우리 왼쪽에 우뚝 선 거대한 바늘 모양의 바위가 정말로 아르센 뤼팽의 집이었는지 확인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요.” 레닌 공작이 말했다.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정당한 호기심을 풀어 드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전히가 아니

라 부분적으로라도요. 이틀 동안 관찰하고 조사했지만, 제가 여기서 기대했던 것은 아직 아무것도 얻지 못했으니까요."

"들어드리겠습니다."

"조금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서두르기 전에 몇 마디 덧붙여야겠네요. 사랑하는 친구여, 저는 이웃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게는 상황을 알려주고 기회를 주시는 친구들이 양옆에 꼭 필요합니다.

보통 제게 들어오는 제보들은 사소한 것 같거나 흥미가 덜해서 그냥 넘기곤 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저는 아주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 소식통 중 한 명이 엿들었다는 전화 통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요성은 당신도 짐작하시겠지요.

파리에 사는 한 부인이 근처 큰 도시의 호텔에 묵고 있는 한 남성과 연락을 취했습니다. 도시 이름, 남성의 이름, 여성의 이름. 모두 비밀에 부쳐졌습니다. 두 사람은 스페인어로 대화했지만, 우리가 자바네어라고 부르는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음절을 생략하기도 했죠.

그들이 쌓아 올린 난관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화는 기록되지 못했지만 그들이 숨기려던 매우 중대한 내용을 핵심만 잘 포착했습니다. 그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형제와 자매인 두 사람은 결혼한 제삼자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제삼자는 무엇이든 해서 자신의 자유를 되찾고 싶어 했

죠. 둘째, 이 만남은 10월 2일 정오로 예정되어 있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신문에 실리는 작은 광고로 확인될 예정이었습니다. 셋째, 10월 2일의 면담이 끝난 뒤, 제삼자는 자신이 해결하려던 대상과 함께 절벽을 따라 산책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사건의 골자입니다. 저는 파리 신문들의 작은 광고란을 면밀히, 그리고 철저하게 감시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젯날 아침, 어느 신문에 이런 한 줄을 보게 되었습니다.

'Rz-vous, 2 oct. midi, 3-Mathildes.'"

"절벽 이야기가 나왔으니, 범행은 바다 근처에서 벌어질 거라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에트레타에 '뜨와 마틸드'라는 흔치 않은 지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날 바로 그 악당들의 음모를 저지하러 출발했습니다."

"어떤 음모요?" 오르탕스가 물었다. "당신은 범행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추측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들었던 대화는 결혼을 암시하고 있었죠.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제3자의 배우자와 결혼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곧 살인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즉, 표적이 된 사람, 즉 제3자의 남편이나 아내가 오늘 10월 2일 밤 절벽에서 추락할 것이라는 뜻이죠.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논리적이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카지노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바로 아래로는 해변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들은 그 계단 너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은 자갈밭에 설치된 몇몇 부유층의 오두막을 조망할 수 있었다. 오두막 앞에서는 네 명의 신사가 브리지를 하고 있었고, 한 무리의 숙녀들은 자수 공작을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더 멀리, 더 안쪽으로 고립되어 닫혀 있는 또 다른 선실이 있었다.

반쯤 벗은 다리의 아이들 여섯 명이 물에서 놀고 있었다.

"그래요, 호르탕스. 이 가을의 다정함과 매력이 저를 사로잡지 못해요. 당신의 모든 추측을 믿어주기는 하지만, 그 무서운 수수께끼에서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무서운, 맞아요, 친애하는 친구. 그 말은 정확합니다. 그리고 믿어주십시오. 그제부터 저는 이 문제를 모든 각도에서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헛수고였군요."

"헛수고였군요." 그녀가 되뇌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혼자 중얼거리듯 이어서 말했다.

"그중 누가 위기에 처한 걸까? 이미 죽음이 희생자를 정했다. 바로 그 사람일 텐데, 누구란 말인가? 웃으며 몸을 흔들 저 금발의 젊은 여자는 아닐까? 담배를 피우는 그 키 큰 남자는 아닐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살인 계획을 숨긴 이는 누구란 말인가?"

모두들 평온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죽음이 그들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은 분명했다.

"좋아, 드디어 열정이 생겼군." 레닌이 말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 세상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무엇보다 모험이 소중하단 말이야. 장차 일어날 일들의 숨결에 너는 이미 전율하고 있잖아.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드라마에 함께 숨 쉬며, 머릿속 깊은 곳에서는 신비로운 감각이 깨어나고 있는 거야. 자, 지금 다가오는 그 부부를 봐. 얼마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지켜보는지. 알 수 없는 일이지. 어쩌면 그 남자는 아내를 없애려 할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 여자는 남편을 도망치게 하려 꿈꾸고 있을지도."

"드임브발 부부? 절대 아니야. 그들은 아주 훌륭한 부부야. 어제 호텔에서 나는 그 부인과 너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거든."

"나? 자크 드임브르발과 골프를 치렀지. 그는 자기 몸을 좀 과시하곤 하지만 말이야. 그리고 그 두 딸과는 인형 놀이를 했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들이었거든."

드임브르발 부부가 가까이 다가왔다. 우리는 몇 마디 말을 나누었다.

드임브르발 부인은 두 딸이 아침에 가정교사와 함께 파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남편은 금발 수염을 기른 큰 키의 사내로, 팔에 플란넬 재킷을 걸치고 셀룰러 셔츠를 입어 가슴을 드러냈다. 그는 더위를 호소했다.

그들이 레닌과 오르탕스를 떠나 계단 위, 십 보쯤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서자 드임브르발이 아내에게 물었다.

"테레즈, 다락방 열쇠 있니?"

아내가 열쇠를 꺼내며 말했다.

"여기 있어요. 신문이라도 읽으시려고요?"

"응. 아니면 같이 한바퀴 돌아볼까?"

"오후에 하는 게 어떻겠어? 아침에는 쓸 편지가 열 통이나 되거든."

"좋아. 절벽 위로 올라가자."

호르탕스와 레닌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 산책 제안은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그들의 예상과 달리,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그 부부를 마주하게 된 걸까?

호르탕스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심장이 쿵쿵 뛰네요," 그녀가 속삭였다. "하지만 정말 믿기 힘든 일이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저희 부부는 단 한 번도 다투지 않았어요'라고 그녀가 직접 말했잖아요. 분명히 두 사람은 아주 잘 지내는 사이예요."

"저녁에 트와즈마틸드에서 보자고. 그중 한 명이 형제나 자매를 만나러 가는지, 직접 확인해 볼까."

임브르발 부인은 계단을 내려가고, 그의 부인은 테라스 난간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유연한 실루엣을 가진 아가씨였다. 턱이 약간 튀어나온 것이 인상적이어서, 그녀의 옆모습이 또렷하게 드러났다. 휴식 중, 즉 웃지 않았을 때,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고통의 인상을 주었다.

"자크, 무언가 잃어버렸니?" 그녀가 돌 위에 구부정한 남편에게 외쳤다.

"응, 열쇠야. 내 손에서 빠져나갔어…"

그녀는 그에게로 다가와 함께 찾기 시작했다. 두세 분 동안, 그들은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절벽 아래에 머물렀고, 호르탕스와 레닌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멀리서 브리지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일어난 논쟁의 소리가 그들의 목소리를 가렸다.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몸을 일으켰다.

드임브발 부인은 계단의 몇 단을 천천히 올라가더니, 바다 쪽을 향하여 서서 멈춰 섰다.

그는 재킷을 어깨에 걸쳐 걸치고, 외딴 오두막을 향해 걸어갔다. 하지만 길에서 브릿지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가, 탁자 위에 펼쳐 놓은 자신의 카드를 보여 주며 의견을 물었다.

그는 손짓으로 자신의 의견을 묻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는 더 멀리 떨어져 나가, 오두막까지 이어진 40보를 걷고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갔다.

테레즈 드임브발은 테라스로 돌아와 열 분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 후 그녀는 카지노를 나섰다.

허르타느가 몸을 굽혀 보니, 그녀가 오뜨빌 호텔 부속 건물로 쓰이는 하우빌 오두막 중 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그 오두막의 발코니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열한 시입니다." 레닌이 말했다. "누구든 좋습니다. 여자가 되든 남자가 되든, 경기자 중 한 명이 되든, 그들의 동반자 중 한 명이 되든, 아무나 좋습니다. 곧 누군가 약속 장소로 떠날 겁니다."

그렇지만 스무 분이 지났고, 이십오 분이 지나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드임브발 부인이 먼저 갔을지도 모릅니다." 호르탕스가 조바심을 내며 내비쳤다. "그녀가 발코니에 없어요."

"그녀가 트와마틸드 호텔로 갔다면, 우리가 그곳에서 붙잡을 수 있겠네요." 레닌이 말했다.

그가 일어나려던 순간, 또다시 논쟁이 격해졌다. 한 선수가 소리쳤다.

"드임브발에게 물어봅시다."

"좋습니다." 다른 한 명이 말했다. "승낙합니다. 다만 그가 심판역을 맡아주길 바랄 뿐이죠. 방금 전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그들이 그를 불렀다.

"드임브발! 드임브발!"

그때서야 그들은 드임브르발이 문짝을 자신 쪽으로 닫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덕분에 그는 반쯤 어둠에 잠겨 있었다. 이런 종류의 작은 방에는 창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 자, 자고 있네!" 누군가 외쳤다. "일으켜!"

"드임브르발! 드임브르발!"

네 사람은 그곳으로 달려가 먼저 그를 불렀다. 하지만 대답이 없자, 문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다.

"야, 드임브르발! 자고 있는 거야?"

테라스 위에서는 세르즈 레닌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고, 그 모습을 본 오르탕스는 놀랐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미 늦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야."

오르탕스가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차에, 그는 계단을 내려다 붙으며 작은 방으로 뛰어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문을 흔들며 밖으로 나오게 하려 애쓰고 있었다.

"멈춰!" 그가 명령했다. "일단 차근차근 진행해야 해."

"무슨 일?" 누군가 물었다.

그는 문짝 위에 달린 창문 셔터를 살폈다. 그리고 윗부분의 창살 하나가 반쯤 부러진 것을 발견했다. 그는 간신히 선실 지붕에 매달려 안을 훔쳐보았다.

주변에서 재촉하듯 물었다.

"무슨 일이야? 보이니?"

그가 돌아서며 네 사내에게 말했다.

"생각했던 대로야. 드임브르발 씨가 대답하지 않는 건, 심각한 일이 생겼기 때문이겠지."

"심각한 일?"

"그래. 드임브르발 씨가 다쳤거나…… 혹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

"무슨 소리야, 죽었다고?" 사람들이 외쳤다. "방금 우리 곁을 떠났잖아."

레닌이 칼을 꺼내 자물쇠를 풀고, 두 개의 문을 열었다.

비명 섞인 비명이 터져 나왔다. 임브르발 씨는 바닥에 엎드려 있었다. 두 손은 재킷과 신문을 꽉 쥐고 있었고, 등에서는 피가 흘러 셔츠를 적셨다.

"아, 자살이야." 누군가가 말했다.

"자살이라니?" 레닌이 물었다. "상처는 등 한복판에 났어.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이지. 게다가 이 방에는 무기도 없어."

플레이어들이 반박했다.

"그럼 살인? 아니, 불가능해. 아무도 오지 않았어. 우리가 다 봤잖아. 누구도 우리가 보는 사이를 지나갈 수 없어."

물을 가까이서 놀던 다른 손님들과 여자들, 아이들까지 모두 달려왔다. 레닌이 오두막 쪽으로 다가오는 이를 막아섰다. 현장에는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만 안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임브르발 씨가 죽었음을 확인하는 것뿐이었다. 칼에 찔려 죽은 것이 분명했다.

그때 시장과 시골 순경이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도착했다. 필요한 확인 절차를 마치고 시신을 옮겨 나갔다.

테레즈 임브르발에게 알리러 간 사람들도 이미 몇 명 있었다. 그녀는 다시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드라마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 원인을 짐작할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어떻게 한 남자가, 문이 잠겨 있고 자물쇠도 멀쩡한 선실 안에 갇힌 채, 단 몇 분 만에, 스무 명의 목격자들 앞에서 살해당할 수 있었을까?

누구도 선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누구도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임브르발 경이 등 뒤 두 척골 사이에 받힌 단도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이 마법사의 술수처럼 보였다. 하지만 끔찍한 살인사건이었고, 가장 신비로운 조건 아래 자행된 것이었다.

호르랑스는 레닌이 바랐던 대로, 임브르발 부인 곁으로 향하는 작은 무리를 따라가지 못했다. 감동이 그녀를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그녀는 레닌과 함께한 모험이 이렇게 직접적인 현장, 즉 사건의 한복판으로 그녀를 데려다 본 것이 처음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범죄의 결과만 바라보거나 범인들을 쫓는 과정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범죄 그 자체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 광경에 그녀는 온몸이 떨렸고,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끔찍하다…… 불쌍한 사람…… 아, 레닌, 당신은 그를 구하지 못했군요! 그런데 그게 나를 가장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음모를 알고도 구할 수 있었을 테고, 구해야만 했다는 사실이죠……"

레닌이 그녀에게 향수를 맡겼다. 평정심을 되찾은 그녀를 레닌이 유심히 지켜보며 물었다.

"그 살인과 우리가 막으려던 음모가 서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이 질문에 놀라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런데 그 음모는 남편이 아내를, 혹은 아내가 남편을 해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이는 남편이죠. 그렇다면 임브르발 부인이……"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단 임브르발 부인은 단 한 번도 아파트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런 아름다운 여성이…… 아니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이유라니요?"

"모르겠어요.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 오간 말을 잘못 들었을지도 몰라요. 살해 현장의 조건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시간도 장소도 달랐고요."

"그렇다면 두 사건은 아무 상관없다는 뜻이군요."

레닌이 마무리했다.

"아,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너무 기묘한 일들이에요!"

레닌은 살짝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제 제자가 오늘따라 실망스럽군요."

"어떻게요?"

"이봐요. 눈앞에서 벌어진 아주 간단한 사건이었잖아요. 영화 장면처럼 펼쳐지는 것을 직접 목격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요. 마치 여기서 서른 리(리) 떨어진 지하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듣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르탕스는 당황했다.

"뭐라고요? 정말로 알아내셨다고요? 어디를 보고 판단하신 건가요?"

그가 시계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모든 것을 다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잔혹한 살인사건 자체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핵심인, 그 살인이 지닌 심리적 배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단서도 없습니다."

"다만 정각 열두 시가 되었군요. 형제자매는 세 명의 마틸드가 기다리는 약속 장소에 아무도 나타나지 않자, 해변으로 내려갈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제가 두 사람을 연루시킨 공범의 정체를 비롯해, 두 사건 사이의 연관성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빌레 빌라들이 늘어선 광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는 어부들이 윈치를 이용해 배를 끌어올리고 있었다. 한 빌라 앞에는 많은 구경꾼이 모여들었고, 두 명의 세관원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다.

시장이 군중을 헤치고 빠르게 걸어왔다. 그는 우체국에서 르아브르로 전화를 걸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검찰청에서는 공訴檢과 조사판사가 오후 늦게 에트레타로 도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우리가 점심 먹을 시간이 충분합니다." 레닌이 말했다. "이 비극은 이틀이나 사흘 뒤에나 벌어질 테니까요. 그리고 제 생각엔 꽤 치열할 겁니다."

그들은 그래도 발걸음을 재촉했다. 오르탕스는 피로와 궁금증에 흥분한 나머지 레닌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다. 레닌은 대답을 피하며, 식당 창문 너머로 보이는 광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들을 엿보고 계신 건가요?" 오르탕스가 물었다.

"네, 형제와 자매요."

"저들이 정말 나타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조심하세요, 저들이 나타납니다."

레닌은 재빨리 밖으로 나갔다.

본거리 끝자락에서 한 부부가 우물우물 걸어나오고 있었다.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다. 남동생은 키가 작고 여윈 사내로, 올리브빛 피부에 자동차 운전사용 모자를 쓰고 있었다. 여동생도 키는 작았지만 체격이 좀 더 굵직했고, 큰 코트를 입고 있었다. 얇은 베일로 얼굴을 가렸지만, 나이는 지났어도 여전히 아름다운 여성으로 보였다.

그들은 군중을 보고 다가갔다. 걸음걸이에서 불안과 망설임이 역력했다.

여동생은 선원 한 명에게 말을 걸었다. 첫 마디를 끝내기도 전에, 아마 임브르발의 죽음을 들은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헤치고 나가려 했다. 남동생도 사정을 물어본 뒤, 팔꿈치를 치켜들며 사이를 비집고 나섰다. 그리고 세관 직원들을 향해 외쳤다.

"저는 임브르발의 친구입니다! 여기 제 명함입니다. 프레데리크 아스탱…… 제 자매인 제르맹 아스탱은 드임브르발 부인과 매우 친합니다. 그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그들을 지나가게 했다. 뒤따라 들어온 레닌은 호르탕스와 함께 묵묵히 그들을 따라갔다.

2층에는 임브르발 가가 네 개의 방과 한 개의 안방을 사용하고 있었다. 여동생은 그중 한 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엎어졌다. 침대 위에는 시신이 놓여 있었다. 안방에서는 테레즈 드임브르발이 조용히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서 흐느끼고 있었다. 남동생은 그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힘껏 쥐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쌍한 친구여…… 불쌍한 친구여……"

레닌과 오르탕스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그러자 오르탕스가 속삭였다.

"그런 남자를 위해 그녀가 살인을 저질렀단 말인가? 말이 안 돼."

"하지만," 레닌이 지적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고 있잖아. 그리고 우리는 프레데릭 아스타앵과 그의 자매가 공범인 제삼자를 알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오르탕스는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지만 모든 정황이 그녀를 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젊은 여성에게 깊은 동정심을 느끼고 있었다. 프레데릭 아스타앵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오르탕스는 임브르발 부인에게로 다가가 앉아 부드럽게 위로했다. 불행한 여자의 눈물은 그녀를 깊이 흔들었다.

르닌은 처음부터 남매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했다. 그에게 그것이 중요했기 때문인지, 그는 프레데릭 아스탱의 시선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았다.

프레데릭은 무심한 표정으로 아파트를 샅샅이 뒤졌다. 거실을 돌아다니고 모든 방을 들러 왔으며,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섞여들어가서는 살인 사건이 어떻게 저질러졌는지 묻기 시작했다.

한때 두 번이나 그의 여동생이 그에게 말을 걸었다. 그러곤 다시 임브르발 부인에게로 돌아가 곁에 앉았다. 그는 연민과 다짐이 가득한 표정이었다.

마침내 그는 여동생과 현관에서 긴 수군거림을 나눴다. 그 후 두 사람은 모든 일에 합의한 사람들처럼 서로 헤어졌다. 프레데릭은 떠났다. 이 연기는 서른 분에서 마흔 분 정도 계속되었다.

그때 바로, 조사 판사와 검찰청이 탄 자동차가 하숙집들 앞을 지나쳤다. 레닌은 그들의 도착을 더 늦게 예상하고 있었기에, 오르탕스에게 말했다.

"서둘러야 해요. 어떤 경우에도 드임브르발 부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증언이 필요할 만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조사 판사가 예비 조사를 시작하는 해변으로 모이도록 했다. 판사는 그 뒤 드임브르발 부인을 만나러 갈 예정이었다. 따라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밖으로 나갔다. 남은 사람은 두 명의 경비원과 제르멘 아스탱뿐이었다.

제르멘은 마지막으로 시신 옆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오랫동안 기도했다. 그러고 나서 일어나 계단의 문을 열려던 찰나, 레닌이 다가왔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마담."

그녀는 놀란 기색을 드러내며 말했다.

"말씀하세요, 신사님.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디에서요, 신사님?"

"옆 방, 안방에서."

"안 됩니다." 그녀가 재빨리 거절했다.

"왜요? 비록 손을 잡지는 않았더라도, 드임브발 부인이 당신의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는 그녀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다른 방으로 끌어냈다. 그리고 문을 닫고는, 나가고자 하는 드임브발 부인에게 재촉하며 말했다.

"안 됩니다, 마담. 제발 들어주십시오. 아스타앙 부인이 계신다고 해서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두 여성은 서로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용서할 줄 모르는 적대감으로 서로를 응시했다. 그 눈빛 속에는 두 사람 모두의 내면이 뒤흔들렸고, 억눌린 분노가 서려 있었다.

호르탕스는 이 두 사람이 친구라고 믿었다. 어쩌면 공범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가올 충돌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호르탕스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테레즈 드캄브르발을 다시 자리에 앉게 했다. 한편 레닌은 방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운명이 진실을 제게 알려주면, 제게 필요한 정보를 솔직하게 알려주는 한, 두 분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위험이 무엇인지, 두 분 모두 알고 있죠. 두 분 마음속 깊이,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증오가 두 분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가 진실을 파헤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한 시간 후, 사건 수사 판사가 이곳에 옵니다. 그 순간까지, 두 분은 합의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 단호한 말에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다.

"네, 합의야. 다시 말하지만, 합의."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 강압적이었다. "의사가 있든 없든, 그 합의는 반드시 성사될 거야. 당신들만 문제가 아니야. 임브르발 부인, 당신에게는 두 명의 어린 딸이 있잖아. 운명처럼 내 앞을 지나간 그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생명

을 구하기 위해 내가 나서는 거야. 실수라도 하나, 혹은 지나친 말 한마디면 아이들은 끝장나.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아이들에 대한 언급에 임브르발 부인은 주저앉듯 무너져 내리며 통곡했다. 제르맹 아스탱은 어깨를 으쓱거리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레닌이 다시금 그녀를 막아섰다.

"어디 가려고?"

"재판장 소환장을 받았어."

"안 돼."

"왜 안 되지? 증언해야 할 모든 사람이 소환받잖아."

"당신은 현장에 없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 범죄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게 사실이야."

"하지만 난 범인이 누군지 알아."

"말도 안 돼!"

"테레즈 드캄브르발."

그녀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거친 손짓과 함께 이 비난을 내뱉었다.

"역겨운 녀석!" 드캄브르발 부인이 소리치며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꺼져! 빨리 꺼져! 이 여자가 대체 뭐라고!"

오르탕스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레닌이 낮게 속삭였다.

"내버려 둬요. 제가 원했던 대로요. 이 둘을 서로 대립하게 해서, 진실을 완전히 밝히려는 거죠."

모욕을 들은 아스탱 부인은 농담조로 웃으려 애썼지만, 입꼬리가 경련처럼 떨렸다. 그리고 비웃듯 말했다.

"역겨운 녀석? 왜요? 내가 당신을 비난해서요?"

"모두 때문이죠! 다 때문이라고요! 당신은 역겨운 녀석이에요! 알아들었어, 제르맹? 역겨운 녀석이라고!"

테레즈 드임브르발은 저주를 되풀이했다. 마치 그 말 한마디로 안도한 듯했다. 그녀의 분노는 가라앉고 있었다. 어쩌면 그녀는 더 이상 싸움을 지탱할 기력조차 남아 있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아스타앙 부인이었다. 그녀는 주먹을 내밀고, 얼굴은 스무 해가 더 늙어 버린 듯 일그러진 채 공격을 이어갔다.

"너! 너는 감히 나를 모욕하다니! 너는! 네 죄악 뒤에!"

"너는 죽인 남자가, 죽어가는 자리에 누워 있는데도 감히 고개를 들다니! 아! 우리 둘 중 한 명이 비열한 자라면, 그건 너라는 걸 잘 알고 있지, 테레즈! 너는 네 남편을 죽였어! 너는 네 남편을 죽였다고!"

그녀는 자신이 내뱉은 끔찍한 말들에 흥분하여 벌떡 일어섰다. 그녀의 손톱은 거의 친구의 얼굴에 닿을 뻔했다.

"아, 네가 그를 죽였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내가 금지하는 거야. 절대 말하지 마!"

그녀가 외쳤다.

"칼이 네 가방 속에 있어. 네 남편이 네 옆에 있을 때, 그 칼을 만진 적이 있었지. 그리고 그의 손에는 피가 묻어 나왔어. 바로 네 남편의 피야, 테레즈."

그녀가 계속했다.

"게다가 내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더라도, 생각해 봐. 처음 몇 분 안에 내가 짐작하지 못했겠어? 아니, 테레즈, 나는 바로 진실을 알았어."

"아래에서 선원이 '임브르발 씨요? 그가 살해당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순간, 나는 이미 생각했지. '바로 그녀야. 테레즈가 그를 죽였어'라고."

테레즈는 대답하지 않았다. 더 이상 항변의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불안한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던 오르탕스는, 자기가 이미 패배했음을 깨달은 자들이 지니는 절망감을 테레즈에게서 읽은 듯했다.

뺨이 오그라들었고,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동정이 일어난 오르탕스는 그녀를 간곡히 설득했다.

"저희를 위해 설명해 주십시오. 범행 당시 당신은 발코니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도,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설명하시려는 거죠?"

"설명 좀 해 봐!" 제르맹 아스탱이 비웃었다. "당신은 무슨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겠소? 살인 현장의 겉모습 따위야 중요하지 않아! 내가 보았든, 보지 못했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증거일 뿐이야. 바로 그 단도 말이지. 테레즈, 네 가방 속에 그 단도가 있다는 게 바로 증거야. 그래, 바로 너야! 네가 그를 죽였어. 결국 그를 죽인 건 너였어."

"아, 내가 형에게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모른다. '저 여자가 그를 죽일 거야'라고. 프레데리크는 너를 변호하려 했지. 프레데리크는 늘 너에게 약점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그 사태를 예상하고 있었어. 그리고 이제 끔찍한 일이 저질러졌군. 등 뒤를 겨냥한 단도 한 방. 비겁한 짓이야. 정말 비겁해!"

"내가 아무 말도 하지 않겠소? 내가 망설인 적 있어? 프레데리크도 마찬가지였지. 우리는 즉각 증거를 찾았어. 그리고 나는 온전한 이성과 의지를 다해 너를 고발할 거야. 테레즈, 끝났어. 너는 도망칠 수 없어. 더 이상 너를 구할 방법은 없지. 네 손이 굳게 쥐고 있는 가방 속에 그 단도가 들어 있어. 판사가 돌아오면, 네 남편의 피로 얼룩진 단도를 그곳에서 발견하게 될 거야."

"그곳에는 그의 지갑도 있을 거야. 둘 다 들어 있어. 반드시 발견될 거야."

그런 분노가 그녀를 격분시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고, 팔은 뻗은 채 턱은 신경질적인 경련으로 떨리고 있었다.

레닌은 테레즈 드 캄브르발의 가방을 부드럽게 빼앗았다. 젊은 여성은 가방을 꼭 붙잡았다. 하지만 그는 고집스럽게 요구하며 말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마담. 당신의 친구 제르맹이 옳습니다. 법관이 곧 올 테고, 칼이 당신의 손에 쥐여 있다면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에게 맡기십시오."

그의 설득조 목소리가 테레즈의 저항을 녹여갔다. 한 손가락씩, 한 손가락씩 손가락이 풀려나갔다. 그는 가방을 받아 들고 열었다. 흑단 손잡이가 달린 작은 칼과 회색 마로퀸 가죽 지갑을 꺼내, 태연하게 자신의 재킷 안주머니에 넣었다.

제르맹 아스탱은 경악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 미쳤어요, 선생님. 무슨 권리로요?"

"저런 물건은 방치해 둘 게 못 됩니다. 그래야 저도 마음이 놓이죠. 판사가 제 주머니에서 그것들을 꺼내갈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고발할 거예요, 선생님!" 그녀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법부는 반드시 알게 될 겁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거예요. 사법부는 이 일에 관여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들 사이의

다툼은 당신들끼리 해결해야 합니다. 삶의 사소한 일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다니, 무슨 발상이에요."

아스탱 부인은 숨이 턱 막혀 올랐다.

"당신은 그런 식으로 말하는 자격이 전혀 없어요, 선생님! 당신은 대체 누구예요? 그 여자의 친구라도 되나요?"

"당신이 그녀를 공격한 순간부터, 그렇죠."

"하지만 제가 나서서 공격하는 건, 그녀가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죠… 그녀는 남편을 죽였어요."

"그건 부인하지 않소." 레닌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그 지점에서 의견이 일치하오. 자크 드 앰브르발은 그의 아내에게 살해당했소. 하지만 내가 반복해서 말하듯, 정의는 진실을 알 필요가 없소."

"그녀가 진실을 알게 될 겁니다. 저를 통해서요, monsieur. 저는 그렇게 맹세합니다. 이 여자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녀는 살인자가 되었으니까요."

레닌이 그녀에게 다가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방금 내가 어떤 자격으로 개입하는지 물었지. 당신도 마찬가진데, madame?"

"저는 자크 드 앰브르발의 친구였어요."

"그냥 친구였단 말인가?"

그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몸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저는 그의 친구였죠. 그리고 제 의무는 그를 복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의 침묵을 지킬 거야."

"그는 죽기 전까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게 당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는 아내를 고발할 수 있었어요. 고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죠. 그런데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이들 때문이었죠."

아스탱 부인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태도에는 변함없는 복수심과 증오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어쨌든 그녀는 레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 많은 증오가 부딪히는 그 좁고 닫힌 방 안에서, 레닌은 점차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제르맹 아스탱은 임브르발 부인이 절벽 가장자리에서 갑자기 찾아온 이 든든한 지지의 위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테레즈가 말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꿰뚫어 보셨으니, 제가 왜 법정에 스스로를 내주지 않았는지도 아시겠죠. 그

것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였어요. 아니라면, 저는 이미 지쳤을 테니까요…….”

이제 장면은 바뀌었고, 사정은 완전히 달라졌다. 논쟁 속에 던진 몇 마디 말 덕분에, 유죄로 몰린 여자는 고개를 들고 안심하는 반면, 고발자는 주저하며 불안해 보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반면 다른 한 사람은 침묵을 깨고, 자백과 해방을 안겨줄 말을 자연스럽게 내뱉고 싶어지는 그 순간에 다다랐다.

“이제요.” 레닌이 같은 다정함으로 말했다. “당신이 설명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녀가 말했다. “이 여자에게 대답해야 해요. 아주 단순한 진실, 맞죠?”

그녀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안락의자에 웅크린 채, 고통으로 인해 더 늙고 황폐해진 얼굴을 드러냈다. 그녀는 분노 없이, 낮은 목소리로, 끊어지는 짧은 문장들을 하나씩 꺼내며 말했다.

그녀가 그의 연인이 된 지 사 년이 지났다. 내가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녀가 직접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나에게 털어놓았다. 악의에서 나온 행동이었다. 그녀는 자크를 사랑하기보다 나를 더 증오했다. 매일 새로운 상처를 입혔다.

그녀는 전화기로 자신의 데이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나를 괴롭혔다.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면 내가 자살할까, 그런 기대를 품었던 것이다.

나도 가끔 죽음을 생각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견뎠다.

하지만 자크는 약해져 갔다. 그녀는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점차 그 길로 빠져들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에게 지배당하며. 형제는 그녀보다 더 교활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인물이다.

나는 모든 것을 눈치챘다. 자크가 나에게 차가워졌다. 그는 떠날 용기가 없었지만, 내가 그에게 방해물이 되었다. 그래서 나를 원망했다.

주님, 그토록 참혹한 고문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에게 자유를 돌려줘야 해!" 제르맹느 아스탱이 외쳤다. "이혼하고 싶다고 해서 남자를 죽일 수는 없잖아."

테레즈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내가 그를 죽인 건 그가 이혼을 원해서가 아니야. 만약 그가 진심으로 이혼을 원했다면, 그는 이미 떠났을 거야. 그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제르맹느, 네 계획은 이미 달라졌어. 이혼만으로는 네가 만족할 수 없었지. 너와 네 동생은 그에게 다른 것을 요구했고, 그는 그 요구에 동의했어. 비겁하게, 억지로라도."

"무슨 말이에요?" 제르맹느가 헛갈린 목소리로 물었다. "다른 거요?"

"내 죽음."

"거짓말!" 아스탱 부인이 외쳤다.

테레즈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 증오나 분노의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 그저 단호하게 반복할 뿐이었다.

"제 죽음입니다, 제르맹. 그 남자가 지갑 속에 넣어둔 채 미친 듯이 잊고 있던 당신의 편지 여섯 통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편지들에는 끔찍한 단어가 직접적으로 적혀 있지는 않았지만, 줄마다 그 단어가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자크가 그런 일을 저지를 줄이야… 하지만 그에게 칼을 들이대는 생각은 단 한 순간도 들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여자가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미쳐버린 건… 그 이후의 일입니다. 당신의 탓이죠."

그녀는 리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자신에게 말을 걸어도 되는지, 진실을 털어놓아도 안전한지 확인하려는 눈빛이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녀는 이마에 손을 올렸다. 끔찍했던 그 장면이 다시 떠올라 마음을 찢어놓았다.

제르맹 아스탱은 움직이지 않았다. 팔짱을 끼고 흐려진 눈으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다.

오랑스 댕리엘은 죄수의 자백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해답을 간절히 기다렸다.

"그건 그 뒤에 일이에요. 그리고 그건 다 당신의 잘못이에요, 제르멘."

그녀가 말을 이었다.

"지갑은 내가 다시 숨겨두었던 서랍에 넣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 자크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내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 너무 끔찍했거든."

"하지만 서둘러야 했어. 당신의 편지에는 오늘 자크가 몰래 도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니까."

"처음에는 도망치려고 했어. 기차에 뛰어올라버릴 생각이었지. 무의식적으로 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 단도를 쥐고 있었어."

"하지만 자크와 함께 해변으로 나왔을 때, 나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어. 네, 나는 죽음을 받아들였지. '내가 죽어서 이 악몽이 끝나버리길' 그렇게 생각했어."

"다만 내 아이들을 위해, 내 죽음이 사고로 보이길 원했어. 그리고 자크가 그 죄를 뒤집어쓰지 않기를 바랐지."

"그래서 절벽을 따라 산책하자는 당신의 계획이 마음에 들었던 거야.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보일 테니까."

"자크는 자신의 오두막으로 가라고 했어. 그곳에서 나중에 트와마틸드에서 당신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지. 가는 길에, 테라스 아래에서 그는 오두막 열쇠를 떨어뜨렸어. 나는 내려가서 그와 함께 열쇠를 찾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진 거야. 다 당신 탓이에요, 제르멘. 당신 탓이라고요!"

"자크의 지갑이 그의 재킷 주머니에서 빠져나왔는데, 그는 그 사실을 몰랐어. 그리고 그 지갑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이 떨어졌지. 나는 그 사진을 바로 알아봤어. 올해 찍은 사진이었고, 사진 속에는 나와 두 아이가 함께 있었어."

"나는 사진을 주워 들었고… 그리고 보게 되었어. 제르멘, 당신이 뭘 보았는지 잘 알잖아요."

"사진 속에는 내가 아닌 당신이 있었어. 당신이 나를 지우고 당신으로 대체한 거야, 제르멘!"

"그건 당신의 얼굴이었어. 당신의 한 팔은 내 큰딸의 목을 감싸고 있었고, 다른 한 팔은 당신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지."

"당신이었어요, 제르멘. 내 남편의 아내요, 내 아이들의 장모가 될 사람이요. 내 아이들을 키울 사람이요. 당신… 당신이라고!"

"그때 나는 정신이 나갔어. 나는 단도를 쥐고 있었지. 자크는 몸을 굽히고 있었고… 나는 찔렀어."

그녀의 자백에는 거짓말이 한 마디도 섞이지 않았다. 그것을 듣는 이들은 모두 깊이 그렇게 느꼈다. 특히 오르탕스와 레닌에게 그 순간은 더없이 처절하고 비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기진맥진한 채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릴 뿐이었다. 조금씩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야 겨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저는 저희 주변에서 비명이 터지고, 제가 체포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죠. 그 일이 일어난 방식과 상황 때문에 아무도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게다가 저는 일어서는 순간, 자크도 함께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는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아니,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제가 때린 사람이요, 그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저는 테라스로 올라가 그를 봤어요. 그는 분명히 상처를 숨기기 위해 재킷을 어깨에 걸쳤죠. 그리고 그는 흔들림 없이, 혹은 제가 아니면 알 수 없을 만큼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는 카드 게임을 하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고, 그 후 자신의 선실로 향해서 사라졌어요. 저는 잠시 후 돌아왔죠.

이 모든 것이 나쁜 꿈이었기를 바랐어요. 제가 죽이지 않았기를, 적어도 상처는 가볍기를 바랐죠. 자크가 곧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저는 발코니에서 그를 감시했죠.

만약 제가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단 한 순간이라도 생각했더라면, 저는 즉시 달려갔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저는 몰랐어요. 눈치 채지도 못했죠.

예감에 대해 말하곤 하죠.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에요. 저는 완전히 평온했어요. 악몽의 기억이 희미해지고 난 후의 그 평온함처럼요.

아니요, 제가 맹세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지금 이 순간까지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흐느낌이 목을 조여왔다.

레닌이 이어서 말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알리러 온 순간까지, 맞죠?"

테레즈가 더듬거렸다.

"네……."

그제야 나는 내가 한 일을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미쳐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바로 나야! 다른 데 찾지 마. 여기 칼이 있어. 범인은 바로 나라고.'

그렇게 외치려던 찰나, 갑자기 그가 보였다. 바로 내 불쌍한 자크였다.

그들이 그를 나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아주 평온했고, 매우 부드러웠다.

그를 보며 나는 내 마땅한 도리를 깨달았다. 그가 자신의 도리를 깨달았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 그는 입을 닫았다. 나도 입을 닫아야 했다.

그가 희생자가 된 살인 사건에 대해, 우리 둘 다 유죄였다. 하지만 그 죄가 아이들에게 미치지는 않도록, 우리 둘은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그는 죽어가는 순간, 그 사실을 명확히 보았다. 그리고 그에게 질문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고, 스스로를 감금해 죽음을 맞이할 용기를 냈다.

그는 모든 잘못을 단번에 지우는 행동을 통해, 동시에 나를 용서해 주었다. 나를 고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나를 침묵하라고, 그리고 모든 이, 특히 너 게르멘을 상대로 자신을 방어하라고 명했으니까.

그녀는 마지막 말들을 더 단호하게 내뱉었다.

처음에는 남편을 죽인 그 무의식적인 행동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제 그는 다시 힘을 찾고 있었다. 그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며, 자신도 그에 맞설 만큼의 강인함을 갖추려 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두 사람을 죽음과 범죄로 몰고 간 음모가의 적대감 앞에 서 있었다. 주먹을 꽉 쥐고 싸움의 준비를 하며, 의지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제르맹 아스탱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 없이, 그러나 얼굴은 차갑게 굳은 채로 모든 말을 들었다. 테레즈의 자백이 구체적으로 드러날수록 그녀의 표정은 더 단단해졌다. 그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할 감정도, 죄책감으로 채울 후회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 다만 끝무렵에 얇은 입술이 살짝 웃는 기색을 보였으니, 사건이 자신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을 기뻐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먹이를 꽉 쥐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거울을 바라보던 그녀는 모자를 바로잡고, 쌀가루 파우더를 얼굴에 묻혔다. 그러고는 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테레즈가 재촉하듯 달려나갔다.

"어디 가요?"

"내 마음대로요."

"검사를 만나러?"

"그럴지도요."

"내가 막아설 거야!"

"좋아요. 그럼 여기서 기다리죠."

"그리고 그에게 말하겠어요?…"

"당연하지. 네가 한 말, 그리고 내게 솔직하게 털어놓은 모든 것들. 그가 의심할 리가 없지. 네가 모든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테레즈는 제르멘의 어깨를 꽉 잡았다.

"그래, 하지만 난 다른 설명도 해줄 거야, 제르멘. 너를 겨냥한 설명이지. 내가 망하면 너도 함께 망해."

"넌 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난 너를 고발할 수 있어. 편지들을 증거로 들이댈 수 있지."

"어떤 편지?"

"내 죽음이 이미 결정됐다고 적힌 편지들이야."

"거짓말이야, 테레즈. 너도 잘 알잖아. 너를 향한 그 유명한 음모는 네 상상 속에만 존재해. 자크도, 나도 너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

"너는 원했지. 네 편지들이 너를 죄인이라고 단죄해."

"거짓말이야. 그냥 친구가 친구에게 쓴 편지일 뿐이야."

"연인이면서 공범자 사이에서 오간 편지들이지."

"증명해 봐."

"그건 바로 여기 있어. 자크의 지갑 속에."

"아니요."

"뭐라고요?"

"이 편지들이 제 것이었어요. 제가 다시 찾았죠. 아니면, 제 형이 찾았다고 해야 할까요."

"너, 그걸 훔쳤네! 불쌍한 놈, 당장 돌려줘!" 테레즈가 그녀를 밀치며 소리쳤다.

"이제 더 이상 없어요. 제 형이 가져갔거든요."

"그가 돌려줄 거야."

"그는 이미 떠났어요."

"그를 찾아내면 되지."

"물론 찾을 수 있겠지만, 편지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런 편지는 찢어졌을 테니까요."

테레즈는 비틀거리며 절망적인 표정으로 레닌 쪽으로 손을 내밀었다.

레닌이 입을 열었다.

"그녀가 한 말이 맞아요. 제가 형의 행동을 지켜봤거든요. 그가 당신의 가방을 뒤졌을 때요. 그는 당신의 지갑을 가져갔고, 자매 앞에서 그 안을 뒤져본 뒤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았어요. 그리고 편지를 가져가고 떠났습니다."

레닌은 잠시 멈추더니 덧붙였다.

"아니, 적어도 다섯 개의 글자는."

그 말은 대수롭지 않게 내뱉었지만, 듣는 이들은 그 무게를 즉각 깨달았다. 두 여자가 그에게로 다가가 물었다. 무슨 뜻인가? 프레데릭 아스탱이 가져간 것이 다섯 개의 글자뿐이라면, 여섯 번째는 어디에 있는가?

"지갑이 바위 위에서 미끄러질 때, 사진과 함께 그 편지 한 장도 떨어졌을 겁니다. 임브르발 씨가 그것을 주워 들였겠지요."

레닌이 말했다.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아신다고요?" 아스탱 부인이 거친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녀의 플란넬 재킷 주머니에서 찾았습니다. 재킷은 침대 옆에 걸어두었죠. 여기 있습니다. 게르망드 아스타앙이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만으로도 그녀가 어떤 의도를 가졌는지, 그리고 연인에게 어떤 살인

충동을 주었는지 충분히 입증됩니다. 이렇게 교활한 여자가 이런 무모함을 저질렀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스타앙 부인은 창백해져 있었고, 너무 당황한 나머지 변명조차 하지 못했다. 레닌이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제게 있어서 마담, 당신은 일어난 모든 일의 책임자입니다. 파산할 대로 파산해 자금이 바닥난 당신이었죠. 당신은 임브르발 씨가 당신에게 느끼는 열정을 이용해,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결혼을 성사시키고 그의 재산을 손에 넣으려 했을 겁니다. 이 탐욕스러운 마음과 끔찍한 계산, 저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언제든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몇 분 뒤, 당신은 그 플란넬 재킷 주머니를 뒤졌죠. 저는 여섯 번째 편지를 빼냈지만, 그 안에 종잇조각을 남겨뒀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간절히 찾고 있었죠. 그 조각도 지갑에서 떨어졌을 겁니다. 임브르발 씨가 당신의 동생에게 쓴 수표였는데, 금액은 10만 프랑. 단순한 신혼 선물, 그러니까 넥타이 핀 같은 것이었죠."

"당신의 지시에 따라 동생은 자동차를 타고 르아브르로 달아났고, 틀림없이 오후 4시 전에 그 돈을 맡긴 은행에 도착했을 겁니다.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 돈을 찾지 못할 겁니다. 임브르발 씨의 살해 사실을 은행에 전화로 통보해 모든 지급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만약 당신이 복수 계획을 고수한다면, 법원은 당신과 당신의 동생에 대한 모든 증거를 손에 넣게 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나아가, 지난주 당신과 동생 사이에 도청된 전화 대화 내용을 증

거로 들이댈 수도 있습니다. 당신 두 사람이 스페인어와 자와어를 섞어 말하던 그 대화 말이죠."

"하지만 저는 당신이 그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잘 합의된 것 아닙니까?"

레닌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한 어조로, 그리고 자신의 말에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아는 신사의 여유로 말을 이었다. 그는 정말로 틀릴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일어난 일을 있는 그대로 되짚어 냈고, 논리적으로 필연적인 결론을 도출해 냈다. 그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

아스타앙 부인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격렬하고, 싸울 여지와 희망이 있는 한 끝까지 집요하게 싸우던 그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은 패배한 순간 쉽게 굴복하곤 한다.

제르맹은 너무 똑똑했다. 그런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반항하려는 시도는 쉽게 짓밟힐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안에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게 된다.

그녀는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았다. 위협도, 격분도, 신경쇠약 같은 과민 반응도 부리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우리는 합의했군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여기서 나가세요."

"만약 당신의 증언이 요구된다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하세요."

그녀는 떠났다. 문턱에 서서 잠시 망설이더니,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수표는요?"

레닌은 드임브발 부인을 바라보았다. 부인이 말했다.

"그녀가 그대로 두게. 나는 저 돈이 필요 없소."

레닌은 테레즈 드임브발에게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하는지 상세한 지시를 내린 뒤, 오르탕스 다니엘과 함께 초가집을 나섰다.

그곳, 해변에서 판사와 검사는 조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조치를 취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서로 의논하는 모습이었다.

"생각해 보세요, 하르통스."

그가 말했다.

"당신 주머니에는 임브르발 씨의 칼과 지갑이 들어 있다는 걸요!"

"그게 그렇게 위험한 일처럼 보이세요?"

그가 웃으며 물었다.

"저는 오히려 너무 유쾌하게 느껴지네요."

"두렵지 않아요?"

"무엇을?"

"누군가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세상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건 오히려 이들을 더 당황하게 만들 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으니까요.

조심해서 이틀 정도 더 머물며 상황을 지켜볼 뿐이죠.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거예요. 그들은 결코 진실을 눈치채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맞혔습니다. 첫 순간부터요. 어떻게요?"

"왜냐하면, 저는 보통 사람들이 '14시에 정오를 찾는다'는 식으로 엉뚱한 데서 추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항상 물어야 할 질문을 바로 그 자리에 던집니다. 그러니 해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어느 신사가 자신의 탈의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반시간 뒤, 그는 이미 죽어 있는 채로 발견됩니다.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간 흔적은 없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게는 답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조금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살인이 탈의실 안에서 저질러진 게 아니라면, 그건 이미 그 전에 자행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신사가 탈의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이미 죽을 상처를 입은 상태였던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에 죽을 뻔했던 드임브발 부인이 먼저 손을 쓴 겁니다. 남편이 몸을 굽힌 그 짧은 순간의 방심 사이를 파고들어, 그녀는 그를 죽인 것이죠. 이제 남은 일은 그녀의 행위에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동기를 알게 되자, 저는 그녀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움직였습니다. 그게 다예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하늘의 푸르름은 짙어졌고, 바다는 이전보다 더 고요해졌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르닌이 잠시 후 물었다.

"저는요," 그녀가 말했다. "만약 제가 또다시 어떤 음모의 희생자가 되더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을 믿을 거라고요. 모든 장애물이 있더라도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큼이나 확실하게, 당신이 나를 구해줄 것임을 압니다. 당신의 의지에는 한계가 없으니까요."

그는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의 당신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욕망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제4장 - 진실을 밝히는 필름

제4화 비밀을 폭로하는 필름

"저기 웨이터 분장한 사람 좀 봐." 세르지 레닌이 말했다.

"무슨 특이한 점이 있어?" 오르탕스가 물었다.

그들은 낮 시간, 파리의 대로변에 있는 한 영화관에서 만나 있었다. 오르탕스는 자신을 크게 감동시킨 배우를 보라고 레닌을 데려온 것이다. 포스터에 주인공으로 내세운 로즈안드레는 그녀의 이복자매였다. 아버지가 두 번 결혼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두 자매는 사이가 안 좋아져 편지조차 주고받지 않았다. 하지만 로즈안드레는 몸짓이 유연하고 얼굴에는 늘 웃음이 번지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녀는 극단에서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하다가, 최근 영화계에 등장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열정적인 아름다움과 활기로 영화 <행복한 공주>를 빛내고 있었다. 물론 그 영화 자체는 평범한 수준이었다.

뤼팽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공연이 잠시 멈춘 사이, 그는 다시 입을 열었다.

"저는 형편없는 영화를 볼 때면 보조 출연자들을 관찰하며 위안을 삼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는지 아세요? 열 번, 스무 번이나 같은 장면을 반복하다 보면, 정작 본방사수가 시작될 때쯤에는 연기에만 집중하지 못하죠. 다른 생각에 잠기게 마련입니다."

"그런 작은 딴생각들이, 그들 영혼이나 본능의 일단을 살짝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 걸 기록해 두면 꽤 재미있어요."

"예를 들어, 저 웨이터를 보세요."

화면에는 호화롭게 차려진 식탁이 비쳤다. 그 중심에는 행복한 공주가 있었고, 그녀를 둘러싸고 모든 연인들이 모여 있었다. 반쯤 여섯 명에 달하는 하인들이 오가며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의 지휘자는 거구의 요리장이었다. 그는 둔탁한 얼굴에 평범한 생김새를 하고 있었으며, 거대한 눈썹이 하나로 이어져 있었다.

"저건 무식한 놈의 얼굴이에요." 오르탕스가 말했다. "저에게서 특별히 보이는 게 있나요?"

"그가 당신의 자매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오. 그리고 그가 필요 이상으로 자주 그녀를 쳐다보지는 않는지 말이지."

"음,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르탕스가 반박했다.

"아니요, 확실히 있습니다." 레닌 공작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로즈안드레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품고 있어요. 단순한 하인의 역할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죠. 현실에서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지라도, 스크린 앞에서는 조심하지 않거나 동료 배우들이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그의 비밀이 새어나가곤 합니다. 보세요…"

남자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식사가 끝나는 순간이었다. 공작 부인은 샴페인 한 잔을 마시며, 눈이 빛나는 두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다. 무거운 눈꺼풀이 눈동자를 반쯤 가리고 있었다.

두 번 더 그들은 그에게서 특이한 표정을 포착했다. 레닌은 그것을 열정적인 의미로 해석했지만, 오르탕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 남자의 시선 방식이죠," 그녀가 말했다.

에피소드는 그렇게 끝이 났다. 하지만 두 번째 에피소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프로그램 안내문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일 년이 흘렀다. 행복한 공주는 노르망디의 아담한 오두막에서 살고 있다. 오두막은 덩굴식물로 뒤덮여 있고, 공주가 선택한 가난한 음악가와 함께.'

화면 속의 공주는 여전히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여전히 매력적이었고, 다양한 구애객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리고 있었다.

부자든 귀족이든, 금융가든 농부든, 모든 남자가 그녀의 앞에서는 넋을 잃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한 무리의 외톨이, 반야생적인 털 많은 나무꾼이 그녀를 따라다녔다. 그는 늘 산책길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도끼를 든 그는 위력적이면서도 교활했다. 오두막 주변을 배회했고, 공주에게 위험이 닥쳐올 것 같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음, 그 숲의 남자가 누구인지 아세요?" 레닌이 속삭였다.

"아니요."

"그냥 집사입니다. 두 역에 같은 통역사를 기용했을 뿐이죠."

실제로 그 모습은 비록 왜곡되기는 했지만, 무거운 걸음걸이와 장작패는 사람의 굽은 어깨 아래에서도 호텔 지배인의 태도와 제스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거친 수염과 길고 풍성한 머리카락 뒤에도, 방금 전까지 보던 면도한 얼굴과 짐승 같은 코, 그리고 굵은 눈썹의 윤곽이 분명히 식별되었다.

먼저 오두막에서 공주가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는 덤불 뒤에 숨었다. 스크린에는 때때로 비정상적으로 커진 그의 사나운 눈이나, 엄지손가락이 유난히 큰 살인자의 손이 비쳤다.

"무서워요, 오르탕스. 그 모습이 너무 생생해서 깜짝 놀랄 지경이에요."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죠." 레닌이 말했다. "두 편의 영화 촬영 시기가 세 달에서 네 달 정도 떨어져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그 사이 그의 사랑은 한층 깊어졌을 겁니다. 그에게 지금 다가오는 사람은 공주가 아니라 로즈앙드레예요."

남자는 쪼그려 앉았다.

목표물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경쾌하고, 아무런 의심 없이 숲을 지나고 있었다. 발소리가 들리자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처음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이내 진지해졌다. 그러더니 불안이 서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깊은 걱정으로 변했다.

나무꾼이 나뭇가치를 헤치고 덤불을 가로질러 오고 있었다.

그들은 정면으로 마주 섰다.

그는 팔을 벌리며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고 도움을 부르려 했지만, 숨이 막혀 나오지 않았다. 그의 팔이 그녀를 꽉 감싸 안았고, 그녀는 조금도 저항할 수 없었다. 그는 곧바로 그녀를 어깨에 업고 달리기 시작했다.

"설득되셨나요?" 레닌이 속삭였다. "이 평범한 배우가 다른 여자가 아니라 로즈-앙드레를 위한 것이었다면, 그토록 강력한 힘과 에너지를 보일 수 있었을까요?"

그때, 나무꾼은 넓은 강가 근처에 다다랐다. 진흙탕에 걸려 있는 낡은 배 한 척이 있었다. 그는 로즈-앙드레의 움직이지 않는 몸을 배 위에 눕혔다. 그리고 줄을 풀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다. 강둑을 따라 배를 저으며.

나중에서야 그는 착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 후 그는 숲 가장자리를 넘어 거대한 나무들과 바위 더미 사이로 깊숙이 들어갔다. 공주를 내려놓자 그는 동굴 입구를 깨끗이 치웠다. 동굴 안으로는 비스듬한 틈으로 낮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이어지는 장면들은 남편의 당황, 수색 활동, 그리고 공주 휴제가 꺾어 놓은 작은 가지들을 발견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 가지들은 그가 따라간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결말이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끔찍한 싸움. 그리고 힘을 다해 패배한 여자가 쓰러지는 순간, 남편이 갑자기 나타나 맹수를 총으로 쓰러뜨렸다…

네 시가 되자 그들은 극장을 나섰다. 르닌은 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운전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했다.

그들은 부두와 평화의 거리를 함께 걸었다. 르닌이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그 침묵은 젊은 여자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르닌이 물었다.

“너는 자매를 좋아해?”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둘이 싸우고 있잖아?"

"예전엔 그랬어요. 로즈는 남자들에게 꽤 잘 보려고 하거든요. 저는 남편이 살 때 질투를 했어요. 이유도 없이."

"왜 그 질문을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영화가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남자의 표정이 너무 기묘했어요."

그녀는 그의 팔을 꼭 잡았다.

"그래, 어쨌든 말해 봐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제 추측요? 다 맞고, 다 틀렸죠. 하지만 당신 자매가 위기에 처했을 거란 생각은 지울 수가 없어요."

"순수한 추측일 뿐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추측은 저를 압도하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제 생각엔, 납치 장면은 숲속의 남자가 행복한 공주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가 갈망하는 여자를 향해 거칠고 광란적인 공격을 퍼부은 것이었어요. 비록 그건 역할의 범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아무도 그 이면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로즈안드레를 제외하면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열정의 빛을 포착했어요. 갈망이 서린 시선, 심지어 살의까지 담겨 있던 눈빛. 그리고 목을 조르려는 듯 굳어진 손가락들. 스물 가지나 되는 디테일들이 제게 확신을 줍니다. 그 시절 그 남자의 본능이, 자신에게 속할 수 없는 그 여자를 죽이게끔 몰아세우고 있었음을 말이에요."

"그때는 아마도 그랬겠죠." 오르탕스가 말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났으니 위협은 이미 사라졌어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래도 저는 확인하고 싶어요."

"누구한테요?"

"필름을 만든 세계 영화사에요. 거기에 본사가 있죠. 자동차에 타서 몇 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는 운전수 클레망을 불렀고, 곧장 자리를 떴다.

하지만 오르탕스는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그토록 열렬하고 wild했던 사랑의 표현들은, 모두 한 명의 뛰어난 배우가 연기한 논리적 계산처럼 보였다. 레닌이 스스로 알아냈다고 주장했던 그 끔찍한 비극의 실체는 전혀 파악할 수 없었고, 그는 지나치게 상상력이 풍부하지는 않은지 스스로 물었다.

"어때요?" 그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아이러니한 미소를 띠며 물었다. "그 신비로운 사건은? 반전 드라마는?"

"충분히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답했다.

그녀는 즉시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주저 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남자의 이름은 달브레크입니다. 꽤 이상한 사람이에요. 속을 잘 알 수 없고 말이 적어서 항상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죠. 그런데 그분이 당신의 자매에게 특별히 집착하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두 번째 에피소드가 끝날 무렵, 그의 연기력이 너무 뛰어나 보였기 때문에 다시 촬영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촬영에 참여했죠. 촬영 장소는 파리 근처였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그의 작업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뜻밖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아침, 그는 '소시에테 몽드'의 차고를 열쇠 없이 따서 25,000프랑을 털어갔습니다. 그리고 멋진 리무진에 몸을 싣고 도망쳤죠.

경찰에 신고했고, 일요일에 리무진이 드뢰 근처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경청하던 오르탕스가 다소 창백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지금까지로는… 아무런 연관도 없군요."

"아닙니다. 저는 로즈앙드레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당신의 자매는 올여름 여행을 갔다가, 이후 유레 주에서 열흘 정도 머뭅니다. 그곳은 그녀가 소유한 재산이 있는 곳으로, 바로 '행복한 공주' 촬영지로 알려진 오두막이 있는 곳이었죠. 어떤 약속 때문에 미국으로 부름을 받아 파리로 돌아온 그녀는 생라자르 역에 짐을 맡기고, 9월 18일 금요일에 르아브르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토요일 배를 타려던 계획으로 떠났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호르타스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남자와 같은 날이군요. 그가 그녀를 납치했을 거예요."

"알게 될 겁니다." 레닌이 말했다. "클레망, 아틀랑티크 항해 회사에."

이번에는 호르타스가 사무실까지 그를 따라가 직접 경영진에게 문의했다.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로즈안드레가 라프로방스 호에 예약한 칸이 있었지만, 배는 승객이 나타나기도 전에 출항했다. 다음 날, 르아브르에는 로즈안드레라는 서명의 전보가 도착했다. 일정 지연을 알리며, 짐은 보관해 달라는 요청이었다. 전보는 드뢰에서 보내진 것이었다.

오르탕스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이 모든 우연이 테러 말고는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보였다. 사건들은 레닌의 직관에 따라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다.

자동차 안에 웅크린 그녀는 그가 경찰청을 주소로 적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파리의 중심가를 지나쳤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는 홀로 선착장에 남았다.

"오세요."

그가 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나요? 만나 주었나요?" 그녀가 초조한 목소리로 물었다.

"만나려고 한 건 아닙니다. 다만 다른 날 두트뢰이 사건 때 파견해 준 모리소 형사, 그분과 연락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만약 아는 게 있다면, 그를 통해서라도 알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그분은 저기 광장 쪽에 보이는 작은 카페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신임 경장이 신문을 읽고 있는 외딴 테이블 앞에 자리를 잡았다. 곧바로 그는 그들을 알아봤다. 레닌이 그의 손을 잡더니, 서둘러 말을 꺼냈다.

"흥미로운 사건 하나 가져왔습니다, 경감님. 이 일로 경감님의 명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이미 알고 계신가요?"

"어떤 사건 말입니까?"

"달브레크 사건입니다."

모리소 경장은 놀란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네, 알고 있어요. 신문에도 나왔죠. 자동차 절도 사건, 바봇이 2만 5천 프랑을 훔쳤다고요. 내일 신문에는 우리 형사국이 새로 밝혀낸 사실이 실릴 겁니다. 다르브레크가 작년에 큰 논란을 일으켰던 보석상 부르게 살해 사건의 범행자라는 사실이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레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말인가요?"

"그가 지난 9월 19일 토요일 낮에 저지른 납치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아, 그건 알고 계셨군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자." 가니마르 형사가 결심을 굳히며 말했다.

"지난 9월 19일 토요일, 한창 한낮의 거리에서 장을 보던 한 부인이 세 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다. 괴한들은 타고 온 자동차를 몰아 빠르게 도망쳤다.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했지만, 피해자와 범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했다. 아무것도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제 몇 명의 형사를 이끌고 르아브르로 가서야 비로소 그 괴한 중 한 명을 특정할 수 있었다. 2만 5천 프랑 절도, 자동차 절도, 그리고 이 젊은 여성의 납치.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일이다."

"범인은 단 한 명, 달브레크뿐이다. 하지만 그 젊은 여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도 없다. 우리 모든 수사는 헛수고로 끝났다."

오랑스는 가니마르 경감의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는 심란한 기색이었다. 경감이 이야기를 끝내자,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무서워요…… 불쌍한 여자는 끝장이야요…… 희망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모르소에게转向해 레닌이 설명했다.

"피해자는 부인의 자매, 정확히 말하면 이복자매입니다. 영화계에서 아주 유명한 통역사, 로즈안드레……"

그리고 몇 마디로, 그가 《행복한 공주》 영화를 보고 품었던 의심들과, 그가 개인적으로 진행해 온 수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작은 탁자 주변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이번에도 주경감은 레닌의 기지를 앞세워 당황한 채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랑스는 눈빛으로 그를 간청했다. 마치 그가 단번에 이 수수께끼의 본질에 도달할 수 있을 것처럼.

그가 모르소에게 물었다.

“차에 탄 남자는 정확히 세 명이었나?”

“네.”

“드루에서도 세 명이었나?”

“아니요. 드루에서는 두 명만 확인했습니다.”

“달브레크도 그중 한 명인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증언도 그의 특징과 맞지 않거든요.”

그는 잠시 더 생각하더니, 탁자 위에 큰 도로 지도를 펼쳤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자 그가 형사에게 물었다.

“동료들은 르아브르에 그대로 두고 왔나?”

“네, 형사 두 명을요.”

“오늘 밤 그들에게 전화할 수 있겠나?”

“네.”

“안내국에서 형사 두 명을 더 불러오라고 요청할 수 있겠나?”

“네.”

“좋다. 내일 정오에 만나자.”

"어디서?"

"여기서."

그가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점을 짚었다. 그곳은 '통나무 우물이 있는 참나무'라는 표기가 된 곳으로, 오르주 상테 형무소 인근 브로통네 숲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입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어젯밤 납치 사건当晚, 달브레크가 피신처를 찾은 곳이 바로 여기죠. 내일 봐요, 모리소 씨. 약속 시간에 꼭 맞춰 주십시오. 이만한 사나이를 잡으려면 사람 다섯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형사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나이는 그를 경악하게 만들었다. 그는 음료를 결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무의식적으로 경례를 하며 밖으로 나갔다.

"네, 꼭 가겠습니다, 모리소 씨."

다음 날 아침 8시, 오르탕스와 레닌은 클레망이 운전하는 넓은 리무진에 타고 파리를 떠났다. 여행 내내 말없이 지냈다. 오르탕스는 레닌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고 있었지만,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사건의 결말을 생각했다.

그곳에 가까워졌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그녀를 그 숲으로 데려갔다는 증거가 무엇인가?"

그는 다시 무릎 위에 지도를 펼쳤다. 그리고 오르탕스에게 일러주었다. 르아브르, 정확히는 센 강을 건너는 킬리뷔프에서, 자동차가 발견된 드뢰까지 선을 그으면 그 선이 브로통 숲 서쪽 가장자리에 닿는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리고," 그가 덧붙였다. "소셜 월드에서 들은 말로는, '행복한 공주'가 촬영된 곳이 브로통 숲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 하나 생깁니다. 로즈-앙드레를 납치한 달브레크가 토요일에 숲 근처를 지날 때, 그곳에 피랍자를 숨기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그 두 공범자는 드뢰로 향했다가 파리로 돌아갔으니까요. 동굴이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동굴을 지나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몇 달 전, 그가 사랑하던 여인을 품에 안고 입맞춤을 나누던 곳이 바로 그 동굴을 향해 달렸던 길 아니겠습니까? 이제 막 그 여인을 손에 넣은 그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 모험은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현실 속의 일입니다. 로즈-앙드레는 포로가 되었습니다.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숲은 광활하고 황량합니다. 그날 밤, 혹은 그 후 며칠 밤 중 어느 날, 로즈-앙드레는 결국 항복해야만 합니다.

오르탕스가 오들오들 떨었다.

"아니면 죽었겠지. 아, 레닌! 우리가 너무 늦게 도착했어."

"왜요?"

"생각해 봐! 삼 주나 지났잖아. 그가 그토록 오래 그곳에 가둬두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잖아?"

"물론 아니지. 내가 알려준 곳은 도로가 교차하는 곳이라 은신처로 적합하지 않아. 하지만 그곳에서 분명 단서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들은 정오 직전쯤 길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그리고는 브로통느의 높은 수목 숲으로 들어섰다. 이곳은 로마 시대의 기억과 중세 유적이 가득한, 오래되고 광활한 숲이었다.

레닌은 이 숲을 자주 다녔기에, 사방 십 리 안에 유명한 참나무 한 그루를 향해 차를 몰아갔다. 가지가 넓게 퍼진 그 나무는 마치 큰 대야를 닮았다. 차는 나무 바로 앞의 굽은 길에서 멈췄고, 그들은 걸어서 나무까지 향했다.

모리소가 네 명의 건장한 사내와 함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오세요. 동굴이 바로 옆, 덤불 속에 있답니다." 레닌이 말했다.

그들은 동굴을 쉽게 찾아냈다. 거대한 바위들이 낮은 입구를 덮고 있었고, 두꺼운 덤불 사이로 좁은 길을 따라 기어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손전등 불빛으로 작은 동굴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다. 벽면은 사인들과 낙서들로 가득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군." 그가 호르랑스와 모르소에게 말했다. "하지만 내가 찾던 증거는 여기 있다. 만일 그 영화의 기억이 달브레크를 이 '행복한 공주' 동굴로 다시 돌아오게 했다면, 로즈안드레도 같은 이유에서 이곳에 왔을 것이다. 영화 속 '행복한 공주'는 길을 가는 내내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그리고 정확히 이 구멍 오른쪽에, 최근에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놓여 있다."

"좋아요." 호르랑스가 말했다. "그들이 지나간 흔적이라는 증거로 인정하지. 하지만 그건 삼 주 전의 일이고, 그 이후로…"

"그 이후로, 네 자매는 더 외딴 구덩이 속에 갇혀 있는 거야."

"아니면 죽어서 나뭇잎 더미 밑에 묻혀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야, 아니." 레닌이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이 남자가 그 모든 일을 저질렀건만, 결국 어리석은 살인으로 끝났을 리가 없어. 인내심 있게 기다렸겠지. 위협이나 굶주림으로 희생자를 조종하려 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지?"

"찾아보자."

"어떻게?"

"이 미로를 빠져나갈 단서가 있어. 바로 『행복한 공주』의 줄거리야. 거슬러 올라가 보자. 처음부터 차근차근."

"드라마 속에서, 숲의 남자는 공주를 이곳으로 데려오기 위해 강가를 따라 노를 저은 뒤, 숲을 가로질렀어. 센 강까지 거리가 단 일킬로미터야. 센 강 쪽으로 내려가자."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망설임 없이, 경계하는 눈으로, 자신의 후각이 확실하게 이끄는 훌륭한 사냥개처럼 앞을 향해 나아갔다. 멀리서 자동차가 그들을 쫓아왔지만, 그들은 물가 근처의 집 무리 쪽으로 향했다.

레닌은 바로 도선인의 집으로 직진해 그를 물었다.

짧은 대화가 오갔다. 삼 주 전, 월요일 아침에 이 남자가 자신의 배 한 척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었다. 그 배는 반 리구 아래 진흙탕에서 발견해야 했다.

"여름에 영화 촬영을 했던 오두막 근처인가요?" 레닌이 물었다.

"네."

"그곳이 바로 우리가 납치된 여성을 하선했던 곳인가요?"

"네. '행복한 공주', 아니면 좀 더 정확히 말해 '클로조리'의 소유자인 로즈안드레 부인이었죠."

"지금 그 집은 문을 열고 있나요?"

"아니요. 한 달 전, 모든 것을 정리한 뒤 그녀가 떠났습니다."

"간호부라도 없었나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레닌이 돌아서서 오르탕스에게 말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감옥이었어요."

사냥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들은 센 강변의 배를 끄는 길 전체를 따라 걸었다. 옆 풀밭 위를 발소리를 죽이고 걸어가며, 길은 큰 도로와 합쳐졌다. 그곳에는 잘라낸 숲이 있었고, 그 숲을 벗어나자 언덕 위에서 그들은 클로질리를 바라보았다. 클로질리는 울타리로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다. 오르탕스와 레닌은 '행복한 공주'의 오두막을 알아봤다. 창문들은 shutters로 막혀 있었고, 길에는 이미 풀이 자라나 있었다.

그들은 한 시간 이상이나 그 자리에 머물렀다. 덤불 속에 몸을 숨긴 채였다.

상사는 조바심을 내기 시작했다. 젊은 여자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다. 클로;리가 자매의 감옥이 될 수 있다고는 믿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레닌은 끝내 물러서지 않았다.

"저기에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논리적으로 분명해요. 달브레크가 그 장소를 선택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녀가 익숙한 환경에서 그녀를 더 순종적으로 만들려는 의도였겠죠."

마침내, 그들 반대편, 클로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둔탁한 소리였다. 한 인물이 도로로 모습을 드러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얼굴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무겁게 내디디는 걸음걸이와 전체적인 자태는 레닌과 오르탕스가 필름에서 본 남자의 그것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렇게 스물네 시간 만에, 통역사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미미한 단서들만으로도 세르즈 레니느는 단순한 심리학적 추론을 통해 사건 중심부로 다다랐다.

필름이 암시했던 바를, 필름이 다시 한 번 강요했던 것이다.

달브레크는 영화 속 가상 세계든, 현실 세계든 똑같이 행동했다. 레니느는 달브레크가 필름의 영향 아래 되짚어 올라가던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거슬러 올라갔다. 그리고 마침내, 숲의 사내가 행복 공주를 가두어 둔 그곳에 도착했다.

달브레크의 차림은 행색이 초라했다. 기워 입은 헐렁한 옷과 천 조각으로 된 의복.

어깨에는 도끼를 메었고, 등에는 배낭을 짊어졌다. 배낭 밖으로 병목과 빵 한 조각 끝이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울타리의 자물쇠가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과수원으로 들어간 그는 곧 나무들 뒤에 몸을 숨겼다. 그 나무들은 집의 다른 쪽 면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주었다.

레닌은 돌진하려던 모리소를 팔로 잡아당겼다.

"왜 그러세요?" 호르탕스가 물었다. "그 도둑을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안 그러면…"

"동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경보가 울렸을 때를요."

"어쩔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제 동생을 구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너무 늦어서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다면요? 그 악당에게 도끼로 한 방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들은 기다렸다. 한 시간이 더 지났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화나게 했다. 호르탕스는 가끔 울었다. 하지만 레닌은 견뎌냈고, 아무도 그에게 불복종할 용기가 없었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해질녘의 첫 그림자가 사과나무들 위로 길게 드리워지려던 찰나, 그들이 바라보던 정문 쪽에서 문이 열렸다.

겁에 질린 비명과 승리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한 쌍의 인물이 뛰어나왔다. 서로를 꼭 안은 그 쌍을 보니, 남자의 다리와 그가 품에 안고 있는 여자의 몸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달브레크는 미친 듯이 나무 사이를 뛰어다녔다. 웃고, 외쳤다. 짐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도약을 했다. 그는 환희와 살육에 취한 괴상한 짐승처럼 보였다.

해방된 한 손이 도끼를 휘두르며 번쩍였다. 로즈는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

그는 과수원을 온통 누비며 울타리 옆을 달렸다. 그러다 갑자기 우물 앞에서 멈춰 섰다. 팔을 뻗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마치 그녀를 심연으로 떨어뜨리려는 듯했다.

순간이 끔찍하게 느껴졌다. 그는 저 끔찍한 행동을 감행할 것인가? 아니, 아마도 그것은 단지 협박이었을 것이다. 그 끔찍함으로 인해 젊은 여성이 복종하도록 만들려는 의도였겠지. 그러자 그는 갑자기 방향을 돌려, 정문 쪽으로 곧장 달려가 현관으로 사라졌다. 자물쇠가 끼워지는 소리가 났다. 문이 닫혔다.

놀랍게도 레닌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두 팔을 벌려 형사들의 길을 막아섰다. 호르탕스는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간청했다.

"저를 구해 주세요… 그자는 미친 사람이에요… 저를 죽일 거예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때, 남자가 다시금 피해자에게 공격을 가하려는 기세를 보였다.

그는 큰 지붕의 쑥대 사이, 정면 벽면에 뚫린 작은 창문 너머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는 끔찍한 짓을 다시 시작했다. 로즈-앙드레를 공중으로 매달아 올리고, 마치 공중으로 던져 버릴 먹이처럼 그녀를 흔들었다.

그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걸까? 아니면 정말로 그저 위협에 불과했던 걸까? 로즈가 충분히 굴복했다고 판단한 걸까?

그는 안으로 물러났다.

이때는 호르탕스가 뜻을 이뤘다. 차가운 손으로 그녀는 레닌의 손을 꽉 쥐었고, 그는 그 손이 절망적으로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제발요… 제발요… 뭘 기다리시는 건가요?"

그는 양보했다.

"그래, 가자고. 하지만 너무 서두르지 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 하지만 로즈가… 그가 로즈를 죽이려 한다니!… 도끼를 보셨나요?… 그는 미친놈이에요. 로즈를 죽일 거예요."

"우리가 시간 있어요. 제가 모든 책임 집니다."

호르타느는 걸을 힘이 없어 그의 팔에 의지해야 했다. 둘은 언덕을 내려왔고, 나뭇가지가 가려주는 한적한 장소를 골랐다. 그는 젊은 여자가 울타리를 넘도록 도와주었다. 어둠이 내리면서는 그들이 보이는 것도 불가능할 터였다.

그는 말 없이 과수원 둘레를 돌았다. 그리고 집 뒤쪽으로 도착했다. 바로 그곳이 달브레크가 처음 들어왔던 곳이었다. 그들은 주방으로 통하는 작은 뒷문 하나를 발견했다.

"어깨로 한 번 밀어보세요," 그는 형사들에게 말했다. "적절한 순간이 오면 그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때가 됐습니다," 모르소 형사가 중얼거렸다. 그는 이런 지체 거부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아직은 아니다. 먼저 저편 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해야 해. 내가 휘파람을 불면, 그 판자를 갑자기 치워 버려. 그리고 권총을 꺼내 들고 그 남자를 잡으러 올라가. 하지만 그전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 위험에 빠질 테니까.

"그 남자가 저항하면 어떡합니까? 그는 미친 짐승 같은 놈이잖아요."

"다리를 쏘라. 그리고 무엇보다 그 남자를 생포해야 해. 너희가 다섯이나 되는 마당에!"

그는 호르탕스를 끌고 가서 몇 마디 말로 그녀를 다시 정신 차리게 했다.

"빨리! 행동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나를 믿어라."

호르탕스가 한숨을 쉬었다.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나도 마찬가지야." 레닌이 말했다. "전체적인 그림이 내게는 여전히 의아해. 하지만 나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까 봐 두렵다는 걸."

"돌이킬 수 없는 일?" 그녀가 말했다. "그건 로즈의 죽음이에요."

"아니요. 이건 사법부의 조치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움직이려 합니다."

그들은 집 주변을 돌며 덤불에 부딪혔다. 그러다 레닌이 지층 창문 중 하나 앞에 멈춰 섰다.

"들어 보세요." 그가 말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네요. 저쪽 방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분명 그들을 비추는 빛이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낳았다. 그는 늦게까지 자란 식물들을 헤치고 닫힌 창문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두 개의 창문 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칼날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그리고 안쪽에 있는 잠금장치를 들어 올렸다.

창문이 열렸다.

무거운 천 커튼이 창틀에 바짝 붙어 있었지만, 윗부분은 살짝 젖혀져 있었다.

"창틀에 올라가실 거예요?" 호르탕스가 속삭였다.

"그래. 유리창 하나를 잘라낼 거야. 만약 급한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 사람에게 총을 겨누고, 너는 호루라기를 불어. 그러면 저쪽에서 공격을 시작하게 할 거야. 여기, 호루라기다."

그는 매우 조심스럽게 올라갔다. 몸을 일으켜 창문 쪽으로 다가갔다. 커튼이 젖혀진 부분까지 도달한 것이다.

한 손으로는 조끼 안쪽에 권총을 끼워 넣었다. 다른 한 손에는 다이아몬드 팁을 쥐고 있었다.

"보이세요?" 호르탕스가 숨을 죽이며 물었다.

그는 이마를 창문에 바짝 대었다. 그러자 숨 막히는 탄성이 새어 나왔다.

"세상에, 믿을 수 없군요."

"쏘세요! 쏘라고요!" 오르랑스가 재촉했다.

"아니, 안 돼…"

"그럼 제가 휘파람을 불까요?"

"아니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오르랑스는 무릎을 난간에 올렸다. 레닌이 그녀를 끌어안아 주었고, 그녀는 함께 볼 수 있도록 레닌이 몸을 피워주었다.

"보세요."

그녀가 얼굴을 바싹 들이댔다.

"아!" 그녀도 역시 놀람에 질질했다.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죠!"

전등갓 없는 전구 두 개와 아마 스무 개가 넘는 양초가 비추는, 사치스러운 거실이었다. 소파들이 둘러싸고 오리엔탈 카펫이 바닥을 덮은 곳이었다.

그 소파 중 하나에 로즈-앙드레가 반쯤 누워 있었다. 그녀는 영화 <행복한 공주>에서 입었던 금속 원단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맨살의 아름다운 어깨와 보석과 진주로 엮은 머리결이 빛났다.

달브레크는 그녀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는 사냥 바지와 조끼 차림으로, 쿠션 위에 앉아 그녀를 신비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로즈는 행복하게 미소 지으며 남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번이나 그에게 몸을 기울여, 먼저 이마에 입을 맞추더니 이어 입술을 길게 베었다. 그녀의 눈은 쾌락에 취해 떨리고 있었다.

열정적인 장면이었다. 시선으로, 입술로,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젊은 욕망 전체로 하나가 된 두 사람은 분명히 배타적이고 격렬한 사랑에

빠져 있었다. 오두막의 고요함과 평화 속에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의 키스와 애정만이 전부였다.

오르탕스는 이 예상치 못한 광경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바로 몇 분 전까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 주위를 맴도는 듯한 기묘한 춤처럼 끌고 갔던 그 남자와 여자가 맞을까? 정말로 그녀의 자매였을까? 그녀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완전히 다른 여성이 눈에 들어왔다.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오르탕스가 떨림을 느끼며 그 힘과 열정을 짐작할 수 있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다.

"세상에, 그녀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런데 그런 인간이 정말 있을 수 있을까?"

"무조건 그녀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녀와 상의해야 해요."

"그래, 그래. 어떤 일이 있어도 그녀가 스캔들과 체포에 연루되어서는 안 돼. 그녀를 보내버려. 이런 일이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게."

불행히도, 오르탕스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서두르는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유리창을 가볍게 두드리는 대신, 손으로 나무 창틀을 세게 두드려 창문을 강타했다.

놀란 연인들은 얼어붙은 눈으로 고개를 들고 귀를 기울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레닌은 곧장 유리창을 깨서 그들에게 설명의 말을 던지려 했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얻지 못했다.

로즈앙드레는 아마도 자신의 연인이 위기에 처해 있고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는 절박한 힘으로 그를 문 쪽으로 밀어냈다.

달브레크는 순종했다. 로즈의 의도는 분명히 그를 부엌 쪽 출구로 도망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라졌다.

레닌은 앞으로 벌어질 일을 선명하게 내다볼 수 있었다. 도망자는 자신이 준비해 둔 매복 함정에 걸려들었다.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어쩌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다.

그는 땅으로 뛰어내려 집 주변을 달렸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고 길은 어둡고 장애물이 많았다. 게다가 상황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전개되었다. 그가 집 다른 쪽으로 돌아나왔을 때, 총성이 울려 퍼졌고 이어 고통스러운 비명이 들렸다.

부엌 문턱에서 손전등 두 개의 빛을 배경으로 레닌은 달브레크를 발견했다. 그는 세 명의 경찰에게 잡혀 누워 비명처럼 신음하고 있었다. 다리가 부러진 것이었다.

방 안에서는 로즈앙드레가 비틀거리며 손을 앞으로 내밀고, 얼굴이 일그러진 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더듬고 있었다. 오르탕스가 그녀를 끌어안아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나야… 네 누나야… 널 구하러 왔어… 나 알아?"

로즈는 이해하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눈동자가 흐릿하게 어두워져 있었다.

그녀는 불규칙한 발걸음으로 형사들 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끔찍해요… 저기에 있는 남자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레닌은 망설이지 않았다. 정신이 혼미한 환자처럼 다뤄야 한다고 판단한 그는 로즈를 안아 올랐다. 호르타ンス가 문을 닫고 따라나섰다.

로즈는 거칠게 몸부림쳤다. 숨이 막힐 듯이 비명을 질렀다.

"이건 범죄예요… 그러지 못해요… 왜 그를 체포하는 거죠? 네, 내가 읽었어요. 보르게 귀 보석상 살해 사건… 오늘 아침 신문에 났죠. 하지만 거짓말이에요. 그는 자신을 증명할 수 있어요."

레닌은 로즈를 소파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진정하십시오. 저를 불리하게 할 말은 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군요. 그 남자는 분명히 도둑이었으니까요. 자동차를 훔쳤고, 2만 5천 프랑도 가져갔으니까요."

"미국으로 떠난 일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동차는 이미 찾았잖아요. 돈도 돌려줄 거고, 그는 손대지도 않았어요. 아니,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저지를 권리가 없어요. 저는 자발적으로 여기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무엇보다도요. 인생

에서 한 번뿐인 사랑처럼요. 그 사람을 사랑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요."

불쌍한 여인은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했다. 그녀는 꿈속에서 말하듯, 꺼져가는 목소리로 자신의 사랑을 확인했다. 끝내 힘이 빠져 쓰러지자,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더니 뒤로 넘어졌다. 그녀는 기절해 있었다.

한 시간 후. 다브레크는 방 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손목은 단단히 묶인 채, 그는 맹렬한 눈빛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근처에서 소환된 의사가 뤼닌의 차를 타고 달려와 다리를 감아 주었고, 내일 아침까지 절대적인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다. 모르소와 그의 부하들은 경계를 서고 있었다.

뤼닌은 거실 안을 오갔다. 손은 등 뒤에 꼬고 있었다. 그는 매우 기분 좋아 보였다. 때때로 두 자매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는데, 마치 화가로서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매우 사랑스럽게 여기는 듯한 표정이었다.

호르탕스가 그의 뜻밖의 기쁨에 눈치챌 때쯤, 그녀는 반쯤 몸을 돌려 물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손을 비비며 말했다.

"재미있군."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어?" 오르탕스가 나무라는 어조로 물었다.

"하느님,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우스워요. 로즈앙드레는 자유롭고, 완벽한 사랑을 누리고 있죠. 그런데 상대가 누구냐고요? 숲의 남자요. 길들여지고, 바디로션으로 윤기나게 손질되고, 타이트한 수영복을 입은 숲의 남자가요. 그리고 그녀는 그 남자를 입에 닿는 대로 입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그 애를 동굴 깊숙한 곳이나 무덤 속에서 찾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 물론이죠. 그녀는 감옥의 고통을 충분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첫날 밤, 그녀는 죽어가는 몸으로 동굴에 던져졌다고요. 하지만 문제는 다음 날, 그녀가 살아있었다는 점입니다. 단 하룻밤만에 그 여자는 길들여졌죠. 달브레크를 '요정 공주'의 왕자처럼 여길 만큼요. 단 하룻밤이요!…"

그들은 서로를 위해 태어났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기로 결심하죠. 세상의 눈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처를 함께 찾기로 말입니다. 어디로? 바로 여기, 클로졸리로요. 누가 로즈앙드레를 클로졸리까지 쫓아오겠습니까?

하지만 두 연인에게는 그 정도로는 부족했습니다. 몇 주간의 달콤한 신혼여행? 아니요. 그들은 서로에게 온 생을 바칠 것입니다. 어떻게? 이미 발을 들인 그 매혹적이고 풍경 같은 길로요. 다시 말해, 새로운 '작품'을 '구현'하는 길로요.

달브레크는 『행복한 공주』에서 모든 기대를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미래는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미국! 부와 자유!… 미루지 말고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깜짝 놀란 채 방금 전, 그들이 한창 리허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광기와 살인의 드라마를 연기하며 말이죠. 솔직히 말해, 그 순간 저는 진실을 향한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이군,'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클로졸리의 연애사건까지 맞춰잡았습니까? 아, 그것은 천리나 먼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됐든요. 스크린이든 무대든, '행복한 공주'는 저항하거나 죽음을 택하죠. 그런데 이 공주는 죽음을 선택하기보다 오해를 택했다니,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 모험이 뤼팽을 즐겁게 했는지, 그는 다시 말을 이었다.

"아니, 아니야. 신이여, 영화 속 사건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아. 바로 그 점이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끈 거야. 처음부터 나는 '행복한 공주'라는 영화를 계속 재생하고 있었지. 그리고 그 영화 속 발자국을 따라 걸었어. '행복한 공주'가 그렇게 행동했거든. 숲속의 사나이가 그런 식으로 굴었으니까. 그러니 모든 게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라면, 그들을 따라가면 되겠지.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어. 모든 규칙에 반해서, 로즈안드레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야. 그리고 단 몇 시간 만에, 피해자는 세상에서 가장 연애에 빠진 공주로 변해버렸지! 아, 달브레크, 너 정말 우리를 속였군. 결국 영화에서 우리는 거친 괴물, 털이 길고 얼굴이 고릴라 같은 야만인을 볼 때, 현실에서도 그런 무시무시한

괴물이 있을 거라고 상상할 권리가 있지. 하지만 그게 뭐야? 그는 다온 후안이었어. 장난기 많은 녀석, 정말!"

레닌은 다시 한번 손을 비비며 웃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오르탕스가 더 이상 자신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로즈가 나른함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젊은 여동생이 로즈를 품에 안으며 속삭였다.

"로즈… 로즈… 나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로즈에게 조용히 말을 걸며, 애정 어린 손길로 그를 흔들었다. 하지만 로즈는 차츰 원래의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다. 동생의 말을 듣는 내내 그는 움직이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몸을 굳게 다잡고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다.

레닌은 이 고통을 건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로즈 안드레가 내린 신중한 결정을, 그 어떤 논리도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다가가 부드럽게 물었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마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당신이 사랑하는 이를 지키고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이익을 생각하면, 몇 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여전히 당신이 그의 피해자였다고 믿게 두는 것

이 좋죠. 내일 아침, 당신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제가 직접 행동하라고 조언하겠습니다. 그때까지, 당신과 자매님은 방으로 올라가 준비를 하세요. 당신의 서류를 정리해 두어 수사당국이 당신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내지 못하게 하십시오. 저를 믿으십시오. 신뢰해 주세요."

레닌은 오랫동안 설득을 이어갔고, 결국 젊은 여성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기다리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그들은 클로-조리에서 밤을 보내기로 했다. 식량은 충분했다. 형사 한 명이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저녁이 되자 오르탕스는 로즈의 방을 함께 썼다. 레닌, 모리소, 그리고 형사 두 명이 거실 소파에서 잠을 잤고, 나머지 형사 두 명은 부상자를 지켰다.

그 밤은 아무 일 없이 흘렀다.

아침이 되자 클레망이 전날 신고한 헌병들이 일찍 도착했다. 달브레크를 주 교도소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레닌이 자신의 자동차를 제안했고, 클레망이 바로 농가 앞으로 차를 가져왔다.

소음에 눈치챈 두 자매가 아래로 내려왔다. 로즈-앙드레는 무언가 결단하려는 사람처럼 표정이 굳어 있었다. 오르탕스는 불안한 눈빛으로 레닌의 평온한 모습을 지켜보았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이제 달브레크와 그의 호위 요원을 깨우는 일만 남았다.

모리소는 직접 현장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두 남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침대에는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달브레크는 탈출한 뒤였다.

이 갑작스러운 반전은 당장 경찰과 헌병들 사이에 큰 혼란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들은 부상자가 달아났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다리가 부러진 상태라면 얼마든지 다시 붙잡을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컸던 것이다. 감시인들이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한 채 이루어진 이 불가해한 탈출의 비밀은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달브레크는 과수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 분명했다.

즉시 수색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는 너무나 확실해 보였다. 다시금 불안에 떨던 로즈앙드레가 수석 형사에게 다가갔다.

"조용히."

모니터링하던 세르주 레닌이 낮게 속삭였다.

로즈앙드레는 말을 더듬었다.

"우리가 그를 찾아내 총으로 쏴 죽일 거야."

"그는 찾을 수 없어요." 레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하죠?"

"그는 내가 운전기사의 도움을 받아 오늘 밤 탈출시킨 거예요. 형사들의 커피에 약간의 약을 타서, 그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어요."

그녀는 깜짝 놀라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다쳤어요. 어딘가 구석에서 죽어가고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오르탕스는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지만, 안심하며 레닌을 믿었다.

레닌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인, 두 달 뒤 그가 완치되고, 그에게 대한 진실을 법정에 밝히면, 그와 함께 미국으로 떠날 것이라고 저에게 맹세하세요."

"그렇게 맹세할게요."

"그리고 그와 결혼할 것도요?"

"그것도 맹세할게요."

"자, 가시죠. 놀라는 말도, 행동도 하지 마세요. 단 한 순간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이미 절망에 빠져 있던 모리소를 불렀다.

"주 inspecteur, 우리는 마담을 파리로 모셔가야 합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죠. 어쨌든 당신의 수사가 어떤 결과를 내든 – 성공할 거라 믿습니다만 – 이 일로 인해 당신이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좋은 관계가 있는 경찰청을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는 로즈앙드레에게 팔을 내밀고 차 쪽으로 안내했다. 걸어가다 그는 그녀가 비틀거리며 자신의 팔에 매달리는 것을 느꼈다.

"세상에, 구원받았어요… 그가 보이는 것 같아요."

좌석에 앉은 그녀는 클레망이 있던 자리에서, 운전사 복장에 단정히 차려입고 챙을 푹 눌러쓴 채 큰 안경으로 얼굴을 가린 한 인물을 알아봤다. 바로 그녀의 연인이었다.

"타." 레닌이 말했다.

그녀는 달브레크 옆에 앉았다. 레닌과 오르탕스는 뒷좌석에 자리를 잡았다. 경감은 모자를 손에 든 채 차 주변을 바삐 돌아다니며 준비를 마쳤다.

출발했다. 하지만 숲 한가운데를 달리는 두 킬로미터 지점에서 차를 세워야 했다. 간신히 고통을 이겨냈던 달브레크가 갑자기 힘이 빠진 것이다. 그들은 그를 차 안에 눕혔다. 레닌이 핸들을 잡고, 오르탕스가 그 옆에 앉았다.

루비耶르에 다다르기 전, 또 한 번 멈춰 섰다. 차가 지나가자 달브레크의 옷을 뒤집어쓴 운전사 클레망을 태웠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차 안은 고요했다. 자동차는 빠르게 달리고 있었다. 오르탕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날 밤 일어난 일에 대해 르니네에게 묻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원정대의 세부 사항이나 달브레크를 어떻게 속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지 않았다. 오르탕스

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언니만을 생각하고 있었고, 그토록 많은 사랑과 열정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르니네는 파리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밤에 달브레크와 이야기했다. 그는 보석상 살해 사건에 대해 분명히 무죄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착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부드럽고 헌신적이며 로즈-안드레를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르니네는 덧붙였다.

"그가 옳은 말이야. 사랑하는 이를 위해선 모든 걸 해야 해. 자신을 희생하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과 기쁨, 행복을 바쳐야 하지. 그리고 그녀가 지루해할 땐, 그녀를 즐겁게 하고 감동시키며 미소 짓게 하는, 아니 눈물까지 흐르게 하는 멋진 모험을 선사해야 해."

오르탕스가 몸을 떨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는 드디어 자신들을 묶어 주던 감정적 관계에 대해 언급했다. 그 끈은 아직까지도 fragile했지만, 함께 겪어 온 불안과 열정 속의 각기 다른 사업들이 그 끈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고 있었다.

그녀는 그 특별한 남자 곁에서 자신이 약하고 불안정한 존재임을 느꼈다. 그는 사건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했고, 적대시하거나 보호하는 사람들의 운명을 장난감처럼 다루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두렵게도 했지만,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때로는 스승처럼, 때로는 방어해야 할 적처럼 생각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매력과 유혹으로 가득한, 하지만 혼란스러운 친구처럼 생각했다.

제5장 - 장루이의 사건

제5화 장루이 사건

그 일은 가장 평범한 사건보도처럼, 그리고 놀라울 만큼 빠르게 벌어졌다. 그 속도에 호르타느는 할 말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산책 중이었고, 서로 손을 잡고 센 강을 건너고 있었다. 그때 한 여자의 그림자가 다리의 난간을 넘어서더니, 공중으로 몸을 던졌다.

사방에서 비명 소리와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순식간에 호르타느는 레닌의 팔을 꽉 잡았다.

"뭐라고? 너, 자살하려는 거야? 안 돼! 내가 못 하게 할 거야!"

그녀의 손에는 남자의 재킷만 남아 있었다. 레닌은 단숨에 뛰어올랐고, 그리고…… 그리고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삼 분 후, 달리는 군중의 흐름에 휩쓸린 호르타느는 강가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레닌은 계단을 올라오며 한 젊은 여자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검은 머리카락은 창백한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 약국으로 급히 가자. 혀를 당기는 처치를 받으면 위험은 없어."

그는 젊은 여성을 두 명의 경찰에게 맡기고, 그의 이름을 묻는 구경꾼들과 가짜 기자들을 물리쳤다. 그리고 감격으로 몸이 떨리는 오르타스를 택시에 태워 보냈다.

"휴!" 잠시 후 그가 외쳤다. "또 한 번 물에 빠지는 수모를 당했군. 미안해, 친애하는 친구. 어쩔 수 없지. 내 본성이 그러니까. 내 동료 중 한 명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면, 나도 따라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내 조상들 중에 뉴펀들랜드 개가 있었나 봐."

그는 집으로 돌아와 옷을 벗었다. 오르타스는 차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운전기사에게 명령했다.

"틸시트 거리로."

"어디로 가는 거죠?" 오르타스가 물었다.

"그 젊은이의 안부를 확인하러 가는 거야."

"그녀의 주소를 알고 계셨나요?"

"네, 팔찌에 적힌 글씨를 읽을 시간이 있었어. 이름도 알 수 있었지. 제네비브 아야르. 그럼 나도 가볼까. 물론 뉴펀들랜드 개에게 줄 보상을 받으러 가는 건 아니야. 그냥 호기심일 뿐이지. 좀 어리석은 호기심이지만. 난 물에 빠진 열두 명쯤을 구했어. 매번 같은 이유였지. 연애

실패 때문이었고, 그 사랑은 항상 평범하기 그지없었어. 곧 직접 보게 될 거야, 친애하는 친구여."

그들이 틸시트 거리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의사는 제네비브 아야르와 함께 사는 아버지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하인이 그들에게 말했다. "소녀는 가능한 한 건강했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레닌은 제네비브 아야르의 구원자라고 소개하며 명함을 아버지에게 건넸다. 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며 달려나왔다.

그는 노인이었고, 외관상 매우 약해 보였다. 그는 질문도 기다리지 않고 곧장 비참한 어조로 말을 시작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지난주에도 그 불쌍한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제가 그 아이를 위해 피도 마다하지 않을 텐데 말이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그게 그녀가 하는 말의 전부예요… 아, 그녀가 또다시 같은 짓을 저지를까 봐 무서워 죽겠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내 불쌍한 자네비엣이 스스로 목숨을 끊다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주님!"

"그래, 왜 그랬을까?" 레닌이 물었다. "약혼이 깨졌나 보군요."

"맞아요, 약혼이 깨졌어요…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너무도 감수성이 풍부하니까요…"

레닌이 그를 끊었다. 그 노인이 자백의 길로 들어섰으니,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호하게, 그리고 모든 권위를 동원해 이렇게 요구했다.

"신사, 방법을 지켜 주시겠습니까? 자네, 자네네 집안 딸이 약혼한 사이였습니까?"

아이마르 씨는 피하지 않고 대답했다.

"네."

"언제부터였지?"

"올봄부터야. 장루이 다르미발 씨를 니스에서 만났지. 우리 가족이 부활절 휴가를 보내던 곳이었어. 파리로 돌아온 직후, 평소엔 어머니와 이모와 함께 시골에 사는 그 젊은이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고, 두 약혼자는 매일 만났지. 솔직히 말해, 장루이 보부아 씨가 내겐 별로 친근감이 들지 않았어."

"잠깐만요." 레닌이 말했다. "방금 오르미발 장군을 장루이 드 오르미발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것도 그의 이름입니다."

"그럼 이름이 두 개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거기엔 수수께끼가 하나 숨어 있어요."

"그가 당신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는 어떤 이름을 썼나요?"

"장루이 드 오르미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루이 보부아는요?"

"그가 제 딸에게 소개될 때는 그렇게 불렸죠. 그분을 아시는 분이 소개해 주셨으니까요. 보부아든 오르미발이든, 사실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그 남자를 미치도록 사랑했고, 그 남자 또한 제 딸을 열렬히 사랑했습니다. 올여름, 해변에서 그는 제 딸을 떠나지 않았죠. 그런데 지난달, 장루이가 어머니와 이모와 상의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자마자, 제 딸은 이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제니비에브,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아."

"저는 절망에 빠진 채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저는 당신을 그 어느 때보다 사랑합니다. 안녕! 저를 용서해 주세요."

며칠 후, 딸이 처음으로 자살을 시도했다.

"그런 파탄이 어떻게 났소? 다른 연애가 있었나? 과거의 연이 있었나?"

"아니요, 신부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루이의 삶에는 제니비에브가 깊이 확신하듯, 그녀를 막고 괴롭히는 신비, 혹은 일련의 신비들이 존재합니다. 그녀의 얼굴은 제가 본 적이 있는 어떤 얼굴보다도 더 격동되어 보였고, 처음부터 저는 그에게 슬픔과 비애

가 자리 잡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그가 가장 신뢰하며 사랑에 몸을 맡기는 순간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단서들, 특히 비정상적으로 느껴졌던 일들이 당신의 추측을 확신으로 바꿔놓았군요. 그 두 개의 성호 같은 것도요. 그 일에 대해 그를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습니까?"

"네, 두 번이나 물었습니다. 첫 번째로 물었을 때 그는, 자기 이모의 성이 보아와이고 어머니의 성이 오르미발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보아와이고 이모가 오르미발이라고 했죠. 제가 그 모순을 지적하자, 그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더 이상 파고들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파리를 멀리 떠나 살고 있습니까?"

"브르타뉴 깊은 곳입니다. 카레에서 여덟 킬로미터 떨어진 곳, 엘스벤 성이 그의 집입니다."

레닌은 몇 분 동안 묵묵히 생각에 잠겨 있다가, 마침내 결심을 내린 듯 노인을 향해 입을 열었다.

"제네비브 양을 방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녀에게 정확히 이 말을 전해 주시오. '당신을 구해 준 그분이, 3일 이내에 당신의 약혼자를 돌

려주겠다고 명예를 걸고 약속합니다. 이 분께 건네줄 편지를 장루이에게 한 줄 적어 두시오.'"

노인은 깜짝 놀란 듯했다. 그는 말더듬듯 물었다.

"당신께서? … 내 불쌍한 딸이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씀이오? …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말씀이오?"

그리고 그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수치심이라도 있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덧붙였다.

"오, 각하, 서둘러 주십시오. 제 딸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모든 의무를 잊은 듯합니다. 그리고 곧 공개될 수치스러운 일을 견디며 살아남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잠하십시오, 각하." 레닌이 명령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저녁, 레닌은 오르타ンス와 함께 브르타뉴행 기차를 탔다.

다음 날 아침 열 시, 그들은 카르네에서 내렸다. 정오 반, 점심을 마친 그들은 지역 유력자로부터 빌린 자동차에 올랐다.

정원에 도착해 내리자, 레닌이 웃으며 말했다.

"친애하는 친구, 얼굴이 좀 창백한데요."

"사실이에요," 그녀가 고백했다. "이 일이 저를 너무 흔들어요. 두 번이나 죽음을 마주친 소녀라니… 그녀가 얼마나 큰 용기를 가져야 했을까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엇이 무서우세요?"

"당신이 실패하지 않을까 봐요. 당신도 걱정되지 않나요?"

"친애하는 친구여," 그가 답했다. "제가 오히려 묘한 희열을 느낀다고 말하면, 당신은 아마 놀라실 겁니다."

"왜요?"

"모르겠네요. 당신을 충분히 감동시키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저는 어딘지 희극적인 요소가 들어 있다고 봅니다. 오르미발 부인, 보아부아 부인…… 이름만 들어도 구식이고 좀 썩은 냄새가 나지 않나요? 제발 믿고冷靜함을 되찾으세요. 갈까요?"

그는 중앙의 철문을 지나갔다. 문 양쪽에는 작은 출입문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르미발 부인 이름이, 다른 하나는 보아부아 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각 출입문은 주요 대로 양쪽으로 퍼져 나가는 길이 열렸다. 길은 아우카바 나무와 황양나무 덤불 사이를 지나갔다.

그 길은 길고 낮은 낡은 저택으로 이어졌다. 경치도 좋았지만, 양쪽에 우스꽝스럽고 무거운 날개 건물이 붙어 있어 전체적인 균형이 깨져 있었다.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는 서로 달랐고, 각기 다른 옆길은 그 건물 끝부분에서 끝이 났다.

왼쪽에는 오르미발 부인이, 오른쪽에는 보아부아 부인이 살고 있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리자 오르방스와 레닌이 발걸음을 멈췄다. 그들은 귀를 기울였다. 날카롭고 급한 목소리들이 서로 다투는 소리였다. 그 소리는 1층 창문으로 새어 나왔다. 1층은 지면과 높이가 같았고, 건물 전체 외벽은 붉은 등나무와 흰 장미로 뒤덮여 있었다.

"더 이상 갈 수 없어요," 오르방스가 말했다. "간섭하는 건 실례예요."

"더욱 더 중요한 일이지." 레닌이 속삭였다. "이런 경우 누설은 의무야. 우리가 정보를 얻으러 온 게 아니겠어. 저기, 똑바로 걷자. 싸우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일 거야."

사실 그 소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들이 입구 옆에 난 열린 창문 근처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그저 바라보고 듣기만 하면 되었다. 장미와 잎사귀 사이로 두 노부인이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넓직한 식탁 앞에 서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직 식기가 차려져 있었다. 식탁 뒤에는 젊은이가 앉아 있었다. 틀림없이 장루이였다.

그는 파이프를 피우며 신문을 읽고 있었다. 두 노부인의 소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다.

한 명은 마르고 키가 컸다. 자두색 비단 옷을 입었고, 얼굴은 이미 썩어빠졌는데도 곱슬머리는 지나치게 노랗게 물들여져 있었다. 그 머리카락들이 썩어가는 얼굴 주변을 빙빙 돌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더 마르고 더 작았다. 페르칼라 원단의 가운을 입은 채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 붉은머리에 화장을 한 얼굴은 분노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당신은 이가 있군요! 정말 나쁜 여자예요. 남들보다 더 악랄하고, 도둑질까지 저지르다니."

"나? 도둑?" 다른 여자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십 프랑씩 하는 오리 장사도 도둑질이 아니라고요?"

"입 다물어, 이 간신새야! 내 화장대 위에 있던 오십 프랑 지폐를 누가 훔쳐갔다고? 천만에, 이런 더러운 놈과 함께 살아야 하다니!"

그 모욕에 다른 여자는 벌떡 일어섰다. 그리고 젊은 남자를 향하여 외쳤다.

"그래, 장, 네가 그 미친놈 도르미발을 그냥 내버려두니? 내가 모욕당하는 것도 모른 체하고 있단 말인가?"

그때 큰 소리로 대답하며 여자가 화를 내며 말했다.

"미친놈? 들었지, 루이? 이봐, 이 여자가 또 자기네 '보아부아' 행세를 하네! 구시대 창녀처럼 굴다니! 이 자식, 입 좀 다물게 해!"

장루이가 갑자기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접시들이 튀어 올랐다. 그리고 그는 소리쳤다.

"너희 두 미친년들, 조용히 해라!"

그 순간 두 여자는 그에게로 방향을 돌려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쌍놈아!… 위선자!… 거짓말쟁이!… 효자 따위 아니야!… 창녀의 자식, 너도 쌍놈이고!"

욕설이 빗발치듯 쏟아졌다. 그는 귀를 막고 테이블 앞에서 몸부림쳤다.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남자처럼, 하지만 곧장 상대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참는 모습이었다.

레닌이 속삭였다.

"내가 뭐라고 했지? 파리에선 비극이요, 여기서는 희극이오. 들어가자고."

"저렇게 격분한 사람들 한가운데요?" 젊은 여자가 반문했다.

"바로 그거요."

"하지만…"

"친애하는 친구여, 우리는 여기서 남을 엿보러 온 게 아니오. 행동하러 온 거라고!"

가면을 벗어야 그들의 진면목을 더 잘 볼 수 있소.

그는 결연한 발걸음으로 문 쪽으로 향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호르탕스가 뒤를 따랐다.

그의 등장은 일순간 정적을 몰고 왔다. 두 여성은 말을 멈췄다.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고 분노로 몸이 떨렸다. 장루이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혼란을 틈타 레닌이 재빨리 입을 열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레닌 공자입니다. 댄마드 부인…… 우리는 자네브이브 아마르 양의 친구들입니다. 저희가 온 이유도 바로 그 양의 이름 때문이니깐요."

"여기 편지 한 장 있습니다. 그녀가 직접 쓰신 것으로, 당신께 보내는 글이오."

이 낯선 손님들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이미 당황해 있던 장루이는, '자네브이브'라는 이름을 듣자 순간 정신을 잃고 말았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레닌의 정중한 태도에 보답하려는 듯 그는 저도 모르게 소개를 시도했다. 그러자 놀랄 만한 말이 튀어나왔다.

"오르미발 부인, 제 어머니입니다…… 보부아 부인, 제 어머니라고요……"

잠시 긴 침묵이 흘렀다.

레닌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오르타스는 누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지 몰라 당황했다. 어머니인 도르미발 부인일까, 아니면 바부아 부인일까.

그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두 부인이 동시에 레닌이 쥔 편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동시에 중얼거렸다.

"아이유마르小姐라니! … 당당하구만! … 대담하구만!"

그제야 정신을 차린 장루이는 도르미발 부인의 팔을 잡더니 왼쪽으로 밀어냈다. 이어 바부아 부인의 팔을 잡아서 오른쪽으로 내보냈다.

두 방문객을 향해 돌아선 그는 봉투를 뜯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편지를 읽었다.

"장루이, 이 편지 소지자를 만나주시오. 그를 믿으십시오.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네비브."

그는 외모가 다소 둔중해 보였다. 얼굴은 매우 갈색이었고, 마르고 뼈가 드러난 듯했다. 그 얼굴에는 제네비에브의 아버지가 지적했던, 특유의 비통함과 절박함이 선명하게 배어 있었다.

고통이 그의 얼굴을 이루는 각线条마다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특히 고통스럽고 불안한 눈빛에서 그것은 잘 드러났다.

그는 제네비에브의 이름을 여러 번 반복했다. 동시에 그는 어딘가를 멍하니 둘러보았다. 그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찾고 있는 듯했다. 그는 설명을 시작하려던 찰나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다. 이 갑작스러운 간섭은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그는 마치 예기치 못한 공격을 받아, 어떻게 반격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 사람과 같았다.

레닌은 적에게 최후의 통첩을 내밀자마자 항복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너무도 치열하게 싸웠고, 은둔하며 고집스럽게 침묵 속에 몸을 숨긴 채 너무도 많은 고통을 겪었다. 이제 더 이상 저항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게다가, 자신의 추악한 내밀한 삶이 이미 드러난 마당에, 도대체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는가.

레닌은 그를 갑작스럽게 공격했다.

"선생님, 제가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두 분의 파국 이후, 제네비에브 아마르가 두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선생님의 사랑이 결국 그녀의 필연적이고 임박한 죽음으로 끝장나야 하는지 묻고자 왔습니다."

장루이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었다.

"오, 그녀가 자살을…… 오, 정말 가능한 일인가!"

레닌은 그를 쉬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는 장루이의 어깨를 치고 몸을 구부리며 다가갔다.

“자신하셔도 됩니다, 선생님. 저희에게 믿음을 보내는 것이 당신에게 이롭습니다. 우리는 제네비브 아야르의 친구입니다. 그녀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죠. 망설이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들었다.

“망설일 수 있겠습니까?”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저에게 말해 준 것 이후로요. 방금 여기서 제가 들은 것 이후로요. 제 삶은 짐작 가실 겁니다. 제가 당신에게 더 무엇을 말해야, 제 전모를 아실 수 있고, 제네비브에게 그 비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우스꽝스럽고도 무서운 비밀을요. 그 비밀은 제가 왜 그녀 곁으로 돌아가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다시는 돌아갈 자격이 없는지 그녀에게 알게 해줄 것입니다.”

레닌은HORTENSE를 힐끗 바라보았다. 제네비브의 아버지가 자백한 지 사십 사 시간 후, 그는 같은 수법으로 장루이의 입을 열었다. 두 남자의 고백을 통해 사건 전모가 드러났다.

장루이는HORTENSE를 위해 안락의자를 밀어냈다. 레닌과 그는 앉았다. 그는 더 이상 부탁할 필요도 없이, 오히려 자백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도감이 될 것처럼 말을 시작했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선생님. 제 이야기를 다소 아이러니하게 풀어드리더라도 말입니다. 솔직히 이 이야기는 매우 코믹해서, 당신을

웃게 만들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운명은 종종 이런 멍청한 장난, 광인이나 술취한 자가 생각해낼 법한 거대한 농담을 즐겨 합니다. 직접 들어보십시오."

스물일곱 해 전, 엘스벤 저택은 지금처럼 별채가 늘어선 모습이 아니었다. 당시에는 본채 하나뿐이었다. 그 집에서 한 노령 의사가 살았다. 그는 생계를 위해 가끔 한두 명의 거처를 빌려주곤 했다.

그런 식으로, 한 해 여름은 오르미발 부인이, 이듬해 여름은 보부아 부인이 여기서 보냈다. 이 두 부인은 서로 얼굴도 모르는 사이였다. 한쪽은 브르타뉴 출신의 상선 선장과 결혼했고, 다른 한쪽은 베당 출신의 영업사원과 부부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두 부인은 같은 시기에 남편을 잃었다. 게다가 두 사람 모두 그즈음 임신했던 것이다. 시골 외진 곳에 살다 보니 근처에 산부인과도 없었다. 그래서 두 부인은 의사에게 편지를 써서, 여기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는 승낙했다. 두 부인은 거의 동시에 가을에 도착했다.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 방 뒤쪽에 있는 작은 방 두 개였다. 의사는 여기서 직접 밤을 새울 간호부를 고용해 두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돌아갔다.

두 부인은 기저귀를 완성하느라 바빴고, 서로도 매우 잘 맞았다. 그들은 아들을 낳기로 굳게 결심했고, 아들이 태어나면 '장'과 '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로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의사는 진료 차 부름을 받아 하인과 함께 마차를 타고 나갔다. 내일 아침에나 돌아올 수 있다고 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하녀로 일하던 소녀는 연인을 만나러 집을 나섰다. 운명의 장난이 악의적으로 겹쳤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오르미발 부인이 첫 산통을 느꼈다. 상주하던 보모, 부시뇽 자매는 산파 역할도 했는지 당황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 시간 뒤, 보아부아 부인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다. 비명이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두 환자를 오가며 허둥대는 보모의 발버둥이 극적인 광경을 연출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의사를 부르려 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빌기도 했다.

첫째 아이는 소년이었습니다. 보송뇰小姐가 급히 이 방으로 데려와 돌보고 씻겨 주자, 아이는 이미 마련해 둔 요람 속에 안겼습니다.

하지만 오르미발 부인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간호부도 그녀를 돌봐야 했고, 신생아는 도살장 동물의 비명처럼 피를 토하듯 울부짖었습니다. 놀란 어머니는 방 안의 침대에서 꼼짝도 못 한 채 기절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란과 어둠이 가져온 모든 비참함을 더해 보라. 등유가 떨어져 더 이상 타지 않는 유일한 램프, 꺼져 가는 초, 불어대는 바람 소리, 부엉이의 우는 소리까지. 이런 상황이라면 부시뇰小姐가 공포에 질려 미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누구나 이해할 것이다.

드디어 다섯 시가 되었다. 비극적인 사건들이 이어진 끝에, 그녀는 오르미발의 작은 아기를 데려왔다. 남자아이였다.

그녀는 아이를 돌보고 씻겨 입혔다. 그리고 요람에 눕혔다. 그러고는 다시 바우부아 부인을 구하러 달려갔다. 바우부아 부인은 의식을 되찾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이어 오르미발 부인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부슈니올 자매는 두 명의 어머니를 물리치고는 지친 몸으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뇌속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두 아기를 똑같은 기저귀로 싸고, 같은 양털 미트를 신겨서 같은 요람에 나란히 눕혀 놓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누가 루이 도르미발이고, 누가 장 보부아인지 구분할 길이 없었다.

그녀가 아이들 중 한 명을 들어 올리려 했을 때, 손이 얼음장처럼 차갑다는 것을 깨달았다. 숨도 쉬지 않았다. 그 아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무엇이었을까? 살아남은 아이의 이름은 또 무엇이었을까?

삼 시간 후, 의사는 두 여자가 절망에 빠지고 헛소리를 하며, 그들 침대 앞에서 용서를 빌며 기어 다니는 하녀를 발견했다.

하녀는 번갈아 가며 살아남은 나, 즉 그들을 안아주었다. 두 여자는 번갈아 나를 껴안았다가 밀어냈다.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르미발 과부와 고(故) 항해 선장의 아들인가, 아니면 보아부아 부인과 고 상인의 아들인가? 어떤 단서도 결론을 내게 해주지 않았다.

의사는 두 '어머니'에게 적어도 법적 관점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간청했다. 그래야 내가 오르미발의 루이, 혹은 보아부아의 장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호히 거절했다.

"만약 그가 오르미발 가의 사람이라면, 어째서 보아부아의 장이 되겠소?" 한 명이 항의했다.

"루이 드 오르미발이, 만약 장 보아보가 맞다면, 왜 그런 이름을 쓴 겁니까?" 다른 한 사람이 반문했다.

"저는 장-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됐습니다. 부모는 알 수 없는 신분이었죠."

레닌 공작은 묵묵히 듣고 있었다. 하지만 오르탕스는 해법이 가까워질수록 참기 힘든 웃음이 밀려와, 애써 참느라 몸이 떨리고 있었다. 젊은이가 이를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미안해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요, 신경이 예민해서요."

그는 쓴소리 없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마담. 제 이야기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그 허무맹랑함이 얼마나 큰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코믹하죠. 하지만 제 말 믿으세요. 현실에서는 전혀 재미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겉보기엔 희극이었지만,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 코믹함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그건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바로 상상해 보세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둘 다 자신이 진짜 어머니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그렇다고 자신이 어머니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장루이에게 매달렸습니다. 그 아이가 타인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피와 살로 태어난 아이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했고, 격렬하게 그 아이를 차지하려고 다퉜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은 서로 치명적인憎惡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성격과 교육 배경이 달랐지만, 어느 쪽도 가능한 모성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서로 가까이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무장 해제할 수 없는 적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이 증오 속에서 자랐습니다. 두 여자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것도 바로 이 증오였죠. 자애를 갈구하던 어린 제 마음은 한쪽을 향하게 했지만, 다른 한쪽은 경멸과 증오를 심어주었습니다.

두 여자가 노의사의 죽음 이후 저택을 사들여 양쪽에 별채를 덧붙일 때, 저는 그곳에서 무의식적인 형사이자 매일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학대받는 유년기, 끔찍한 사춘기. 저보다 더 고통받았던 존재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럼 두 여자를 떠나야 했잖아요!" 호르탕스가 비명을 지르며 외쳤다.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아들을 낳은 어머니를 버릴 수 없습니다. 그중 한 분은 제 어머니죠. 아들을 버릴 수도 없고, 두 분 모두 제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믿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처럼 서로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고통과 동정심, 그리고 의구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언젠가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에 더욱 단단히 묶여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세 사람 그대로입니다. 서로를 욕하고, 허송세월한 삶을 탓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말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몇 번이나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끊어진 줄은 다시 이어졌죠.

올여름에도 저는 조제비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유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라 부르는 두 분을 설득하려 했죠. 그런데… 그런데 그들의 불만과, 제게 강요한 '외지인'인 아내에 대한 즉각적인 증오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양보했습니다. 조제비가 오르미발 부인과 오부아 부사 사이에서 무슨 일을 당하겠습니까? 그녀를 희생시킬 권리가 저에게 있었을까요?"

장루이는 점점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이 마지막 말들을 단호하게 내뱉었다. 마치 자신의 행동을 양심의 가책과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이해받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레닌과 오르탕스도 이를 간파했다. 그는 약한 사람이었다. 터무니없는 상황에 저항할 힘이 없었고, 어릴 적부터 고통받아 온 그 상황이 이미 불가항력적이고 확정적인 것으로 자신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마치 버릴 수 없는 무거운 십자가처럼 그 상황을 견뎠다. 동시에 그는 그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제네비브 앞에서는 우스꽝스럽게 보일까 봐 침묵했고, 이후 감옥으로 돌아와서는 습관과 나약함 때문에 그곳에 머물렀다.

그는 서랍장이 있는 책상 앞에 앉더니, 재빨리 편지 한 장을 썼다. 그리고는 그 편지를 레닌에게 건넸다.

"이 편지 몇 통 아야르 양에게 전해 주시오. 그리고 그녀가 저를 용서해 주길 간곡히 빌어 주게."

레닌은 움직이지 않았다. 상대가 고집을 부리자, 그는 편지를 받아 쭈그러뜨려 찢어 버렸다.

"무슨 뜻이오?"

젊은 남자가 물었다.

"내 편지는 절대 전달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왜요?"

"왜냐하면, 너는 우리와 함께 올 테니까."

"나요?"

"내일 아야르 양 곁에 서서, 청혼을 하게 될 테니까."

장루이는 경멸 섞인 눈빛으로 레닌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마치 이런 말을 전하는 듯했다. '이 남자는 내가 말한 상황의 핵심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군.'

오르탕스가 레닌에게 다가갔다.

"제니브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과, 그녀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에게 일러 주시오."

"필요 없습니다. 상황은 제가 말한 대로 진행될 겁니다. 이틀 안에 우리 셋은 떠납니다. 청혼은 내일 있을 테고요."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듯 웃었다.

"당신은 참 자신만만하게 말하시네요!"

"그렇게 말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명분도 필요하죠."

"어떤 명분요?"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나지만, 제 조사에 도움을 주신다면 충분할 겁니다."

"조사라니요? 무슨 목적에서요?" 장루이가 물었다.

"당신의 이야기가 완전히 진실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장루이는 곧장 반박했다.

"말씀드리건대, 저는 진실과 조금도 어긋난 말을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는 제가 잘못인 것 같습니다." 레닌이 부드럽게 다시 말했다. "당신이 한 말은 당신이 믿는 그 정확한 진실과 전혀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아니, 당신이 생각하는 그 진실일 수가 없습니다."

젊은이는 팔짱을 꼈다.

"어쨌든 저는 그 진실을 당신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더 잘 압니까? 그 비극적인 밤에 벌어진 일은 당신에게 필연적으로 간접적인 정보로만 알려져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오르미발 부인이나 보아부아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증거요?" 장이 성급하게 외쳤다.

"일어난 혼동을 증명할 증거 말입니다."

"뭐라고요? 이건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두 아이는 서로 구별할 수 있는 표시 하나 없이 같은 요람에 눕혀졌어요. 그 보모는 알 수가 없었죠…"

"그건 적어도 그녀가 내세우는 설명입니다." 레닌이 끼어들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가 내세우는 설명이라고요? 그건 그 여자를 비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는 그녀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하는 거죠. 거짓말이라니요? 그리고 그 이유는요? 그녀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었을 텐데다, 그녀의 눈물과 절망은 모두 그녀의 정직함을 증명하는 증언이 아니었나요? 결국 두 어머니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그들은 그 여자가 울리는 모습을 직접 보았고,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녀에게 무슨 이득이 있었단 말입니까?"

장루이는 흥분으로 몸이 떨리고 있었다.

곁에 있던 오르미발 부인과 보부아 부인도 확실히 문틈으로 엿듣고 있다가, 슬그머니 들어온 듯했다. 그들은 어리둥절해하며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아니… 아니… 말이 안 돼… 우리가 이미 백 번은 물어봤잖아. 왜 거짓말을 하겠어?"

"말하세요, 말씀하시오." 장루이가 명령했다. "명확히 설명해 주시오. 정말로 확실한 진실을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이오?"

"그런 진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레닌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그는 다시금 열정을 띠며, 문장마다 탁자 두드리는 소리로 박자를 맞췄다.

"아니, 일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운명도 그런 잔인한 정교함은 부리지 않습니다. 우연이 그렇게 기이하게 겹치지도 않습니다!"

이미 놀라운 우연이 있었습니다. 의사와 하인, 여종이 집을 떠난 바로 그 밤, 두 부인이 같은 시간에 출산 통증을 겪고 동시에 아들을 낳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기에 더 exceptional한 사건을 덧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녀의 저주라도 된 듯, 등불은 꺼지고 촛불은 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산파가 자신의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혼동했다는 건, 천번이라도 부정합니다."

그녀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예기치 못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본능의 일부는 항상 그녀를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 각각이 정해진 자리를 차지했고, 서로 구별되었습니다.

비록 옆에 누워 있다 해도,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비록 비슷한 기저귀로 싸여 있다 해도, 작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 그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필연적으로 찾아왔습니다.

혼동? 저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알 수 없음? 거짓말입니다.

소설 속에서는 모든 상상을 동원하고 모든 모순을 쌓아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중심, 그 핵심에는 항상 고정된 점이 있습니다. 사실들이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단단한 핵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가장 단호하게 주장합니다. 부시뇰 산파는 두 아이를 혼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마치 그 밤의 사건들을 직접 목격이라도 한 듯, 또렷하게 말했다. 그의 설득력은 막강해서, 사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이들의 확신도 단번에 흔들릴 정도였다.

두 여성과 그들의 아들은 그 주위를 빙 둘러쌌다. 숨이 턱 막힐 듯한 불안으로 그를 좇아 물었다.

"그렇다면, 당신 말씀대로라면, 그녀가 알고 있는 걸까요?…… 폭로할 수도 있고요?"

그가 바로잡았다.

"저는 단정 짓지 않습니다. 다만 그 시간 동안 그의 행동에는 말과 현실 어느 쪽에도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당신 세 사람을 짓누른 거대하고 견딜 수 없는 신비의 근원은, 순간의 부주의가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녀만 아는 그 무언가에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장루이는 반발하듯 몸을 떨었다. 그는 이 남자의 포위망에서 벗어나려 했다.

"네, 당신이 주장하는 그 말입니다."

"과거의 일은 이미 끝났소!" 레닌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 광경을 직접 보거나, 그 말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세. 이성과 직관은 사실 그 자체만큼이나 확실한 증명을 우리에게 주거든. 부시뇰 경호대는 우리도 알지 못하는 진리의 단서를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을 테니까."

장루이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살아 있어! 카르렉스에 살고 있단 말이지! 그녀를 불러올 수도 있어!"

그 말을 듣자마자 두 어미 중 하나가 소리쳤다.

"내가 가겠소. 데려다 주마오."

"안 되지." 레닌이 말했다. "너희 세 사람 중 누구도 갈 수 없어."

오르탕스가 제안했다.

"제가 가볼까요? 자동차를 몰고 가서 그 여자를 설득해 데려오겠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 카르렉스 중심에 작은 재봉가게가 하나 있어. 장루이가 말했다. – 운전기사가 그 곳으로 데려다줄 거야. 부시뇰 양이지. 다들 그녀를 알아.

– 그리고 무엇보다도, 친애하는 친구여. 레닌이 덧붙였다. – 그녀에게 아무것도 미리 알리지 마. 그녀가 걱정하는 게 오히려 좋지. 하지만 그녀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알면 안 돼. 성공하려면 이만큼의 주의는 필수야.

삼십 분 동안 깊은 침묵이 흘렀다.

레닌은 방 안을 거닐었다. 아름다운 고가구, 정교한 벽지, 수제 장정본, 그리고 예쁜 소품들이 놓여 있었다. 이는 장루이가 예술과 스타일을 얼마나 중시하는지를 보여 주었다. 이 방은 정말로 그의 것이었다.

옆방에는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인접한 주거 공간들이 보였다. 그곳에서는 두 어머니의 나쁜 취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레닌은 젊은이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그분들 부유하신가?"

"네."

"그리고 당신은?"

"그분들이 이 성채와 주변의 모든 땅을 내게 물려주셨다. 덕분에 나는 충분히 독립적이다."

"그분들 가족이 있는가?"

"누나들이 계신다. 각각 한 명씩."

"그분들이 은퇴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네, 그들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선생님, 그런 일은 절대 논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보기엔, 당신의 개입은 실패로 끝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때 자동차가 도착했다. 두 여자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나, 이미 입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저에게 맡기세요. 레닌이 말했다. 제 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질문을 던지는 게 아닙니다. 그자를 놀라게 하고,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당황한 사이 그자는 말을 하게 될 테니까."

자동차는 잔디밭을 돌아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오르탕스가 뛰어내려, 튜브형 린넨 모자를 쓰고 검은 벨벳 조끼에 주름진 무거운 치마를 입은 노부인의 손을 내밀었다.

그녀는 놀란 얼굴로 들어섰다. 족제비 같은 얼굴이었다. 뾰족뾰족하게 끝이 날카로웠고, 그 끝에는 작은 이가 드러난 주둥이가 달려 있었다.

"오르미발 부인, 무슨 일입니까?"

그녀는 두려운 듯이 그 방 안으로 들어섰다. 예전에 의사가 쫓아낸 곳이었다.

"안녕하세요, 보부아 부인."

두 부인은 대답하지 않았다. 레닌이 앞으로 나서서 엄숙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일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시뇽 자매님.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제 말을 하나하나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강력히 권합니다."

그는 이미 죄가 확실시되는 피의자를 심문하는 조사판사의 표정이었다.

그가 입을 열었다.

"부시뇰 양, 저는 파리 경찰의 지시를 받아 이곳에서 일어난 스물일곱 해 전의 비극을 규명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에서 당신이 중

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당신이 진실을 왜곡했으며, 그 거짓 증언 때문에 그날 밤 태어난 아이 중 한 명의 신분 기록이 정확하지 않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신분 기록을 위조하는 것은 법으로 처벌받는 중범죄입니다. 따라서 저는 당신을 파리 데려가야 합니다. 변호인 입회 하에 엄중한 심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파리요? … 변호인이요?" 부시뇰 양이 비명처럼 신음을 터뜨렸다.

"당신은 체포 영장을 받고 있는 처지 아닙니까. 어쩔 수 없죠, 미스."

레닌이 비수처럼 말을 건넸다.

"아니면… 당신 스스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 저지른 실수의 결과를 바로잡을 의사가 있다면요?"

늙은 독신녀는 온몸이 떨렸다. 이빨이 서로 부딪혀 소리가 났다. 그녀에게 레닌에게 맞설 기력은 전혀 없었다.

"모든 것을 고백할 결심이 서셨나요?"

그가 물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고백할 게 없습니다. 제가 한 일이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떠납니다."

"아니요, 아니에요!"

그녀가 애원했다.

"오, 좋은 분이시여, 제발요…"

"결심이 서셨나요?"

"네."

그녀가 숨이 턱 막힐 듯 작은 소리로 대답했다.

"당장입니다. 기차 시간이 촉박하죠. 이 일은 지금 당장 결론지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주저하시면, 제가 직접 데려가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럼 솔직하게 갑시다. 숨기지도 않고, 빙빙 돌지도 마세요."

그가 장루이를 가리켰다.

"당신은 누구의 아들이오? 오르미발 부인의 아들이오?"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아부아 부인의 아들이오?"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답변에 놀람이 섞인 침묵이 흘렀다.

"설명하시오."

레닌이 시계를 보며 명령했다.

그때 부시뇰 여사가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 낮고 떨려서, 모두 그녀에게 몸을 기울여야 겨우 그 말뜻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누군가 밤에 찾아왔어요. 새아기를 이불에 싸서 의사에게 맡기려는 신사였죠. 그런데 의사가 없자, 그분은 밤새도록 기다리셨고, 결국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하셨답니다."

"뭐라고? 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레닌이 재촉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노파의 양손을 꽉 잡았다. 그리고 위압적인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장루이와 두 어머니는 노파에게 몸을 기댄 채, 숨을 헐떡이며 불안한 눈으로 지켜보았다. 그들의 목숨은 이제 곧 나올 몇 마디 말에 달려 있었다.

노파는 손을 모았다. 마치 범죄의 고백을 하듯, 그 단어들을 하나씩 뱉어냈다.

"그래, 알고 보니 죽은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어. 오르미발 부인의 아이와 보아부아 부인의 아이, 둘 다 경련으로 숨졌지. 그러자 그 남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어. 그의 말 한마디하나, 목소리 톤까지 모두 기억나. 그가 한 말이야."

"'사정이 나를 이끌어 나의 의무를 찾게 했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내 아들을 행복하게 잘 돌봐야 하오. 죽은 아이 중 하나와 자리를 바꿔주시오.'"

"그는 매달 아이 양육비로 들어가는 지출을 한 번에 털어버릴 수 있다며 거금을 건넸고, 나는 수락했지. 하지만 문제는 하나. 어느 아이와 자리를 바꿔야 할까? 내 아들을 오르미발 가문의 루이로 만들어야 할지, 보아부아 가문의 장으로 만들어야 할지.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지."

"둘 다 아니다."

그가 떠난 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자세히 일러주었다. 나는 그의 하인을 기저귀와 뜨개질 옷으로 입혔다. 그 옷은 죽은 아이들 중 한 명에게 입힌 것과 똑같은 것이었다.

그는 다른 아이를 자신이 가져온 담요로 감쌌다. 그리고 그는 밤속으로 사라졌다.

부시뇔 여사는 고개를 숙인 채 울었다. 잠시 후, 레닌이 더 자비로운 어조로 말했다.

"여러분의 진술이 제가 따로 진행한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그 점은 고려될 것입니다."

"파리로 가지 않아도 됩니까?"

"아니요."

"데려다주지도 않습니까? 저는 물러나도 됩니까?"

"물러가셔도 됩니다. 당장은 끝났습니다."

"이 일에 대해 지방에서 소문이 나지 않겠죠?"

"아니요! 아, 말 한 마디만 더 하죠. 그 남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그는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나셨나요?"

"절대 아닙니다."

"그 외 다른 진술은 없나요?"

"없습니다."

"자백서를 작성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일주일이나 이주일 안에 소환장을 받으실 겁니다. 그 때까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일어나 십자 성호를 그렸다. 하지만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어찌 할 수 없어, 레닌의 팔에 기대야 했다. 레닌은 그녀를 밖으로 안내한 뒤, 문 뒤에서 조용히 문을 닫았다.

다시 돌아왔을 때, 장루이는 두 노부인 사이에 서 있었다.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을 묶고 있던 증오와 비참의 끈이 갑자기 끊어졌다. 그 결과, 그들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서로에게 부드럽고 평온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그 감정은 의식하지 못한 채였지만, 세 사람을 진지하고 차분한 상태로 만들었다.

"서둘러야 합니다." 레닌이 오르탕스에게 말했다. "이제 승부를 결정할 때입니다. 장루이를 데려가야 해요."

오르탕스는 딴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나직이 물었다.

"왜 그 여자를 보내준 거예요? 진술에 만족하셨나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일어난 일을 그대로 말했을 뿐입니다. 더 무엇을 원하신다는 건가요?"

"아무것도요… 잘 모르겠어요."

"다시 이야기합시다, 친애하는 친구여. 당장은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장루이를 태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젊은이를 향해 말을 돌렸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건은 당신과 보아와 부인, 오르미발 부인에게 분리를 강요합니다. 그래야 세 분 모두 선명하게 상황을 파악하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채 자유롭게 결단을 내릴 수 있을 테니까요. 함께 가시죠, 선생님.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당신의 약혼자, 제네비브 아마르를 구하는 것입니다."

장루이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이었다.

레닌이 두 여성 쪽으로 돌아섰다.

"이분들도 동의하시겠죠? 의심할 여지 없습니다, 부인들."

두 여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보십시오, 선생님." 그가 장루이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동의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음, 너무 오래는 아닙니다. 며칠만 쉬었다가, 그 후면 귀하는 제네비브 아마르를 떠나고 평소의 삶을 되찾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며칠은 꼭 필요합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선생님."

그는 장루이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았다. 말로 그를 압도하고, 설득하며, 고집스럽게 밀어붙여 그의 아파트 쪽으로 향하게 했다.

한 시간 반 후, 장루이는 저택을 나섰다.

"그는 결혼한 다음에야 다시 돌아올 겁니다." 레닌이 오르탕스에게 말했다. 그들은 자동차가 데려다준 기앙감 역을 지나고 있었고, 장루이는 짐을 챙기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불쌍한 제네비에브가 행복해지길 바라요." 그녀가 딴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기차에 오른 두 사람은 식당차로 향했다.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 르닌은 호르타스에게 여러 차례 질문을 던졌지만, 그녀는 짧은 한 마디로만 답했다. 르닌이 불평했다.

"이봐요, 친구. 무슨 일이 있어요? 얼굴이 그토록 어둡습니다."

"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신을 잘 압니다. 자, 숨기지 마세요."

그녀가 미소 지었다.

"좋아요. 당신이 저의 만족 여부를 꼭 알고 싶어 하니까요. 제네비에브 아마르를 위해서는…… 물론 만족합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이 사건 자체의 관점에서 보면, 여전히 왠지 모를 불편함이 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번엔 제가 당신을 '감탄'시키지 못한 건가요?"

"그다지 깊지는 않군요."

"제 역할이 부차적으로 보이십니까? 하지만 말입니다, 제 임무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왔고, 장루이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 산파 한 명을 소환해 증언하게 했죠. 그리고 끝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끝났는지 의문이 듭니다. 확신은 서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겪었던 다른 사건들은 저에게 더……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더 솔직하고, 더 명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번 사건은 모호하게 느껴지십니까?"

모호했다. 그리고 미완성이었다.

"어째서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 여자의 자백 때문일 겁니다. 네, 확실히 그렇습니다. 너무 예상치 못했고, 너무 짧았으니까요."

"하하!" 레닌이 웃으며 말했다. "물론 저는 거기서 바로 끊었습니다. 설명은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어떻게요?"

"만약 그녀가 지나치게 상세한 설명을 늘어놓았더라면, 우리는 결국 그녀의 말에 의심을 품게 되었을 거야."

"의심을?"

"글쎄, 그 이야기에는 좀 억지스러운 구석이 있지. 밤중에 아이를 주머니에 넣고 나타나서, 시체를 안고 사라지는 남자라니. 설득력이 좀 부족해. 미안해, 친애하는 친구. 그 불쌍한 여자에게 대본을 가르쳐 줄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

호르탕스는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뜻이죠?"

"시골 여자들은 머리가 좀固固하거든. 우리 둘 다 시간이 촉박했고, 그래서 급조한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지. 하지만 그녀는 그럭저럭 잘 연기했어. 표정만 잘 맞췄을 뿐이야. 놀람, 떨림, 눈물……."

"말도 안 돼! 정말로?" 오르랑스가 중얼거렸다. "당신은 그 전에 이미 그 여자를 본 적이 있군요?"

"볼 수밖에 없었지."

"언제?"

"아침에, 도착하자마자. 당신이 카르헤 호텔에 돌아와 가다듬는 동안, 나는 정보를 수집하러 뛰어다녔어. 오르미발-보아와 사건이 이 지역에서 얼마나 잘 알려져 있는지 알겠지? 나는 곧바로 전직 조산사, 부시뇽小姐를 찾았다. 부시뇽小姐는 단호했다. 세 분이면 그 사건에 대한 새로운 설명을 만들어냈고, 1만 프랑을 주면 저택 사람들에게 그 다소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반복해 달라고 설득했다."

"정말 믿기 어렵잖아!"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소,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이 믿었고, 다른 이들도 믿었으니까요. 그게 중요했으니까요."

"스물일곱 해나 이어져 온 진실을, 단번에 무너뜨려야 했으니까요. 그 진실은 사실 자체를 바탕으로 쌓아 올린 것이어서 더욱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 힘을 다해 그 진실을 공격했고, 설득의 힘으로 내리쳤습니다."

"두 아이의 신원 불일치? 거짓입니다. 혼동? 사기입니다. 여러분 세 분은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피해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여러분의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쉬워요.' 장루이가 즉시 반박했다. 그의 태도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부스뇰小姐를 불러오면 되죠.'"

"'불러오시지요.'"

그리고 부스뇰小姐가 나타났다. 내가 미리 가르쳐 둔 말을 낮은 목소리로 늘어놓았다. 극적인 반전이었다. 모두 경악했다. 나는 그 틈을 타 젊은이를 데려나갔다.

호르타스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세 사람 모두 다시 일어설 거예요. 생각을 바꾸겠죠."

"절대 그렇지 않아! 그들은 의심할지 모르지. 하지만 확신을 얻으려 하진 않을 거야. 생각해보려 하지도 않을 테고."

"내가 사십 년 동안이나 씨름하며 빠져나오려 애썼던 지옥에서 건져낸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들이 다시 그 지옥으로 돌아가려 할까? 그들은 나약함과, 왜곡된 의무감 때문에 탈출할 용기가 없었던 사람들이야. 내가 준 자유를 붙들지 않을 리가 없어."

"바보 같은 소리야. 그들은 보스니올小姐가 내민 것보다 훨씬 소화하기 어려운 거짓말을 이미 삼켰잖아. 어쨌든 내 버전이 진실보다 더 바보 같지는 않아. 오히려 그렇지. 그들은 그 거짓말을 그대로 삼켰어."

"자, 떠나기 전, 오르미발 부인과 보아부아 부인이 당장 이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네. 서로 다시는 보지 못할 생각에 벌써부터 정을 나누고 있었더라."

"하지만, 장루이?"

"장루이! 그는 두 명의 어머니 때문에 이미 지쳐 있었지."

"세상에, 인생에 어머니는 한 분뿐이지!"

이런 상황이 또 어디 있겠는가. 두 명의 어머니가 있거나, 아예 어머니가 하나도 없거나, 그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다.

게다가 장루이는 제네비브를 사랑한다. 내가 믿고 싶을 만큼 충분히 사랑해서, 그녀에게 두 명의 계모를 안겨주지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안심해도 된다. 이 젊은이의 행복은 이미 보장되었다. 그것이 네가 원하던 바가 아니었느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도달하는 목적지이지,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 얼마나 기이한가가 아니다.

흡연자 담배꽁초나, 불을 지르는 주전자, 불타오르는 모자 상자들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다른 사건들은 심리학을 필요로 하며, 그 해결책도 오직 심리적인 것뿐이다.

호르방스가 잠잠해졌다가 잠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정말, 장루이는……"

레닌은 매우 놀란 표정이었다.

"뭐, 그 옛날 이야기를 아직도 생각나? 다 끝난 일이야! 아, 정말. 그 '두 명의 어머니'를 가진 남자는 이제 내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그 말투가 너무 유쾌했고, 그 진심이 너무 재미있어서 호르방스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좋아, 웃어라, 친애하는 친구. 눈물보다 웃음이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리고 너는 웃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어."

“무슨 이유죠?”

“네가 아주 예쁜 이를 가졌거든.”

제6장 - 도끼를 든 여인

제6화 도끼를 든 귀부인

전쟁 직전의 시점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사건 중 하나는, 바로 '도끼를 든 여인 사건'으로 불린 일화였다. 이 사건의 해답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상황들이 prince Rénine, 아니 아르센 뤼팽에게 그 사건을 다루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영원히 미궁에 빠졌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고백을 바탕으로 오늘날 이 사건의 진실을 전할 수 없었더라면 말이다.

사건을 되짚어 보자. 18개월 동안 다섯 명의 여성이 실종되었다. 이들은 서로 다른 배경을 지닌 20대부터 30대 초반의 여성들이었고, 모두 파리를 비롯해 파리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의사의 아내인 라두 부인, 은행가의 딸인 아르당 양, 쿠르브브와에서 빨래일을 하는 코브로 양, 재봉사 호노린 베르니세 양, 화가 그롤링거 양. 이 다섯 여성은 집밖으로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왜 집을 나섰는지, 왜 돌아오

지 않았는지, 누구의 유혹을 받아 나섰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붙잡혔는지에 대한 단서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이 떠난 지 나흘 뒤, 서부 교외의 어딘가에서 각자의 흔적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피흘린 채 죽어 있는 여인의 시체였다.

머리를 도끼로 한 방에 얻어맞아 죽은 여자였다. 단단히 묶여 있고, 얼굴은 피로 범벅이었으며, 굶주림으로 몸이 야위어 있었다. 그 옆에는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차가 시체를 이곳까지 실어 왔다는 증거였다.

이 다섯 건의 범죄는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래서 수사도 하나로 통합되었다. 다섯 건의 사건이 한꺼번에 묶여 조사되었지만, 결과는 없었다.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가 사라졌다. 그리고 정확히 나흘 뒤, 그녀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그뿐이었다.

연결 고리는 모두 똑같았다. 자동차 바퀴 자국도 동일했다. 도끼 자국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이마 윗부분, 정확히 머리 한가운데를 수직으로 내리친 자국이었다.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다섯 여성은 보석, 지갑, 귀중품을 모두 털린 상태였다. 하지만 시체가 외딴곳에 버려져 있었으니, 그냥 노상 강도나 지나가는 행인의 소행일 수도 있었다.

복수를 위한 계획이었을까, 아니면 서로 연결된 일련의 인물들을 제거하려는 의도였을까? 예를 들어 미래의 상속권을 노린 계획 같은 것 말이다. 하지만 역시나 답은 없었다. 가설을 세워도 사실 관계가 이를 곧장 뒤집었다. 단서를 쫓아도 금세 길 잃었다.

그때 뜻밖의 반전이 일어난다. 거리 청소부가 인도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주워, 근처 파출소에 건넸다.

수첩의 모든 페이지는 하얗게 비어 있었다. 오직 한 장만 달랐다. 그 페이지에는 살해당한 여성들의 명단이 적혀 있었다. 날짜 순으로 정리된 그 목록에는 각 이름 옆에 세 자리 숫자가 함께 적혀 있었다. 라두, 132; 베르니셋, 118 등등.

누구든 쓸 수 있는 평범한 글이라 생각해 넘겼을 것이다. 그 죽음의 목록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 다섯 개가 아니라 여섯 개였다는 점이었다.

그렇다. '그롤링거, 128'이라는 글 아래로 '윌리엄슨, 114'라는 새로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섯 번째 살인이 발생한 것인가?

이름이 확실히 영국산이라는 점이 수사 범위를 좁혔다. 덕분에 수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보름 전, 오트위일에서 가정교사로 일하던 에르벳 윌리엄슨이라는 소녀가 직장을 그만두고 영국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그 이후 그녀는 편지로 도착 예정임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자매들은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새로운 조사가 시작되었다. 우편국 직원이 메동 숲에서 시체를 발견했다. 미스 윌리엄슨의 두개골은 정중앙에서 쪼개져 있었다.

그때의 군중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또 이 목록을 읽었을 때 어떤 공포의 전율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다. 이 목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살인자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었다.

더없이 끔찍한 장부라 할 수 있다. 착실한 상인이 매일 기록하듯, 꼼꼼하게 정리된 장부였다.

"이 날짜에 이 여자를 죽였다. 저 날짜에 저 여자를 죽였다……"

그리고 계산의 결과는 여섯 구의 시체였다.

예상과 달리, 필적 전문가들과 필적 분석가들은 전혀 논쟁 없이 한 목소리를 냈다. 그들의 결론은 명확했다. 이 글씨는 '교양 있고, 예술적 취향이 있으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극도로 감수성이 예민한' 여성의 손에서 나온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신문들은 그녀를 '도끼를 든 여인'이라 불렀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평범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의 사건은 수천 편의 기사로 분석되었고, 심리가 파헤쳐졌으며, 기이한 추측이 난무했다.

하지만 이 기사의 저자, 즉 그 발견으로 두각을 나타낸 젊은 기자가 유일한 진실의 단서를 가져왔다. 그는 이 어둠을 비추는 유일한 빛을 던져 넣은 사람이었다.

그는 여섯 이름 오른쪽에 적힌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려다 문득 의문을 품었다. 이 숫자들이 각 범죄 사이의 일수, 즉 며칠 차이가 나는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그냥 날짜를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는 곧 자신의 가설이 정확하고 타당함을 확인했다.

버니셋小姐 납치는 라두아 부인 납치 132일 후였고, 에르민 코베로 납치는 버니셋小姐 납치 118일 후였다.

이제 더 이상 주저할 여지는 없었다. 형사들은 숫자가 시간 간격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도끼 여자의 회계 장부에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최후의 희생자 미스 윌리엄슨은 지난 6월 26일에 납치되었고, 그녀의 이름 옆에는 숫자 114가 적혀 있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공격이 114일 후, 즉 10월 18일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살인자의 숨겨진 의도대로 끔찍한 사건이 반복될 것이라고 믿어야 하지 않을까?

숫자들이 날짜를 의미한다는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마지막 숫자든 처음 숫자든, 모든 숫자는 잠재적인 날짜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 논쟁은 계속되었고, 10월 18일 전 며칠 동안 끊임없이 논의되었다. 그날은 논리적으로 보면 끔찍한 비극의 새로운 장이 펼쳐져야 할 날이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레닌 공작과 오르탕스가 저녁 약속을 전화로 잡으면서, 각자가 방금 읽은 신문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조심하세요," 레닌이 웃으며 말했다. "도끼 여인을 만나면 다른 쪽 보도를 걸으세요."

"그 좋은 아가씨가 저를 납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르탕스가 물었다.

"흰 조약돌을 길에 떨어뜨리며 다니세요. 그리고 도끼의 번개가 빛나는 순간까지 이 말을 반복하세요. '나는 두려울 것이 없다. 그가 나를 구해 줄 테니까.' 그,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손에 입을 맞추오. 오늘 저녁에 뵙죠, 친애하는 친구여."

오후, 레닌은 자신의 일을 처리했다. 오후 네 시부터 일곱 시까지 그는 여러 판의 신문을 모두 사 모았다. 하지만 어느 신문도 납치 사건을 다루지 않았다.

아홉 시가 되자 그는 시네마 가이마즈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목욕통을 예약해 둔 상태였다.

아홉 시 삼십 분, 오르탕스가 나타나지 않자 그는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물론 그건 걱정 때문이 아니었다. 하녀가 받아냈고, 마담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렌느는 갑작스러운 공포에 사로잡혀 몽소 공원 근처에서 호르탕스가 임시로 머물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호르탕스 곁에 두고 전적으로 신뢰하던 하녀를 불러내어 물었다.

하녀는 여주인이 오후 두 시에 우체국으로 간다고 말하고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 후로는 아무 소식도 없었다.

"그 편지는 누구에게 보낸 것이었소?"

"선생님께요. 봉투에 '렌느 공작'이라고 적힌 걸 봤습니다."

렌느는 자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호르탕스는 돌아오지 않았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이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어. 여주인이 시골에 다녀온다고 하고, 곧 합류할 거라고 말하라고."

그에게 있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오르탕스의 실종은 10월 18일이라는 날짜 자체로 설명되었다. 오르탕스는 도끼 부인(Homme à la Hache)의 일곱 번째 희생자였다.

'납치가 도끼질보다 여드레 앞서 일어난다면, 나는 지금부터 정확히 일곱 날을 얻은 셈이다.'

르닌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혹시 모를 변수를 대비해 여섯 날로 계산하자. 오늘이 토요일이니, 다음 주 금요일 정오까지 오르탕스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 그러려면 목요일 밤 아홉 시 이전에 그녀의 은신처를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

레닌은 자신의 서재 벽난로 위에다 큰 글씨로 ‘목요일 밤 9시’라고 적힌 팻말을 못으로 박아 고정했다.

그리고 토요일 정오, 사라진 날의 이튿날, 그는 하인에게 식사 시간이나 우편이 올 때만 깨우라고 명한 뒤, 이 방에 혼자 틀어박혔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은 채 사흘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처음부터 그는 여섯 차례의 살인 사건을 상세히 보도했던 주요 신문들을 모두 모아왔다.

그 신문들을 읽고 또 읽은 뒤, 그는 창문 닫개와 커튼을 모두 닫았다. 불도 켜지 않고, 빗장도 채운 채 소파에 드러누워 그는 깊이 생각에 잠겼다.

화요일 밤이 되어도 상황은 처음부터 나아진 것이 없었다. 어둠은 여전히 짙게 깔려 있었다. 그를 이끄실 실마리는커녕, 희망을 품을 만한 이유조차 찾지 못했다.

때로는 자제력이 뛰어나고, 자신이 가진 수단이 무궁무진하다는 확신이 가득한 그조차도 불안에 떨었다.

제때 도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며칠 동안은 지난날보다 더 명확해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그 젊은 여성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

그 생각은 그를 괴롭혔다.

그는 호르텐스와 깊은 유대로 묶여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관계가 그리 깊어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강렬하고 깊은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처음의 호기심, 원초적인 욕망, 그리고 젊은 여자를 보호하고 그녀를 즐겁게 하며 삶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려던 필요성은, 이제 단순한 사랑으로 변해 있었다.

그들 둘 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이 만나는 순간은 언제나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때는 서로의 모험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사건에 마음이 쏠려 있었다.

하지만 위험이 닥쳐오는 첫 순간, 레닌은 호르텐스가 자신의 삶에서 차지한 위상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포로가 되어 고난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리고 그녀를 구해낼 힘이 없다는 사실에 더욱 비참해졌다.

그는 잠들지 못했다. 밤새 온몸이 떨리고 열이 올랐다. 사건을 온갖 방향으로 뒤집어보며 머리를 싸매었다.

수요일 아침도 지옥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감금된 듯 지내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창문을 활짝 열고 거실을 오갔다. 거리로 나가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마치 자신을 괴롭히는 생각에서 도망치듯.

"호르타스가 고통받고 있어… 호르타스는 심연 속에 빠져 있어… 그녀는 도끼를 보고 있어… 나를 부르고 있어… 나를 애원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오후 다섯 시, 그는 여섯 명의 이름이 적힌 목록을 다시 살펴보다가 가슴 한구석에서 작은 충격을 느꼈다. 바로 그 순간, 그가 찾아 헤매던 진리의 신호탄이 터진 것이다.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듯 빛이 번졌다. 모든 단점이 한눈에 들어오는 선명한 광명은 아니었지만, 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늑하기엔 충분했다.

즉시 작전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운전사 클레맹을 시켜 주요 일간지들에 작은 광고문을 실었다. 내일 자 지면의 큰 글씨로 띄워야 할 분량이었다.

클레맹에게는 또 다른 임무도 맡겼다. 과거 여섯 명의 희생자 중 두 번째 피해자인 코브로小姐가 일했던 쿠르브와아 지역의 빨래방으로 가는 것이었다.

목요일, 레닌은 움직이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그의 발표 때문에 여러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이어 전보 두 통도 날아들었다. 하지만 그 편지와 전보들은 그가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다.

드디어 세 시가 되자, 트로카데로 우표가 찍힌 작은 메모지가 도착했다. 그 메모지는 그를 만족시켰다. 그는 메모지를 뒤집어 가며 손글씨를 살폈고, 신문 컬렉션을 뒤져본 뒤 중얼거렸다.

"이 방향으로 나아가도 될 것 같군."

그는 『투파리』를 펼쳐 해당 주소를 확인했다. '전 식민지 총독 루르티에-바노 씨, 클레베 거리 47번지'. 그리고는 자동차로 달려갔다.

"클레망, 클레베 거리 47번지로."

그는 오래된 책들로 채워진, 값비싼 장정이 돋보이는 아름다운 책장들이 늘어서 있는 넓은 서재로 안내되었다.

루르티에르바노 남작은 아직 젊은 나이였으나, 턱수염에는 약간의 회색이 섞여 있었다. 그는 친절한 태도와 진정한 품위, 그리고 미소를 머금은 진지함으로 사람들의 신뢰와 동정을 자연스럽게 끌어냈다.

"총독 각하, 저는 지난해 신문에서 각하께서 '도끼 여인'의 희생자 중 한 명인 오노린 베르니셋을 알고 계셨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레닌이 말했다.

"알고 있었다니, 뭐라 해야 할지…."

루르티에르 남작이 외쳤다.

"우리 부인이 그 아이를 일용 잡일로 치며 재봉일을 시켰으니까요. 불쌍한 아이!"

"총독 각하, 제 친구 중 한 분이 다른 여섯 명의 희생자들처럼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루르티에가 몸을 뒤로 젖히며 물었다.

"하지만 저는 신문을 꼼꼼히 챙겨봤습니다. 10월 18일에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사랑하는 한 여성, 다니엘 부인이 10월 18일에 납치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24일이잖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은 내일 모레입니다."

"끔찍하군요. 무슨 수를 써서든 막아야 합니다."

"총독님, 당신의 도움이 있다면 아마도 성공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고소장을 제출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거의 절대적이고 밀도 높은 신비 앞에 서 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시선이라도 들어갈 틈이 전혀 없죠. 그래서 장소 분석이

나 수색, 지문 수거 같은 일반적인 수사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이런 방법들이 이전 사건들에서 통하지 않았다면, 비슷한 일곱 번째 사건에서 다시 써먹는 건 시간 낭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교활하고 섬세한 적이라면, 초보 탐정이라도 쉽게 걸릴 만한 거친 흔적은 남기지 않을 테니까요."

"그럼 당신은 뭘 했습니까?"

"행동에 앞서, 사흘 동안이나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루르티에르바노 씨는 상대방을 바라보며, 미세한 비꼼 섞인 어조로 물었다.

"그 명상의 결과는요?"

"먼저 말씀드릴 점은, 이 사건들을 한눈에 조망한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저는 이 일들의 전반적인 의미를 파악했고, 불필요한 추측이라는 잡초를 모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동기에 대해선 아무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니, 저는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유형의 인간에게 귀속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오?"

"미치광이들이라는 뜻입니다, 총독 각하."

루르티에르바노 총독이 깜짝 놀라며 몸을 떨었다.

"미치광이라니? 무슨 소리요?"

"총독 각하, 도끼 여인으로 불리는 그 여자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않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감금되어 있지 않소?"

"그녀가 이미 미친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날카로운 야수의 본능과 사소한 변덕에 완전히 빠져 있는 '반쯤 미친' 사람들 중 한 명은 아닐까요? 그런 존재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간과합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작은 버릇과 잔인한 본능을 펼칠 충분한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런 존재들이야말로 가장 거짓된 존재들입니다. 가장 교활하고, 가장 인내심이 강하며, 가장 완고합니다. 동시에 가장 위험하고, 가장 터무니없으면서도 가장 논리적이며, 가장 혼란스럽지만 가장 체계적입니다."

"총독 각하, 이 모든 형용사는 '도끼 여인'의 수법에 완벽하게 적용됩니다. 한 가지 생각에 집착하고, 한 가지 행위를 반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미친 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아직 '도끼 여인'을 집착하게 만드는 그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서 비롯된 행위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늘 동일합니다."

"피해자는 항상 같은 밧줄로 묶입니다. 같은 일수 후에 죽임을 당합니다. 같은 무기로, 같은 장소에, 같은 각도로 타격을 가합니다. 정수리 한가운데, 정확히 수직으로 뚫리는 상처입니다."

"평범한 살인자는 변덕을 부립니다. 떨리는 손이 빗나가고, 실수를 저지르죠. 하지만 '도끼 여인'은 떨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리 계산을 해 둔 듯, 칼날의 각도는 일직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에게 다른 증거를 더 제시하고, 나머지 모든 사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수수께끼의 열쇠는 이미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저와 똑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오직 미친 자만이, 멍청하고, 야만적으로, 기계적으로, 시계가 타거나 도끼가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루르티에-바노 씨가 고개를 저었다.

"맞아요. 정말로요. 이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네요. 저도 점점 그런 식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만약 그 여자의 정신 나간 행동 속에 어떤 수학적인 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저는 피해자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녀는 그냥 운에 맡겨 무작위로 공격한 거죠. 왜 하필 이 사람이어야 했을까요? 저 사람이 아니라 왜?"

"아, 총감님!" 레닌이 외쳤다. "당신이 하신 질문은, 제가 문제의 첫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모든 문제의 핵심

을 압축하고 있죠. 제가 그토록 고군분투하며 풀려던 질문이기도 하고요."

"하르랑스 다니엘을, 그 다른 여자를 왜 택했을까? 두백만 명의 여성이 눈앞에 있었는데, 어째서 하르랑스였을까? 어째서 젊은 베르니셋이었을까? 어째서 미스 윌리엄슨이었을까?"

"제 상상이 맞다면,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미친 여자의 눈멀고 기괴한 논리에 기반한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선택이 따랐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끼 여인'이 타격을 가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이나欠陷, 혹은 징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요컨대, 그녀가 선택했다면—그리고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죠—그 선택을 이끈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신은 답을 찾았습니까?"

레닌은 잠시 멈칫했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네, 총독 각하. 저는 그걸 알아냈습니다. 사실 첫 순간에라도 알 수 있었죠. 피해자 명단을 유심히만 살펴보면 됐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의 번개는 언제나 고된 노력과 깊은 사색으로 달아오른 뇌리에서만 빛납니다. 저는 그 명단을 스무 번이나 들여다봤지만, 그 작은 단서는 제 눈앞에 형태를 잡지 못했습니다."

로르티에바누 총독이 말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총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얽힌 사건, 즉 범죄나 스캔들 같은 공적인 문제에서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방식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라두 부인이나 아르당 자매, 코브로 자매를 다룰 때 신문들은 성만 사용했습니다. 반면에 베르니셋 자매와 윌리엄슨 자매는 호노린과 에르베트라는 이름으로 함께 불렸죠.

만약 여섯 피해자들도 그렇게 불렸다면, 아무런 의문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제가 갑자기 호르탕스 다니엘이라는 이름과 두 개의 이름을 대조해 보았을 때, 바로 그 여섯 명의 불쌍한 여성들 사이에 숨어 있던 연관성을 첫 순간부터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이해하시겠지요? 지금 당신 눈앞에도 제 눈앞처럼 세 개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을 테니까요."

루르티에르바노 씨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이 약간 창백해지며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말씀이시죠?"

레닌이 또렷한 목소리로 이어서 말했다. 음절을 하나씩 분명히 떼어 가며 말이다.

"당신 눈앞에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 이름 모두 같은 첫 글자로 시작하죠. 그리고 놀랍게도 글자 수도 같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쿠르브와에 있는 빨래방에서 일했던 코베로小姐의 본명을 알아보면, 그녀가 힐레리(Hilairie)라는 이름을 썼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역시 같은 첫 글자이고 글자 수도 같습니다."

"더 이상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피해자의 이름이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문제의 해답을 확실하게 알려줍니다."

"미친 여자가 어떻게 이름을 골랐는지 설명이 됩니다. 불쌍한 여자들이 서로 어떤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알게 된 거죠. 오해의 여지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름을 고른 방식이야말로 내 가설을 얼마나 잘 뒷받침합니까! 이것이야말로 미친 행동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왜 하필 그 여덟 명의 여성을 죽였을까? 이름이 모두 H로 시작하고, 글자 수도 여덟 개이기 때문일까? 가니마르 형사, 잘 들어보시오. 글자 수는 여덟, 첫 글자는 알파벳 여덟 번째인 H, 그리고 '여덟'을 뜻하는 프랑스어 'huit'도 H로 시작하지 않소. 늘 H뿐이오. 그리고 사형

의 도구는 도끼였소. 도끼 여사(Dame à la Hache)가 미친 여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소?"

레닌은 말을 멈추고 루르티에르바노 총독에게 다가섰다.

"무슨 일이십니까, 총독님? 몸이 편찮으신가요?"

"아니오, 아니오." 루르티에르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아니요, 하지만 이 사건이 너무도 혼란스럽소! 생각해보시오. 나는 그 희생자 중 한 명을 알고 있었단 말이오. 그리고 그때……"

레닌은 곁에 놓인 작은 원탁에서 물병과 잔을 가져와 물을 따라 루르티에 경에게 건넸다.

루르티에 경은 몇 모금 마시고는 몸을 일으켰다. 목소리를 단단히 잡으려는 듯 그는 말을 이었다.

"좋소. 당신의 추측을 받아들이겠소. 하지만 그 추측이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져야 하오. 당신은 무엇을 했소?"

"오늘 아침 모든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훌륭한 요리사 구인. 오후 5시 전에 하오스만 대로 35번지 에르미니에게 편지.' 이해가 되시죠, 총감님?"

"H로 시작하고 글자가 여덟 개짜리는 이름이 극히 드물고, 다들 좀 구식입니다. 에르미니, 힐레리, 에르베트 같은 이름들이죠. 그런데 이

이름들은 미친 여자가 꼭 필요로 합니다. 이유야 모르겠지만, 그녀는 이 이름 없이는 못 사는 거죠."

"그런 이름을 가진 여자를 찾기 위해, 그녀는 남은 이성과 식견, 판단력, 지성을 총동원합니다. 그녀는 찾고, 묻습니다. 그리고 숨죽여 기다립니다. 신문을 읽죠.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녀의 눈은 특정 디테일, 특정 대문자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저는 단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에르미니'라는 이름이 굵은 글씨로 인쇄되어 그녀의 시선을 끌고, 오늘 하루 안에 그녀가 제 함정에 걸릴 거라고."

"그녀가 썼습니까?" 로르티에르바노 씨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소위 헤르미니에게 제안을 하려고, 평소처럼 여러 부인들이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흥미로운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레닌이 말했다.

"누구로부터?"

"읽으십시오, 총감님."

로르티에르바노 총감이 레닌의 손에서 종이를 빼앗아 서명 부분을 훑어보았다. 그는 처음에 놀라는 듯했다. 다른 사람이 쓸 줄 알았나 보다. 그러더니 그는 기쁨과 안도감이 섞인 듯한 긴 웃음을 터뜨렸다.

"왜 웃으십니까, 총감님? 기쁜 모양이시네요."

"기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지는 제 아내가 썼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의심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하지만 아내의 일이라면요……"

그는 말을 맺지 못하고 레닌에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여러 통의 답장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그중 왜 하필 이 답장을 선택하셨습니까? 이 편지에서 어떤 단서를 찾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명자가 로르티에르-바노 부인이라서입니다. 그리고 로르티에르-바노 부인은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인 오노린 베르니셋을 재봉사로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당시 신문 기사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총독阁下, 제가 이곳에 와 보니 길은 잘못 들어선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군요. 다만 몇 가지 징후가…… 몇 가지 디테일이 있거든요. 로르티에 부인 뵙겠습니다, 선생님?"

"바로 그 말씀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선생님." 로르티에 부인이 말했다. "따라오시죠."

그는 그를 복도 끝의 작은 안락실로 안내했다. 거기서 금발에 행복하고 다정한 표정의 부인이 아이들 셋과 함께 앉아 일하고 있었다.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로르티에 부인이 간단히 소개를 마치고 아내에게 물었다.

"수잔나, 그 자전거 타이어 너 거야?"

"오스만 대로에 있는 에르미니야님께 보내는 건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내 거예요. 우리 하녀가 그만두게 되어서 새 사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레닌이 그녀를 막았다.

"죄송합니다, 마담. 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하녀의 주소를 어떻게 아셨나요?"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남편이 재촉했다.

"대답해, 수잔. 이 주소를 누가 알려줬니?"

"전화로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수잔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의 옛 젖모요."

"페리시엔?"

"네."

루르티에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레닌이 추가 질문을 할 틈도 주지 않고, 그를 자신의 서재로 돌려보냈다.

"보셨죠, monsieur. 이 타이어는 전혀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 온 것입니다. 제 옛 젖모인 페리시엔이 파리 근교에 살고 있는데,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광고를 보고는 제게 알린 거죠."

그는 웃으려 애쓰며 덧붙였다.

"결국, 부인이 도끼 여인이라고 의심하지는 않겠죠?"

"아니요."

"그럼 이 일은 끝났군요. 적어도 제 입장에서는요.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선생님의 추리를 따라갔지만, 결국 도움이 되지 못해 정말 유감입니다."

그는 이 참견꾼 방문자를 빨리 쫓아내고 싶었다. 그는 문밖으로 내보내는 제스처를 취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그는 두 번째 잔의 물을 들이키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다.

레닌은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마치 패배한 상대를 바라보듯,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되는 상대를 보는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옆에 앉더니, 갑자기 그의 팔을 꽉 쥐었다.

"총독 각하, 만약 당신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오르탕스 다니엘이 일곱 번째 희생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말할 것이 없습니다, 각하! 제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진실입니다. 제 설명이 이미 그 진실을 드러냈죠. 당신의 절박함과 공포가 그걸 증명합니다. 저는 당신을 협력자로 여기고 찾아왔지만, 뜻밖에도 저는 안내자를 발견한 셈입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맙시다."

"하지만, 도대체 왜요, 선생님. 제가 알았다면 왜 침묵하겠습니까?"

스캔들이 두려워서죠. 당신의 삶에는, 제가 깊이 직감하건대, 감춰야만 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끔찍한 비극에 대한 진실이 갑자기 당신 앞에 드러났습니다. 그 진실이 세상에 알려지면, 당신에게는 수치와 치욕이 될 테죠. 그래서 당신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걸 주저하는 겁니다.

르투리에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레닌이 그에게 몸을 기울여, 눈을 마주보며 속삭였다.

"스캔들은 없어요. 저 혼자만 이 일을 알게 될 테니까요. 저 역시 당신만큼이나 이 일에 관심이 쏠리는 것을 원치 않아요. 호르랑스 다니엘

을 사랑하고 있고, 그녀의 이름이 이런 끔찍한 일에 얽히길 원치 않으니까요."

그들은 두세 분 동안 서로를 마주 보고 서 있었다. 레닌의 얼굴은 단단하게 굳어 있었다. 루르티에 씨는 필요한 말을 꺼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지만, 그는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당신이 잘못 보셨어요…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본 거예요."

레닌은 갑자기, 그리고 끔찍한 확신에 사로잡혔다. 이 남자가 바보처럼 침묵을 고수한다면, 오르탕스 다니엘의 생은 끝장이라는 것을.

그는 숨이 막힐 듯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수수께끼의 열쇠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물건처럼 분명히 존재하는데도, 그 남자는 입을 다물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이성을 압도했다. 그는 로르티에 씨의 목을 움켜쥐고 그를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제 거짓말은 그만! 한 여자의 목숨이 달려 있다. 당장 말해. 지금 바로."

"그렇지 않으면…"

로르티에 씨는 이미 기력이 다해 있었다.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다. 레닌의 폭행이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그는 그 폭력 자체에 굴복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어떤 장애물도 허용하지 않는 듯했던 그 끔찍한 의지 앞에 자신이 짓눌리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당신이 옳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 저는 모든 것을 말해야 합니다."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단, 호르탕스 다니엘을 구해 주셔야 합니다. 단 한 순간의 망설임도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디테일한 건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그때 로르티에 씨는 책상 위에 팔꿈치를 괴고, 양손으로 이마를 감싼 채 말을 시작했다. 그는 최대한 간결하게, 그러나 속삭이듯 진심 어린 어조로 입을 열었다.

"루르티에 부인은 제 아내가 아닙니다. 제 이름을 쓸 권리가 있는 오직 한 사람, 그 여자는 제가 식민지 공무원으로 일하던 젊음의 시절에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녀는 좀 이상한 여성이었습니다. 머리가 좀 약했고, 기이한 습관과 충동에 비현실적일 정도로 복종했죠.

우리는 아이를 두 명 낳았습니다. 쌍둥이였는데, 그녀가 그 아이들을 무척 사랑했죠. 아마 그 아이들 곁에서 그녀는 정신적 균형과 건강을 되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사고가 났습니다. 지나가던 마차에 치인 거예요. 아이들은 그녀의 눈앞에서 짓눌려 죽었습니다.

불쌍한 여자는 미쳐 버렸죠. 당신이 말한 그 조용하고 은밀한 종류의 미침이었어요. 얼마 후, 저는 알제리의 한 도시로 발령을 받아 그녀를 프랑스 데로 데려왔고, 저를 키워준 착한 여인에게 맡겼습니다.

그 이 년 후, 저는 제 삶을 기쁨으로 채우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방금 보셨죠. 그녀는 제 아이들의 어머니이고, 제 아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그녀를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전부가 공포 속으로 가라앉아야 할까요? 우리 이름이 이 미치고 피 흘리는 비극과 연결되어야 할까요?"

레닌이 생각에 잠긴 뒤 물었다.

"다른 여자의 이름이 뭐였지?"

"에르만스."

"에르만스……. 또다시 이니셜이군. 여덟 글자."

"바로 그 점이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루르티에 씨가 말했다. "당신이 그 이름들을 서로 대조했을 때, 저는 즉시 그 불쌍한 여자가 에르만스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미쳐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들이 제 머릿속에 하나둘 모여들었죠."

"공격자가 희생자를 어떻게 골랐는지는 알겠소. 하지만 살인 자체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오? 그녀의 미증은 대체 무엇인가? 그녀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인가?"

"지금은 고통이 덜하지만, 그녀는 이미 지옥 같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두 아이가 눈앞에서 짓눌려 죽은 순간부터, 그 끔찍한 죽음의 광경이 밤낮으로, 단 한 순간도 쉬지 않고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녀는 단 한 초도 잠들지 못했으니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지옥 같은

고통을요. 긴 낮의 모든 시간, 끝없는 밤의 모든 시간 내내 아이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하다니!”

레닌이 반문했다.

“하지만 그 광경을 떨쳐내기 위해 죽인 것도 아니죠?”

로르티에 씨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중얼거렸다.

“그렇습니다. 아마도… 잠을 자서 그 광경을 잊으려 한 것이겠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녀가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친 사람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일관성이 없고 비정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하지만 당신의 추측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들이 있나요?”

“네. 거의 눈치채지 못했던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에 와서 그 가치가 드러났죠. 첫 번째 사건은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된 젖먹이 할머니가 처음으로 에르망스가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한 아침이었죠. 그때 에르망스는 목을 졸라 죽인 작은 강아지를 양손으로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세 번이나 같은 일이 반복되었죠.”

“그리고 에르망스는 잠들었나요?”

“네, 잠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수면은 며칠씩 이어졌죠.”

"그래서 당신은 결론을 내렸나요?"

"살인 행위가 일으킨 신경 이완이 에르망스를 지치게 했고, 그 결과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죠."

레닌은 오한이 느껴졌다.

"맞아요. 의심할 여지가 없죠. 살인이라는 중압감이 그녀를 잠들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성공한 그 방법을, 이번엔 여자들이라는 대상으로 똑같이 적용한 거죠. 그녀의 광기는 오직 한 점에 집중되어 있었어요. 잠을 자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잠을 훔치는 거예요. 잠이 없었던 그녀가 남의 잠을 도둑질한 것이죠. 맞죠? 지난 이 년간, 그녀는 잠을 자지 못했던 건가요?"

"이 년 동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로르티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레닌이 그의 어깨를 꼭 쥐었다.

"그녀의 광기가 더 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 하셨나요? 잠이라는 축복을 손에 넣기 위해선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을 텐데. 서둘러야 합니다, 선생님. 이 모든 것이 끔찍합니다!"

두 사람이 문쪽으로 향하려던 순간, 로르티에 씨가 발걸음을 멈췄다.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저쪽에서 오는 전화입니다." 그가 말했다.

"저쪽에서요?"

"네, 매일 같은 시간에 제 옛 양모가 제게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는 수신기를 내려놓고 하나를 르니느에게 건넸다. 르니느는 그가 물어야 할 질문들을 속삭여 주었다.

"여보시오, 페리시엔? 잘 지내시나요?"

"잘 지냅니다, 선생님."

"잘 주무시나요?"

"최근 며칠은 좀 덜 잘 주무십니다. 어젯밤에는 아예 눈을 붙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기색이 아주 어둡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 방에 계십니다."

"가보시오, 페리시엔. 그녀를 떠나지 마시오."

"안 됩니다. 그녀가 문을 잠갔습니다."

"잠가야 합니다, 페리시엔. 문을 부수시오. 제가 곧 도착하겠습니다. 알로… 알로… 아, 젠장, 연결이 끊겼군!"

두 사람은 말 없이 아파트를 나와 거리로 뛰어나갔다. 르니느는 루르티에 씨를 자동차 안으로 밀어넣었다.

"주소는?"

"빌다브레."

"당연하지. 그의 작전 중심지 말이야. 거미가 거미줄 한가운데 있듯이. 참으로 비열한 짓이군."

그는 격분한 나머지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그 기막힌 모험의 전모가, 끔찍할 정도로 생생한 현실로 그의 눈앞에 드러나고 있었다.

"네, 그녀가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 그들의 잠을 빼앗기 위해서야. 짐승을 다루던 방식과 똑같지. 같은 집착에서 비롯된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의식과 미신들이 덧붙여졌어.

물론 그녀는 자기 이름과 비슷한 이름의 희생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 그리고 희생자가 오르탕스나 오노린일 때만 비로소 쉴 수 있다고 생각하지. 미친 사람의 논리야. 그 근거나 기원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녀 자신도 그 논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녀는 반드시 찾아야 해.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야 해! 그리고 그녀는 찾아내고, 먹이를 데려와. 며칠 동안이나 그 먹이를 바라보며 감탄하곤 하지. 그리고 나서야, 망치로 두개골을 한 번에 쪼개 만든 구멍을 통해, 그녀를 취하게 하고 일정 기간 동안 잊게 해주는 그 잠을 빨아들여.

여기서 또 이상하고 미친 짓이지! 왜 그녀는 그 기간을 며칠로 딱 정해놓았을까? 왜 어떤 희생자는 120일치의 잠을, 또 다른 희생자는 125일치의 잠을 보장해줘야 할까! 미친 짓이야! 신비롭지만 분명히 바보 같은 계산이지."

어쨌든 120일에서 125일쯤이면 새로운 희생자가 바쳐진다. 이미 여섯 명이 죽었고, 일곱 번째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아, 선생님! 그 책임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런 괴물을 그냥 둘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자를 결코 놓치지 않을 겁니다."

루르티에르바노 씨는 항변하지 않았다. 그의 절망과 창백함, 떨리는 손끝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나를 속였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겉으로는 너무도 평온했고, 순종적이었거든요. 게다가 그건 요양원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집은 큰 정원 한가운데에 산재한 별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로르티에 씨가 설명했다. "헤르망스가 사는 별채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어요. 먼저 펠리시엔이 쓰는 방이 있고, 그다음 헤르망스의 침실, 그리고 창문이 시골 풍경을 향해 있는 두 개의 고립된 방이 이어져 있죠. 아마 그 마지막 방에 희생자들을 가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체를 실은 마차는요?"

"이 요양원의 마구간이 그 별채 근처에 있어요. 외출용 말 한 마리와 마차가 있죠. 헤르망스가 밤에 일어나서 말을 묶고, 창문을 통해 시체를 밀어내서 마차로 옮기는 거겠죠."

"그녀를 감시하는 유모는요?"

"펠리시엔은 청력이 조금 약하고, 아주 늙었어요."

"하지만 낮에는 마담이 오가며 일하는 모습을 보잖습니까. 어떤 연루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 페리시엔도 에르망스의 위선에 속았던 거야."

"그렇다면 방금 마담 드 루르티에에게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건 페리시엔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에르망스는 가끔 말을 하고, 생각도 하고, 이해는 못 하지만 신문은 꼼꼼히 읽어. 방금 말했듯이 말이야.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내가 하녀를 찾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을 거야. 그래서 페리시엔에게 전화를 하라고 부탁한 거지."

"예… 맞아요. 제가 예감했던 대로입니다." 레닌이 천천히 말했다. "그녀는 희생자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오르탕스가 죽은 뒤,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여덟 번째 희생자를 찾을 곳을 알고 있었죠."

그녀는 어떻게 그 불쌍한 여성들을 유인했을까요? 오르탕스 다니엘은 어떤 수법으로 끌려나왔을까요?

차는 달리고 있었지만, 레닌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그는 운전수를 꾸짖었다.

"더 빨리 가요, 클레망…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친구."

갑자기 너무 늦게 도착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를 괴롭혔다. 미친 자들의 논리는 기분에 따라, 혹은 갑자기 머리를 스치는 위험하고 터무니없는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 미친 여자는 날짜를 잘못 기억하고 해를 앞당겼을 수도 있다. 마치 고장 난 시계처럼, 한 시간 일찍 종을 울리는 것처럼.

그런데 잠을 또다시 방해받았으니, 그녀는 정해진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행동에 나설지도 모른다. 왜 그녀가 방에 틀어박혀 있었는지, 그 이유도 아마 여기에 있을 것이다. 불쌍한 포로가 겪었을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형수의 손짓 하나에도 온몸이 전율하며 공포에 떨었을 테니.

"더 빨리, 클레망! 아니면 내가 핸들을 잡겠다! 빨리 가라고, 저주할 놈!"

드디어 빌다브레에 도착했다. 오른쪽으로 꺾이는 가파른 길이 보였다. 긴 철조망이 끊긴 담장이 이어졌다.

"그 부동산을 우회해, 클레망. 총독 각하, 혹시 경계심을 자극하는 건 아닐까요? 별장은 어디쯤 있나요?"

"정반대편에 있습니다." 드 루르티에바노 총독이 말했다.

그들은 조금 더 내려갔다.

레닌이 울퉁불퉁하게 패인 좁은 길 옆 언덕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의 밤이 되어 어둑어둑했다.

루르티에 백작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여기요. 안쪽으로 들어간 그 건물. 저기, 지하실 위층 창문요. 두 개의 독립된 방 중 하나예요. 분명히 그곳으로 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창문에 철창이 있네요." 레닌이 지적했다.

"네, 철창이 있죠. 그래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직접 길을 뚫었을 거예요."

지하실은 높은 지하 공간 위에 지어졌다. 레닌이 재빨리 올라가 돌출된 석재 위에 발을 디뎠다.

철창 중 하나가 실제로 빠져나간 자국이 있었다.

그는 머리를 내밀어 유리창에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뒤편을 자세히 보니, 매트리스 위에 누운 다른 여자의 곁에 앉아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앉아 있는 여자는 손으로 이마를 짚고 누운 여자를 응시하고 있었다.

"바로 저 여자가 맞소." 벽을 넘었던 루르티에 씨가 속삭였다. "다른 한 명은 묶여 있어."

레닌은 주머니에서 유리 절단기를 꺼내 창문의 유리를 잘라냈다. 소음이 없었기에, 정신 나간 여자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는 오른손으로 창문 손잡이에 닿아 살며시 돌렸다. 동시에 왼손으로는 권총을 겨누고 있었다.

"총을 쏘진 않겠지?" 루르티에-바노 씨가 애원했다.

"필요하면 쏠 수도 있어."

창문이 살며시 열렸다. 하지만 뤼팽은 알지 못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었다. 넘어진 의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내는 소리였다.

그는 재빨리 방 안으로 뛰어들어 총을 내려놓고 그 여자를 붙잡으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기다리지 않았다. 급하게 문을 열고 비명 같은 소리를 지르며 도망쳐 나갔다.

루르티에 백작은 그녀를 쫓으려 했다.

- 무슨 소용이 있겠소? 뤼팽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먼저는 피해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곧 안도했다. 오르탕스가 살아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첫 번째 일은 그녀를 묶었던 밧줄을 자르고, 숨 막히게 했던 입마개를 벗기는 것이었다. 소음에 끌려 온 노모가 등불을 들고 달려왔다. 뤼팽은 그 등불을 받아 들고 빛을 오르탕스에게 비췄다.

그는 깜짝 놀랐다.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기진맥진한 호르탕스 다니엘. 얼굴은 야위었고, 눈에는 열병처럼 빛이 돌았다. 그럼에도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려 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순간도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그리고 그녀는 의식을 잃었다.

한 시간 뒤, 별장 주변을 무작정 뒤진 끝에 그들은 다락방의 큰 찬장 속에서 그 '미친 여자'를 발견했다. 그녀는 목을 매달아 자살한 뒤였다.

호르탕스는 그곳에 한 시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그 '미친 여자'가 자살했다는 사실을 늙은 유모가 알릴 때, 별장 안은 비어 있는 것이 더 나았다. 레닌은 페리엔느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일러주었다. 그리고는 운전사와 루르티에 백작의 도움을 받아 젊은 여성을 자동차까지 모셔다 주었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다. 그다음 날, 레닌은 신중하게 호르탕스를 불러내어 그 여자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물었다.

"그냥 그런 거죠. 제 남편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말씀드린 대로 빌다브레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 가끔은 아무도 모르게 그분을 찾아

뵙기도 합니다. 바로 그 덕분에 그 불쌍한 미친 여자와 말을 나눴고, 며칠 전 그녀가 저를 부르길래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때는 우리 둘만 있었죠. 저는 파빌리온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가 갑자기 제게 달려들더니 비명 한 번 지를 새도 없이 저를 꼼짝 못 하게 만들었어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죠. 사실 장난이었으니까요. 미친 사람의 장난이랄까. 그녀는 제게 매우 다정하게 대했어요. 그래도 배고픔은 견딜 수 없었죠."

"그런데 무서우셨어요?"

"굶어 죽는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그녀는 때때로 성미가 변해 저에게 먹이를 주곤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죠. 그 또 다른 위협 말입니다."

"그 위협이라니요?" 그녀가 순진한 척 물었다.

레닌이 몸을 떨었다. 그는 갑자기 깨달았다. 호르타스, 처음 보기엔 이상할지라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끔찍한 위험을 단 한 순간도 의심하지 않았고, 여전히 의심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도끼 여자의 범죄와 자신의 사건이 전혀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가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려주면 된다. 시간이 얼마든지 있었다.

며칠 후, 의사가 휴식과 고독을 권하자, 오르탕스는 프랑스 중부 바시쿠르 마을 근처에 사는 친척 집으로 떠났다.

제7장 - 눈 위의 발자국

제7화 눈 위의 발자국

라 로시에르, 바시쿠르, 11월 14일.

파리, 오스만 대로, 레닌 공작님께.

친애하는 친구여,

나는 정말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테지. 내가 여기 온 지 사흘 주가 지났는데도, 내게서는 단 한 통의 편지도, 감사의 말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나를 끔찍한 죽음에서 구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놀라운 사건의 비밀을 깨달았소.

하지만 어찌 되었든, 나는 이 모든 일에서 완전히 지쳐버렸소! 몸과 마음이 다 부서질 듯했고, 오직 쉼과 고독만이 필요했소. 파리에 남아 당신과 함께 또 다른 모험을 계속하다니? 천만의 말씀이오! 모험은 이제 충분하오. 다음 모험은 아주 흥미로울 것이지만, 내가 겪었던 것처럼 목숨을 잃을 뻔했던 모험은 다시는 원치 않소.

아, 친애하는 친구여, 그 공포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소?

그곳, 라 로니에르에서는 정말 한가롭기 그지없었다. 늙은 사촌 에를맹은 나를 환자처럼 귀여워하며 보살펴 주었다. 내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그렇게 모든 것이 잘 돌아가자, 나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갖는 생각은 아예 접어두게 되었다. 완전히 말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너는 고쳐지지 않는 호기심쟁이야. 구식 문지기처럼 궁금한 게 많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걸 멈출 줄 모르잖아. 그래서 들려주는 건데, 어제 나는 꽤 흥미로운 한 장면을 목격했다.

안투아네트가 나를 바시쿠르 여관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큰 방에서 차를 마셨다. 그날은 장날이었기에 주위에는 농부들로 가득했다. 그런데 갑자기 세 사람이 도착했다. 남자가 두 명, 여자가 한 명. 그들의 등장은 순간 모든 수다를 멈추게 만들었다.

한 남자는 두툼한 농부였다. 긴 작업복을 입었고, 볼이 붉게 달아오른 표정은 기뻐 보였으며, 하얀 수염이 얼굴을 감싸고 있었다.

다른 한 남자는 좀 더 젊었다. 갈피가 있는 벨벳 옷을 입었고, 얼굴은 누렇고 마른 데다 퉁명스러워 보였다.

두 사람 모두 어깨에 산총을 메고 있었다. 그 사이에는 가느다란 체격의 젊은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갈색 코트를 두르고 모피 모자를 썼다. 얼굴이 좀 야위고 지나치게 창백했지만, 그 우아함과 섬세함은 시선을 사로잡았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며느리군요." 내 사촌 에를맹이 속삭였다.

"뭐? 이 매력적인 여자가 이 오만한 농부의 아내라니?"

"그리고 고르네 남작의 장모이기도 하지."

"남작이라니? 저기 있는 그 노인을?"

“이곳의 성을 예전에 살던 아주 명문가의 후손이죠. 평생 농부처럼 살아왔고요. 사냥도 잘하고 술도 잘 마시지만, 소란도 잘 피워요. 소송을 걸고 또 걸어서 거의 파산하다시피 했죠.”

“그 아들은 마티아스. 더 욕심 많았고 땅에 얽매이는 걸 싫어했어요. 법학을 공부한 뒤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돈이 떨어지자 고향 마을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는 근처 마을의 한 젊은 여자를 사랑하게 됩니다. 불쌍한 그 여자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결혼에 동의했죠. 그리고 이제 5년째,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저택 ‘만와푸이’에서 은둔자라기보다는 감금된 사람처럼 지내고 있어요.”

“부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닙니다. 아버지는 마을 끝쪽 외딴 농가에 살고 있어요.”

“그럼 마티아스 씨가 질투를 부리는 건가요?”

“호랑이처럼 심술궂죠.”

“별다른 이유 없이?”

"이유가 없습니다. 나탈리 드 고른은 가장 성실한 여성인데, 최근 몇 달 동안 한 멋진 기사가 저택 주변을 배회하는 것이 그녀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그래도 드 고른 가문은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버지도요?"

"그 멋진 기사는 과거 성을 사들인 가문의 마지막 후손입니다. 그래서 노년 드 고른은 그를 미워하지요. 제가 알고 있고 매우 아끼는 제롬 비냐르가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잘생겼고 매우 부유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탈리 드 고른을 납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이 말은 노인이 술에 취해 있을 때 자주 하는 소리입니다. 더 들어보십시오."

마시는 사람을 놀리며 술을 권하고 질문을 쏟아내는 군중 한가운데, 이미 반쯤 취한 노인이 외쳤습니다. 그는 분노와 함께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는데, 그 대비가 정말로 코믹했습니다.

"저 미남자, 이번엔 제대로 공들여 배웠지! 내가 말해두는데, 우리 쪽에서 몰래 기웃거리며 애를 낚으려들어도 소용없어. 이 곳은 엄수하는 사냥터야. 너무 가까이 다가오면 총알 한 발로 쫓아내겠지, 마티아스?"

그는 며느리의 손을 꽉 쥐었다.

"게다가 우리 딸도 혼자서 잘 싸워. 넌 그렇지, 나탈리? 남자들의 구애에 넘어가지는 않지?"

갑작스런 지적에 얼굴이 붉어진 젊은 여인은, 남편이 투덜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버님,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마시는 게 좋겠어요. 입에 담으면 안 될 일도 있거든요."

"명예에 관한 문제는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거야. 내게 데 고른 가문의 명예는 그 무엇보다 중요해. 그리고 그 파리 사나이를 부리는 저 게으른 놈은…"

그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다. 바로 앞, 방에 들어온 누군가가 그 문장이 끝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듯했다.

키가 크고 건장한 남자였다. 말 타는 복장을 하고 손에는 채찍을 쥐고 있었다. 단호하면서도 다소 거친 인상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 미소 짓는 아름다운 눈빛이 얼굴에 생기를 더했다.

"제롬 비냐르," 내 사촌이 숨을 죽이며 말했다.

젊은 남자는 전혀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나탈리를 보고는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마티아스 드 고르네가 그를 향해 한 발짝 다가오자, 그는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런 태도를 보였다.

'그래, 그다음에?'

그 태도는 너무나도 무례해서, 드 고르네 부자는 총을 내려놓고 사냥꾼이 먹이를 노리듯 두 손으로 총을 꽉 쥐었다. 아들의 눈빛은 사납게 빛났다.

제롬은 위협에도 아랑곳없이 차분한 표정을 유지했다. 잠시 후, 그는 여관주인을 향해 말했다.

"저기요, 저는 바세르 아저씨를 만나러 왔는데, 그의 가게는 닫혀 있네요. 제 권총의 총집이 풀려 있으니, 바세르 아저씨께 전달해 주시겠어요?"

그는 총집을 여관주인에게 건네며 웃었다.

"권총은 제가 가지고 있겠습니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언제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으로 은제 담배갑에서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라이터의 불꽃으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 밖으로 나갔다. 창문 너머로 사람들은 그가 말에 뛰어올라, 작은 발걸음으로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다.

"젠장!" 고르네 노인이 코냑 한 잔을 들이키며 욕설을 내뱉었다.

아들이 그의 입에 손을 얹고 억지로 의자에 앉혔다. 그 옆에서 나탈리 드 고르네가 울고 있었다…

자, 친애하는 친구여, 이것이 나의 이야기다. 보시다시피 그다지 흥미진진하지도 않고, 당신의 관심을 끌 만한 가치도 없다. 여기에 숨겨진 비밀도 없고, 당신에게 맡길 역할도 없다. 더욱이 당신이 이를 빌미로 부적절한 개입을 하지 않기를, 나는 특히나 간곡히 부탁한다. 분명히 말하지만, 불행한 여성, 즉 아마도 진정한 순교자일 그 여자를 보호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간절하다. 하지만 내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다른 이들에게 맡기고 우리만의 작은 실험은 여기서 마무리하자.

레닌은 편지를 끝까지 쓰고 다시 한 번 읽은 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실험을 계속하고 싶지 않군요. 일곱 번째 단계에 도달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여덟 번째가 두렵습니다. 우리 계약에 따르면, 여덟 번째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니까요. 우리는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원합니다…… 겉으로는 원하지 않는 척하면서."

그는 손을 비비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 편지는 그에게 소중한 증명이 되어주었다. 그는 서서히, 부드럽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젊은 여성에게 거둔 영향력을 말이다.

그의 감정은 꽤 복잡했다. 존경심도 있었고, 한없는 신뢰도 있었다.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심지어는 거의 공포에 가까운 감정까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사랑도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와 함께 모험을 함께하는 동지였다. 서로 어색함 없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이였다.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무서워졌다. 그리고 부끄러움과 꼬임이 섞인 듯한 감정이 그녀를 도망치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일요일 밤이었다. 레닌은 기차에 올랐다.

새벽녘, 그는 눈으로 뒤덮인 길을 마차로 두 리를 달려 작은 마을 폼피냥에 도착했다. 그가 묵은 곳과 바시쿠르 마을 사이 거리였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여행이 뜻깊은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새 만뉴아 푸아르 성에서 총성 세 번이 들렸다는 것이었다.

'사랑과 운명의 신이 나를 도와주는군. 만약 부부 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나는 제때에 도착한 셈이야.'

"총성 세 번, 부장." 한 농부가 여관 방에서 헌병들에게 답하고 있었다.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들었어요."

"저도요," 여관 사내아이가 말했다. "총성 세 번…… 아마 자정이었을 거예요. 아홉 시부터 내리던 눈이 그쳤고, 그 소리가 평야 전체에 쏙 들어왔어요. 팡, 팡, 팡."

그 외 다섯 명의 농민들도 증언했다. 하지만 기마 경찰대장과 그 부하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 그들이 평야와 등진 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농장 하인과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들은 고른의 하인들이었다. 일요일 때문에 이틀 전부터 휴가 중이었는데, 마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한 채 마르와에서 오고 있었다.

"경내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형사님." 한 사람이 말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마티아스 씨는 겨울이든 여름이든 매일 아침 여섯 시쯤에 직접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미 여덟 시가 넘었습니다. 제가 부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찾았습니다."

"고른 부인 댁에 들러 물으면 될 텐데." 병장이 말했다. "그분은 길가에 삽니다."

"그렇죠, 사실 그랬어야 했는데 생각 못 했어요."

"그럼 가자." 병장이 결정했다.

그의 부하 두 명이 그를 따랐고, 농부들과 소환해 온 자물쇠 공인도 함께했다. 레닌도 그 무리에 합류했다.

마을 끝자락에 다다르자마자 그들은 고른 할아버지의 마당을 지나쳤다. 그리고 레닌은 오르탕스가 들려준 설명을 통해 그를 알아봤다.

그 남자는 자신의 수레에 말들을 매고 있었다. 사건 소식을 듣고 그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총 세 발? 땡, 땡, 땡? 하지만, 친애하는 부경님, 마티아스의 소총은 총알이 두 발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닫힌 문은요?"

"아이들이 자는 거죠, 그게 다예요. 어제 밤에 그가 와서 저와 함께 병을 비웠어요. 아마 두 병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세 병이었을지도요. 그리고 오늘 아침 그는 나탈리와 함께 늦게까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는 자신의 차량인 낡고 수리가 많이 된 천막 달린 수레의 좌석에 올라타서 채찍을 쏘아 올렸다.

"안녕히 계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의 세 발의 총소리가 제가 폼피냥 시장으로 가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저 천막 아래에 도살장을 기다릴 수 없는 송아지 두 마리가 있어요. 잘 가요, 동지 여러분."

우리는 다시 길을 재촉했다.

레닌이 부경에게 다가가 자신의 이름을 밝혔다.

"전 에를랭小姐의 친구입니다. 라 로니에르 마을 출신이죠. 아직 그녀 댁에 가는 게 이른 시간이라, 마뉴르를 들르는 길을 함께해 주실 수 있을까요? 에를랭小姐는 고른 부인하고도 친분이 있습니다. 마뉴르에서 별일 없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아무 일도 없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무슨 일이 있었다면요?" 병정이 대답했다. "눈 때문에 모든 흔적이 선명하니까요. 지도를 읽듯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젊고 친근한 인상의 남자가 보였다. 똑똑해 보였고, 상황 대처도 능숙했다.

그는 처음부터 눈치 빠르게 행동했다. 전날 밤 마티아스가 집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발자국을 찾아냈다. 그 발자국은 곧 농부의 딸과 하인이 오가며 남긴 발자국들과 뒤섞였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 한 영지의 담장 앞에 다다랐다. 자물쇠 공사가 손쉽게 문을 열었다.

이제 눈 덮인 길에 남은 발자국은 오직 마티아스의 것뿐이었다.

그는 쉽게 한 가지 사실을 알아챘다. 아들이 아버지의 술자리에 꽤 많이 참여했다는 점이었다. 발자국 줄기가 급하게 굽이치며 길에서 벗어나 길가에 서 있는 나무들 쪽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백 미터쯤 더 나아가자, '우물이 있는 저택'의 기와가 갈라지고 허물어진 건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메인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들어갑시다." 부장이 말했다.

문턱을 넘기도 전에 그는 중얼거렸다.

"오, 오! 고르네 할아버지가 안 온 게 잘못이었군. 여기서 싸움이 있었어."

큰 방은 엉망이었다. 의자 두 개가 부러졌고, 테이블은 뒤집혔으며, 도자기와 유리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격렬한 싸움이 있었

음을 말해주는 단서였다. 바닥에 쓰러져 있던 큰 시계는 열한 시 삼십 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농장 딸의 안내를 받아 일층으로 급히 올라갔다. 마티아스와 그의 아내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방 문은 망치로 깨져 있었다. 그리고 그 망치는 침대 밑에서 발견되었다.

레닌과 부사관은 다시 내려왔다. 부엌은 뒷쪽의 복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부엌에는 과수원에서 마련한 작은 울타리 공간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출구가 있었다. 그 울타리 끝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반드시 그 옆을 지나야만 했다.

그런데 부엌 문간에서 우물까지,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은 눈이 불규칙하게 쓸려 나갔다. 마치 누군가 시체를 끌고 간 자국처럼 보였다. 우물 주변에는 발자국이 뒤엉켜 있었다. 그곳에서 다시 몸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부사관은 마티아의 발자국을 찾아냈고, 그 외에도 새로 생긴, 더 우아하고 가는 발자국들도 발견했다.

그녀들은 홀로 과수원 안으로 사라져 갔다.

그리고 불과 서른 미터 떨어진 곳, 그녀들 근처에서 브라우닝 권총 한 자루가 수습되었다. 농부 중 한 명이 이 권총이 전전날 여관 밖에서 제롬 비니얄이 꺼내든 권총과 똑같다고 알아보았다.

병장이 탄창을 살펴보자, 일곱 발 중 세 발이 이미 발사된 뒤였다.

이렇게 사건은 큰 줄기부터 하나둘 재구성되어 갔다. 병장은 주변에 물러서 있을 것과 잔해가 있는 자리를 절대 훼손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우물가로 돌아갔다. 그는 몸을 숙여 농장 딸에게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뤼팽에게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꽤 명확해 보입니다."

뤼팽이 그의 팔을 잡았다.

"직설적으로 말합시다, 병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에르멜린 자매와 교류가 있고, 그녀는 제롬 비냐르의 친구이자 고른 부인도 알고 있으니 이 사안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추측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제 밤 누군가가 왔다는 사실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마노르로 향하는 발자국은 고른 씨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즉 더 우아한 부츠 자국을 남긴 사람은 눈이 내리기 전, 즉 아홉 시 이전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홀 한구석에 숨어 고른 씨의 귀가를 기다렸던 걸까요? 고른 씨는 눈이 내린 후에 왔으니까요."

"맞습니다. 마티아스가 들어오자마자 그 남자가 덤볐습니다. 몸싸움이 벌어졌고요. 마티아스는 부엌으로 도망쳤습니다. 그 남자는 우물가까지 쫓아와 권총을 세 번 쐈습니다."

"그리고 시체는?"

"우물 속에 있습니다."

레닌이 반박했다.

"오호, 너무 급하게 결론 내시네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눈이 증언하고 있으니까요. 눈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싸움과 세 발의 총성 이후, 농장을 떠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고요. 그 발자국은 고른의 마티아스가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고른의 마티아스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 우물… 수색이라도 해볼 수 있겠지요?"

"안 됩니다. 그 우물은 끝없이 깊은 곳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라, 이 저택을 지칭할 때 그 우물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다시 말하지만, 눈이 내린 뒤에는 도착자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마티아스였죠. 그리고 떠난 사람도 한 명. 바로 그 외국인이었습니다."

"고르네 부인도 살해당해, 남편처럼 추락사를 당한 건가요?"

"아닙니다. 납치당했습니다."

"납치?"

"방금 말한 방의 문이 망치로 부수졌던 기억나시죠?"

"잠깐만요, 병장. 당신도 방금 떠난 사람이 외국인 단 한 명뿐이라고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숙여 보세요. 이 남자의 발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눈 속에 얼마나 깊이 패여 있는지 보십시오. 땅바닥까지 뚫릴 정도로 깊습니다. 이는 무거운 짐을 진 남자의 발자국입니다. 외국인은 고르네 부인을 어깨에 업고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나가는 출구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마티아스 고르네가 항상 지니고 다니던 열쇠가 있는 작은 문이 있습니다. 아마 그 열쇠를 빼앗은 듯합니다."

"그 문은 시골로 통하는 출구인가요?"

"네, 그 길은 1,200미터쯤 가다 지방도로와 합쳐집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합쳐지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성 바로 옆에서죠."

"제롬 비냐르의 성이라니!"

레닌은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이봐, 상황이 심각해졌군. 만약 그 자국이 성까지 이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정체를 알았다고 봐도 무방해."

자국은 성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들은 눈이 쌓인 구불구불한 들판을 따라 자국을 쫓아간 끝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큰 철문 주변은 청소되어 있었지만, 다른 자국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바퀴 자국 두 개가 나 있었는데, 방향은 반대편인 마을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사가 종을 울렸다. 주랑도 이미 쓸어낸 집주인이 빗자루를 든 채 나타났다. 부사의 질문에 그는, 제롬 비냐르가 아무도 일어나기 전인 오늘 아침에 직접 수레를 매고 떠났다고 답했다.

레닌이 그들을 뒤로 하고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바퀴 자국을 따라가면 되겠군요."

"불필요합니다." 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들은 기차길을 이용했습니다."

"방금 온 폼피냐 역에서요? 그렇다면 그들은 마을을 지나쳤겠죠……"

"맞습니다. 그들은 다른 쪽으로 향했습니다. 급행 열차가 멈추는 중심지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검찰청이 있습니다. 제가 전

화로 연락하겠습니다. 중심지에서 오전 열한 시 이전에 출발하는 열차는 없으니, 역만 감시하면 됩니다."

"당신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소, 반장님. 뤼팽은 가니마르의 수사를 칭찬하며 말했다."

그들은 헤어졌다.

뤼팽은 라 로시에르 마을로 가서 오르탕스 다니엘을 만나려 했으나, 다시 생각해보니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 그녀를 만나지 않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마을의 여관으로 돌아가 그녀에게 편지를 보내었다.

"매우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의 편지를 읽으며 당신이 여전히 마음의 동요에 사로잡혀, 제롬과 나탈리의 사랑을 보호하려 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은 이 두 사람이 보호자의 조언을 구하지도 않은 채, 마티아스 드 고르네를 우물 바닥에 던져 넣고 도망쳤음을 시사합니다."

"방문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미궁에 빠져 있고, 당신 곁에서는 그 문제를 깊이 생각할 만큼의 정신적 여유가 생기지 않거든요."

시계는 열한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레닌은 등을 뒤로 깍고, 하얗게 눈 덮인 평원의 아름다운 풍경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시골 길을 거닐었다. 그는 다시 돌아와 점심을 먹었지만,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

다. 그의 주변에는 여관 손님들이 모여 사건의 전말을 수군거렸지만, 그는 그들의 수다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갔다. 꽤 오랜 시간 잠에 빠져 있었는데, 문 두드리는 소리가 그를 깨웠다. 그는 문을 열었다.

"당신! …당신이요…" 그가 중얼거렸다.

호르타스와 그는 몇 초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있었다. 만남의 기쁨을 방해할 어떤 생각이나 말도 끼어들 여지가 없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내가 온 게 옳았나요?"

"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기보다는 더 일찍 부르시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요. 사건은 기다려주지 않았잖아요. 제롬 비냐와 나탈리 드 고르네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신은 그 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녀가 재빨리 물었다.

"무슨 일을요?"

"그들을 잡았어요. 급행열차를 타고 가던 참이었죠."

레닌이 반박했다.

"잡혔다니…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잡히지 않아요. 먼저 심문을 해야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 당국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죠."

"어디서요?"

"성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무죄예요. 네, 물론 무죄죠? 당신도 나만큼이나 그들이 유죄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그가 대답했다.

"나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도 없습니다, 친애하는 친구여. 하지만 솔직히 말해 모든 것이 그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직 한 가지를 빼고 말입니다. 그 한 가지란, 모든 것이 너무도 그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토록 많은 증거가 한데 모인다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게다가 살인자가 자신의 범행을 이렇게나 솔직하게 털어놓는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죠. 그 외에는 어둠과 모순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저도 매우 난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무것도요. 아, 만약 내가 직접 그들, 제롬 비냐르와 나탈리 드 고른을 보고, 그들의 방어 변론을 직접 들어볼 수만 있다면!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가 그들을 심문하거나 심문 과정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어차피 이미 끝났을 테니까요."

"성에서는 끝났지만, 이제 마네르에서 계속될 겁니다."

"마네르로 데려간다는 말입니까?" 그가 급히 물었다.

"네. 파르케에서 온 두 운전수 중 한 명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군요!" 레닌이 외쳤다.

"마노르! 우리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앉게 되겠군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한 마디의 말, 한 번의 어조, 한 번의 눈 깜빡임만으로도 부족한 작은 단서를 찾아내는 것뿐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오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뤼팽은 아침에 자신이 걸었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그녀를 인도했다. 그 길은 대문 쪽으로 이어졌고, 자물쇠 공사가 열어둔 문이 그곳에 있었다.

영지에 남아 경계를 서던 헌병들은 눈밭을 헤치고 길을 내 놓았다. 발자국 자국 선을 따라, 집 주변을 두른 길이었다.

운이 좋게도 오르탕스와 레닌은 들키지 않은 채 가까이 다가가, 집 옆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안쪽 복도에는 부엌용 계단이 연결되어 있었다.

계단을 몇 단계 오르면 작은 방이 나왔다. 그곳에는 소위 '소 눈'이라 부르는 작은 원형 창이 하나 있었는데, 그 창으로 아래층의 넓은 방 안만 비추어졌다.

아침에 집을 둘러볼 때, 레닌은 이 창을 눈여겨보았다. 안쪽에는 천 조각으로 가려져 있었다.

그녀는 천 조각을 치우고, 유리창 한 장을 잘라냈다.

몇 분 후, 집 반대편, 우물 근처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리가 또렷해지자 여러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섰다. 일부는 1층으로 올라가고, 병장은 키만 보이는 젊은 남자와 함께 도착했다.

"제롬 비냐!" 오르탕스가 말했다.

"네." 레닌이 답했다. "먼저 고른 부인을 1층 방에서 심문합니다."

15분이 흘렀다. 1층 사람들이 내려와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검찰 대리, 서기, 경찰서장, 그리고 두 명의 형사들이었다.

고른 부인이 들어오고, 검찰 대리는 제롬 비냐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요청했다.

제롬의 얼굴은 호랑스가 편지에서 묘사했던 그 기개 넘치는 남자의 모습 그대로였다. 그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함과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다.

키가 작고 여리여리해 보였지만, 열정적인 눈빛을 지닌 나탈리는 오히려 차분하고 안도감을 주는 인상을 주었다.

부검관은 어지럽게 흩어진 가구들과 싸움의 흔적을 살피다가 나탈리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는 제롬에게 말했다.

"선생님, 지금까지는 질문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간이 수사와, 앞으로 검사장이 이어할 심문 과정에서, 왜 제가 당신과 고르네 부인을 여행 중단과 귀국을 요청했는지, 그 매우 중대한 이유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을 향해 쌓인, 정말로 불안한 혐의들을 반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보좌검사님," 제롬이 대답했다. "저를 몰아세우는 혐의들은 저를 크게 동요시키지 못합니다. 당신이 요구하시는 진실은, 우연히 저에게 쌓여가는 모든 거짓말보다 훨씬 강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뒤, 맑고 단호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고른 부인을 깊이 사랑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저는 그녀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품게 되었죠. 그 사랑은 얼마나 크고 격렬하든, 항상 오직 그녀의 명예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지배되어 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존경합니다.

그녀가 이미 당신에게 말했을 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른 부인과 저는 오늘 밤, 처음으로 서로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더 낮은 목소리로 계속했다.

"그녀가 더 불쌍할수록, 나는 그녀를 더 존중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그녀의 삶은 매순간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잔인한 증오와 격분한 질투로 그녀를 괴롭혔요. 하인들에게 물어보세요. 나탈리 드 고른이 겪은 고난과 그녀가 맞은 구타, 그리고 견뎌야 했던 모욕들을 말해 줄 겁니다. 저는 바로 그 고난을 끝내려 했습니다. 불행과 불의가 극에 달했을 때,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구제의 권리를 사용한 것이죠.

저는 세 번이나 구 고른 씨에게 경고했습니다. 중재해 달라고 간청했죠. 하지만 그는 며느리에 대해 거의 같은 수준의 증오를 보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아름다움과 고결함에 느끼는 바로 그 증오였어요. 그때 저는 직접 행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마티아스 드

고른을 찾아가… 다소 이례적인 방법을 시도했죠. 하지만 그 인물이니만큼, 그 방법은 성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검관님, 저는 마티아스 드 고른과 대화할 의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일부 세부 사항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그를 효과적으로 압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우위를 활용해 제 목적을 달성하려 했습니다. 일이 다르게 흘러간다면, 전 그 책임의 전부를 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9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집에 없었습니다. 마티아스 자신이 문을 열어주었죠. 그는 혼자였습니다."

"선생님." 부검관이 말을 끊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고른 부인 방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명백히 진실과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마티아스 드 고른은 어제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건 두 가지 확실한 증거로 입증됩니다. 첫째는 그의 아버지 증언이고, 둘째는 9시 15분부터 11시까지 내린 눈 위에 남은 그의 발자국입니다."

"부검님." 제롬 비니알은 자신의 완고함이 주는 불쾌한 인상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선언했다. "저는 사건을 해석한 방식이 아니라, 그대로 일어났던 그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제가 이 방에 들어갔을 때, 이 시계는 정확히 9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공격을 받은 줄 알았던 고른 부인은 이미 총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리볼버를 테이블 위에, 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올려놓고는 앉았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각하.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는 움직이지도, 입도 뻐긋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말을 이었다.

준비해 둔 짧은 문장들을 곧장 내뱉었다. 전후 설명 없이, 내 제안의 거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식으로.

"각하, 지난 몇 달 동안 각하의 재정 상황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모든 땅에 저당권이 걸려 있습니다. 만기가 다다랐어 갚을 수 없는 어음도 여러 장 서명하셨죠. 아버지 쪽에서는 아무 기대도 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이미 건강이 매우 나빠졌으니까요. 결국 각하는 망합니다. 제가 각하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가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말이 없던 그는 자리에 앉았다. 그 동작은, 그렇지 않은가, 내 제안을 그가 그리 싫어하지 않는다는 뜻이었다.

그때 나는 주머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여기 육만 프랑입니다, 선생님. 저는 우물이 있는 저택과 그 부속 토지를 사겠습니다. 담보 대출은 제가 짊어집니다. 이 금액은 이 재산의 실제 가치의 정확히 두 배입니다."

그의 눈이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가 속삭였다.

"조건은?"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미국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보좌검사님, 우리는 두 시간 동안이나 담판을 벌였습니다. 제 제안이 그를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은 아닙니다. 만약 상대를 잘 알지 못했다면, 저는 그 제안을 걸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그는 더 많은 것을 원했고, 치열하게 협상했습니다. 다만 그는 고르느 부인의 이름을 일절 꺼내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사소한 분쟁에서 타협점을 찾아보려는 두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 여인의 운명과 행복이 걸린 문제였죠. 결국 지친 그는 타협안을 받아들였고, 우리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합의를 즉시 확정짓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두 통의 편지를 교환했습니다. 한 통은 그가 만유저택을 제게 넘기고 대금을 받는다는 내용이었죠. 다른 한 통은 그가 즉시 주머니에 넣은 편지로, 이혼 판결이 내려지는 날 미국으로 동일한 금액을 송금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이 이렇게 결론 났다. 그 순간, 그는 진심으로 내 편이 되어주었을 것이다. 나를 적이나 라이벌로 여기기보다, 그저 도움을 주는 한 사람으로 여겼다.

그는 내가 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골 쪽 작은 문을 여는 열쇠까지 건넸다.

하지만 불행히도, 모자와 코트를 챙기던 순간,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 그가 서명한 매매 계약서를 책상 위에 둔 채로 둔 것이다.

마티아스 드 고르네는 그 실수를 단박에 눈치챘다. 자신의 재산을, 아내를, 그리고 돈까지 모두 손에 쥘 수 있는 기회였다.

그는 재빨리 계약서를 숨겼다. 그리고 총의 개머리판으로 내 머리를 내려쳤다. 총을 던져버린 그는 두 손으로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계산이 빗나갔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 끝에, 그는 나의 힘에 눌렸다. 나는 그를 제압하고, 구석에 널려 있던 밧줄로 묶어 버렸다.

"보좌 검사님, 제 상대의 결정이 급작스러웠다면, 제 결정도 결코 느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제안을 받아들인 이상, 저는 그에게 약속을 지키게 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저에게 관련된 범위 안에서는요. 몇 번의 도약으로 저는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고른 부인이 여기 있을 거라고, 그리고 우리 대화의 소리를 들었을 거라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을 비추며 저는 세 개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번째 방은 자물쇠로 잠겨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어떤 장애물도 막지 못하는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한 방에서 망치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문을 부수었습니다."

나탈리 드 고른이 그곳에 있었다.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은 채.

나는 그녀를 안고 내려와 부엌을 지나 밖으로 나섰다. 눈이 내린 뒤라 내 발자국은 쉽게 찾아낼 수 있겠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피해야 할 상대는 마티아스 드 고른이 아니었다. 6만 프랑의 현금을 내 손에 쥔 나는, 이혼 날 그녀에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서약서가 적힌 종이의 주인이기도 했다. 고른 영지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는 곧 떠날 테고, 나탈리 드 고른은 내게 남을 것이다.

우리의 관계에 바뀐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었다. 더 이상 그의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것. 대신 내가 노리던 귀중한 담보를 단숨에 손에 넣었다.

따라서 내가 두려워한 것은 마티아스의 역공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탈리의 질책과 분노였다. 그녀가 포로가 된 뒤,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저를 꾸짖지 않으신 이유를, 부검관閣下, 고른 백작 부인께서 이미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부릅니다. 어제 밤, 감격에 몸이 떨리던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사랑했고, 저도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아침 다섯 시에 함께 떠났습니다. 법정이 우리를 추궁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제롬 비냐르의 진술이 끝났다. 그는 마치 외워 둔 대본을 읽듯,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말을 쏟아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이 숨어 있던 좁은 공간에서 오르탕스와 레닌은 그 모든 말을 놓치지 않았다. 젊은 여성이 속삭였다.

"모두 가능하고, 무엇보다 논리적입니다."

"하지만 반박할 거리도 남았습니다." 레닌이 말했다. "들으십시오. 매우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특히 한 가지가…"

검사의 대리인이 곧장 그 점을 지적했다.

"그런데 고른 가문은요?"

"마티아스 드 고른?" 제롬이 물었다.

"네, 당신은 매우 진심 어린 어조로 일련의 사실을 내게 말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당신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잊고 있습니다. 마티아스 드 고른의 행방은요? 당신은 그를 이 방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그는 이 방에 없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대리님. 마티아스 드 고른이 결국 거래를 받아들이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아마도 아버지 집으로 가는 길로 갔겠죠."

"그의 발자국은 어디 있소? 우리 주변을 덮고 있는 이 눈 덮인 땅은 편견 없는 증인이오. 그와 맞서 싸운 후, 눈 위에서는 당신이 멀어지는 모습이 보였소. 그런데 왜 그 남자는 보이지 않소? 그는 왔지만 돌아가지 않았소. 그는 어디에 있단 말인가? 흔적 하나도 없소. 아니, 오히려…"

대검사는 목소리를 낮췄다.

"아니, 오히려 우물길과 우물 주변에 몇몇 자국이 있소. 그곳에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졌음을 증명하는 자국들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더 이상 아무것도 없었소."

제롬은 어깨를 으쓱였다.

"대검사님, 그건 이미 말씀하셨소. 그것은 나를 살인죄로 몰아세우는 것이오. 나는 그것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소."

"우물에서 서른 미터쯤 떨어진 곳에서 당신의 권총이 수거된 사실에 대해서는 대답하시겠소?"

"그것도 마찬가지요."

"그리고 밤에 들린 세 발의 총성과, 당신의 권총에서 빠져 나간 세 발의 총알이라는 기묘한 일치점 말입니다."

"아닙니다, 부검검사님. 우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우물 옆에서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진 적은 없습니다. 제가 고른 씨를 이 방에 묶어둔

채로 나갔고, 제 권총도 그대로 남겨뒀으니까요. 게다가 만약 총성이 들렸다면, 그것은 제가 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연의 일치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사법부가 설명해야 할 일입니다. 제 유일한 의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뿐이며, 우께서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 진실이 관찰된 사실과 모순된다면요?"

"그렇다면 사실 쪽이 잘못된 것입니다, 부검검사님."

"좋습니다. 하지만 사법부가 당신의 주장과 저의 진술을 대조해 합치될 때까지는, 제가 당신을 검찰청의 기소에 대비해 감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겠소."

"고르네 부인은요?" 제롬이 초조하게 물었다.

보좌 검사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먼저 치안 판사와 대화를 나누더니, 그중 한 명에게 두 대의 자동차 중 한 대를 앞으로 불러오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나탈리에게로 돌아섰다.

"부인, 비니알 씨의 진술을 들으셨죠. 그 내용은 부인의 진술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특히 비니알 씨는 자신을 데려갈 당시 부인이 의식을 잃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식 상실이 이동하는 동안에도 계속되었나요?"

제롬의 냉정함이 다시 한 번 젊은 여성의 자신감을 다져 준 듯했다. 그녀가 대답했다.

"전 성에서 깨어났어요, 선생님."

"그건 정말 기이하군요. 마을 대부분이 들은 세 번의 총성도 못 들으셨습니까?"

"들리지 않았어요."

"우물 근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보지 못하셨나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제롬 비냐가 그렇게 증언하니까요."

"그럼 당신의 남편은 어떻게 된 거죠?"

"모르겠어요."

"자, 부인. 적어도 추측이라도 좋으니 저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사고였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른 후작이 아버지를 만나고 평소보다 술을 더 마셔서 균형을 잃고 우물 안으로 떨어졌다고요?"

"남편이 아버지 댁에서 돌아왔을 때, 그는 전혀 취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증언했어요. 아버지와 그분이 함께 와인 병을 두세 개나 비웠다고요."

"아버지가 착각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눈은 착각하지 않습니다, 마담." 부검관은 성질을 내며 말했다. "눈에 남은 발자국들은 모두 구불구불합니다."

"제 남편은 눈이 내리기 전에, 여덟 시 삼십 분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부검관이 주먹을 쥐어 쥐었다.

"도대체 마담, 명백한 사실과도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 눈은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 눈이 남긴 흔적, 즉 눈 위의 발자국 하나하나가 당신의 말과 모순된다고요.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눈 위의 발자국이라니… 눈 위의 발자국이라고!"

그는 화를 억눌렀다.

자동차가 창문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급작스러운 결정을 내린 듯 나탈리에게 말했다.

"마담, 당신께서는 사법 당국의 요구에 응하시고, 이 저택에서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는 병장을 손짓해 제롬 비냐를 자동차로 데려가게 했다.

두 연인의 패배는 확정되었다. 겨우 재회한 그들은 곧장 헤어져, 서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장 불리한 혐의와 맞서 싸워야 했다.

제롬이 한 걸음 나뻐 나탈리 쪽으로 다가섰다. 두 사람은 고통스러운 눈빛으로 오랫동안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인 뒤, 헌병대 병장을 따라 출구 쪽으로 걸어갔다.

"멈춰!"

어딘가에서 외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병장, 돌아서! 제롬 비냐, 조금도 움직이지 마!"

당황한 부검사는 고개를 들었다. 다른 인물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다. 목소리는 방 위쪽에서 들려왔다. 소용돌이 창문이 열렸고, 레닌이 그쪽으로 몸을 내밀며 팔을 휘저었다.

"저는 제 말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몇 가지 지적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발자취의 굽이굽이와 관련해 말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마티아스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돌려 다리를 구멍 밖으로 내밀며 말했다. 놀라 어쩔 줄 모르던 오르랑스가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을 방해하러 올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는 손을 놓더니 방 안으로 떨어졌다.

보좌 검사장은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도대체, 선생님, 어디서 오신 겁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레닌은 먼지가 묻은 옷을 털며 대답했다.

"용서하십시오, 대리 검사님. 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야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죠. 게다가 천장에서 떨어지는 대신 문으로 들어왔다면, 제 말은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대리 검사는 분노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당신은 누구요?"

"레닌 공작입니다. 오늘 아침 경사의 수사를 따라다녔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사님? 그 이후로 저는 계속 조사하고 정보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 심문에 참석하고 싶어서, 작은 방 한구석으로 숨어들었던 겁니다."

"당신이 거기 있었단 말요! 감히 그런 모험을!"

"진실을 밝히려 할 때는 과감해야 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제게 마지막으로 부족하던 단서를 얻지 못했을 겁니다. 마티아스 드 고르네가 전혀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테니까요. 바로 그 점이 수수께끼의 해답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보좌검사는 매우 난처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수사 비밀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침입자를 상대로 행동하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는 투덜거렸다.

"이쯤에서 끝내죠. 뭘 원하시나요?"

"잠시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왜요?"

"비뇰 씨와 고르네 부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차분한 표정, 그리고 특별한 순간마다 찾아오는 특유의 나태한 태도를 띠고 있었다. 바로 행동의 순간, 그리고 드라마의 결말이 오직 자신에게 달렸을 때의 태도였다.

호르랑스는 몸이 떨렸다. 즉각적인 믿음에 사로잡혀서였다.

'저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녀는 감격에 찬 마음으로 생각했다. '저에게 그 여자를 보호해 달라고 간청했잖아요. 그리고 그는 그 여자를 감옥과 절망에서 구해냈어요.'

제롬과 나탈리 역시 같은 희망의 느낌을 받았을 것이다. 그들이 서로를 향해 다가갔기 때문이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이 낯선 남자가, 두 사람이 손을 맞잡을 권리를 주었다고 믿는 듯했다.

보좌 검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무죄는, 때가 되면 수사국이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당신도 소환될 테니까."

"지금 바로 확인하는 게 좋겠소. 늦어지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소."

"저는 시간이 촉박한데요…"

"두세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복잡한 일을 두세 분 만에 설명한다니요?"

"그 이상은 필요 없소."

"그럼 그 일을 아주 잘 아시는군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많이 생각했거든요."

보좌 검사관은 이 남자가 한번 물면 놓지 않는 타입이라는 걸 깨달았다. 어쩔 수 없이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그는 약간 비꼬는 듯한 어조로 물었다.

"당신의 생각 끝에, 지금 마티아스 드 고른 씨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겠소?"

레닌은 시계를 꺼내며 대답했다.

"파리입니다, 보좌 검사님."

"파리? 그럼 아직 살아 있다는 뜻이오?"

"그렇습니다. 살아 있고, 더구나 건강이 아주 좋습니다."

"그건 반갑군요. 하지만 우물 주변을 배회하던 발소리, 권총의 존재, 그리고 세 발의 총성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단순히 연출일 뿐입니다."

"아, 그렇군요. 누가 이런 연출을 꾸몄다는 거죠?"

"마티아스 드 고른 자신입니다."

"이상하군요. 도대체 무슨 목적에서요?"

"자신이 죽은 것처럼 위장하고, 필연적으로 비니알 씨를 그 죽음, 즉 살인죄의 용의자로 몰아세우기 위해서죠."

"상상력이 풍부한 가설이군요." 부검 검사장이 여전히 비꼬는 듯한 어조로 동의했다. "비니알 씨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롬이 대답했다.

"그것도 제가 먼저 생각해 본 가설입니다, 부검사님. 우리 몸싸움과 제가 떠난 뒤, 마티아스 드 고르네가 새로운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번엔 그의 증오심이 더 크게 작용했겠죠. 그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증오했습니다. 그는 복수를 저질렀을 것입니다."

"그 복수는 그에게 큰 대가를 치르게 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티아스 드 고르네는 당신으로부터 6만 프랑을 추가로 받아야 했으니까요."

"그 돈은 부검사님, 그는 다른 곳에서 회수했습니다. 고르네 가문의 재정 상황을 조사해 보니,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를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이 죽거나 죽은 것으로 간주되면, 아버지는 그 보험금을 수령하고 아들에게 그 보상을 해줄 수 있었죠."

보좌 검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무대 장치는, 고르네 부자가 아들의 공범이라는 뜻이군요."

레닌이 즉각 반박했다.

"바로 그겁니다, 보좌 검사님. 부자가 한통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을 아버지의 집에서 찾게 되겠군요?"

"오늘 밤에는 그곳에서 찾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퐁피냐트행 기차를 탔습니다."

"다 추측일 뿐입니다!"

"확신입니다."

"도덕적 확신일 뿐이지, 단 한 줄기의 증거도 없습니다. 인정하시죠…"

보좌 검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자신이 지나치게 선의의 노력을 보였다고 판단했고,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고 여겼다. 그는 증언을 끝내기로 했다.

"증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모자를 들며 다시 말했다. "게다가 무엇보다도, 당신의 말에는 그 냉혹한 증인인 '눈'의 주장을 조금이라도 반박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마티아스 드 고르네가 아버지 댁으로 가려면, 여기서 나와야 했을 겁니다. 어디로요?"

"음, 비냐르 씨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아버지 댁으로 이어지는 길로 갔겠죠."

"눈에는 발자국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여기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건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같은 말이라는 거죠?"

"물론입니다. 걷는 방법에는 한 가지뿐이 아닙니다. 항상 앞만 보고 걷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럼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전진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후진하는 것입니다, 부검관閣下."

간결하게 내뱉은 이 짧은 말들은, 음절을 또렷이 떼어 발하는 날카로운 어조 때문에 큰 침묵을 자아냈다. 그 의미의 깊이를 사람들은 곧장 깨달았다. 그리고 그 진실을 현실에 비추어 보자,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는 그 해답이 번개처럼 눈앞에 드러났다.

레닌은 확신을 더하며, 창문 쪽으로 뒤로 물러서며 말했다.

"제가 이 창문에 가까이 가려면, 당연히 정면을 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리고 뒤로 걷는 방법도 있죠. 두 경우 모두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리고는 곧장 목소리를 높여 다시 말했다.

"요약하겠습니다. 오후 여덟 시 삼십 분, 아직 밤이 내리기 전, 드 고른 씨가 아버지 댁을 방문했습니다. 눈이 아직 내리지 않았으니, 그의 발자취는 아무데도 남아있지 않겠죠. 오후 아홉 시 십 분, 비니알 씨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도착한 흔적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두 남자는 이야기를 나누고,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다 싸움이 붙었고, 마티아스 드 고른은 패배했습니다. 이렇게 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때 비니알 씨는 드 고른 부인을 납치해 도망쳤습니다. 분노에 찬 마티아스 드 고른은, 갑자기 가장 잔혹한 복수를 떠올렸습니다. 지금 증언으로 인용되는 그 눈이 세 시간 동안 땅을 덮고 있었다는 사실을 역으로 이용해, 적을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살해, 혹은 우물 바닥으로 추락한 듯한 '살해의 현상'을 연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꾸로 뒤를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하얀 눈 위에 자신의 '도착'을 새긴 것이죠. '출발'이 아니라 '도착'을.

제가 명확하게 설명했나요, 대리 검사님? 눈 위에 자신의 '도착'을 새긴 것이죠."

대리 검사는 비웃는 소리를 멈췄다. 이 귀찮고 기이한 남자가 갑자기 주목할 만한 인물로 느껴졌다. 그를 조롱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가 물었다.

"그가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떠났습니까?"

"당연히 마차로요."

"누가 운전했습니까?"

"아버지였죠."

"어떻게 아십니까?"

"오늘 아침, 부경사와 저는 마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도交谈했습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시장으로 가던 참이었죠. 아들은 천막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퐁피냐트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지금은 파리에 있습니다."

르닌의 설명은 그가 약속했던 대로, 고작 다섯 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오직 논리와 타당성만을 근거로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짓눌렀던 그 끔찍한 미스터리는 단숨에 사라져 버렸다. 어둠이 걷히고 모든 진실이 드러난 것이다.

고르네 부인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제롬 비냐르는 마법 지팡이 한 방으로 사건의 흐름을 뒤바꿔 준 그 선한 영혼에게 감격에 찬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부검관님, 함께 이 발자국을 살펴볼까요?" 레닌이 다시 말을 이었다. "오늘 아침, 나랑 부지장 경감이 저지른 실수는 가짜 살인범이 남긴 발자국에만 집중하고, 마티아스 드 고르네의 발자국은 무시했다는 점입니다. 왜 우리가 그의 발자국에 주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지점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과수원으로 나가 트랙 쪽으로 다가가 있었다. 오래 살펴보지 않아도 충분했다. 수많은 발자국이 왼쪽으로 기울어 있고, 주저앉은 듯했으며, 발뒤꿈치나 발끝 부분이 너무 깊게 패여 있었다. 게다가 발등이 벌어진 각도도 제각각이었다.

"피할 수 없는 실수였죠." 레닌이 말했다. "마티아스 드 고르네는 거꾸로 걷는 법을 제대로 배워야 앞걸음과 뒷걸음이 일치했을 테니까요. 아버지도 아들도 그 사실을 어렴풋이 느꼈을 겁니다. 특히 지그재그로 남은 발자국을 보면 더더욱요. 고르네 부인은 아들이 지나치게 술을 마셨다고 순경에게 미리 알렸으니까요."

레닌이 덧붙였다.

"그 거짓말이 바로 저를 순식간에 깨우치게 했죠. 고르네 부인이 남편이 취하지 않았다고 단정하자, 저는 발자국을 떠올렸고 모든 단서가 연결되었습니다."

보좌 검사는 아랑곳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이제 가짜 죽은 자를 쫓는 형사를 배치할 일만 남았군요."

"무슨 근거로 그러십니까, 대리 검사님?" 레닌이 물었다.

"고르네의 마티아스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우물 주변을 거닐고, 총을 소지하지도 않은 자신의 권총을 멀리 옮겨 놓으며, 세 발을 쏘고,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거꾸로 물러나간 것, 이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뭘 따져 물어야 합니까? 6만 프랑을 돌려달라는 건가요? 비냐르 씨가 그런 의도는 아닐 테고, 고소도 하지 않겠죠?"

"물론입니다." 제롬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생존자를 위한 보험금 말입니까? 하지만 아버지가 그 돈을 청구해야만 죄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그 노인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그분이 오시네요. 바로 확인해 봅시다."

고르네의 노인은 손짓을 하며 정말로 도착했다. 그의 통통한 얼굴에는 슬픔과 분노가 섞여 주름을 잡았다.

"내 아들이? 그가 죽였다는 거야… 내 불쌍한 마티아스가 죽다니! 아, 저 악당 비냐르!"

그리고 그는 제롬을 향해 주먹을 내저었다.

보좌 검사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고르네 씨,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특정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요, 노인은 억지로 대답했다."

"아들께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들께서 작은 꾀를 부릴 때 동조자로서, 그분을 천막 밑에 숨겨 역으로 모셨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 남자는 땅에 침을 뱉었다. 그리고 엄숙한 서약을 하려는 듯 손을 내밀었다. 잠시 움직이지도 않다가, 이내 태도를 바꿨다.

순간적으로 발을 돌려, 천진난만한 냉소로 얼굴을 풀고 화해하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고는 폭소를 터뜨렸다.

"망할 매튜! 그러니까 죽은 척을 하려던 거였나? 썩은놈! 혹시나 내가 보험금을 받아 그에게 보내줄 줄 알았나? 내가 그런 더러운 짓을 할 놈이라고 생각했나? … 너는 나를 아직 모르네, 친구야."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는 듯 신나게 웃으며 몸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걸음을 떼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남긴, 그를 증언하는 발자국 위에 자신의 굵은 못신 발자국을 하나하나 정확히 덮어씌우는 것이었다.

그때가 되어서야 르닌은 오르탕스를 구출하러 자택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젊은 여성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르닌은 친척인 에르멜린 부인 댁을 찾았다. 오르탕스는 자신을 만나지 못해 죄송하다며, 몸이 좀 피곤해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답장을 보냈다.

'좋아, 상황은 순조로워. 그녀가 나를 피하는 걸 보면, 분명 나를 사랑하는 게 틀림없지. 결말이 가까워지고 있어.'

제8장 - '머큐르의 신에게'

제8화 메르쿠리우스 신에게

라시니에르, 바시쿠르 주소 드니엘 부인께

11월 30일

“소중한 친구여,”

서한이 두 주째 끊겼다. 12월 5일까지는 다시는 편지를 받지 못할 것 같다. 그날을 우리 관계의 종결일로 정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제 너는 더 이상 너의 동의가 없는 계약에서 벗어날 테니까.

나에게 있어 우리가 함께 치르고 이겨낸 일곱 번의 전투는 무한한 기쁨과 고揚의 시간이었다. 나는 너와 함께 살았다. 너에게 더 활발하고 감동적인 삶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몸소 느꼈다.

나의 행복은 너무 커서, 너에게 내 속마음을 드러낼 엄두를 내지 못했다. 너에게 보인 것은 오직 너를 기쁘게 하려는 마음과 열정적인 헌신뿐이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여, 너는 더 이상 너의 동지인 나를 원치 않는구나. 네 뜻대로 하라.

"물론 그 판결에 복종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모험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힘을 다해 이루려 했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제가 기억하는 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날 당신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도 좋겠습니까?"

당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옛날 여자 옷잠금장식(코르사주 앵클레) 하나를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그 장식품은 카르넬리안(마노)을 세공한 실로 만든 테두리에 박아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어머니께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 장식품이 어머니에게 행운을 가져다주었고, 나에게도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장식품이 넣혀 있던 상자에서 사라진 이후, 저는 불행해졌습니다. 행운의 신이시여, 그 장식품을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그 클립이 사라진 시기에 대해 제가 묻자, 당신은 웃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6년 전인가, 7년 전인가, 혹은 8년 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그건 사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을 던져您在 도전하는 것이 아니었나요? 하지만 저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싶습니다.

당신의 안전을 위해 제가 바라는 그 작은 부적(탈리스만)이 없다면, 제가 보여주고자 했던 삶의 긍정적인 면모는 무의미해질 것입니다. 그런 작은 미신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종종 우리의 가장 선한 행동은 바로 그런 것들에서 비롯되니까요.

친애하는 친구여, 만약 당신이 나를 도와줬다면, 이번에도 승리는 우리 것이었을 거야. 하지만 나는 혼자였고, 날짜가 다가오는 압박감에 시달리며 실패하고 말았지.

다만, 내가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린 것은 아니야. 상황을 잘 정리해 두었으니, 당신이 이 일을 이어받아 추진한다면 성공할 확률은 매우 높아.

당신은 이 일을 계속 이어갈 거지, 그렇지?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약속을 지키야 해. 정해진 시간 안에, 우리 삶의 기록장에 여덟 편의 멋진 이야기를 남겨야 해. 그 이야기들에는 에너지와 논리, 끈기가 담겨야 하고, 때로는 교묘함이나 약간의 영웅심도 필요하지.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야. 당신이 움직여야 해. 12월 5일까지, 시계의 여덟 번째 타종 소리가 울리기 전에 이 이야기가 반드시 자리를 잡도록 말이야.

그리고 그날, 당신은 제가 말씀드릴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선, 제 지시가 허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모든 지시는 성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먼저, 사촌의 정원에서 가느다란

부들 세 줄기를 잘라내십시오. 그 줄기를 서로 엮어, 마치 아이들의 채찍처럼 손으로 만든 채찍을 만들어야 합니다.

파리에서는 자켓으로 만든 구슬 목걸이를 사십시오. 다듬어진 facets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 목걸이를 줄여, 거의 같은 크기의 구슬이 칠십오 개가 되도록 하십시오.

겨울 코트 안에는 파란 양모 드레스를 입으세요. 모자는 붉은빛 나뭇잎 장식이 달린 토카 모자를 쓰세요. 목에는 수탉 깃털로 만든 보아를 두르세요. 장갑은 끼지 마세요. 반지도 빼세요.

오후에는 좌안(左岸)으로 차를 타고 성 에티엔 뒤 몽 교회까지 가세요. 오후 4시 정각, 그 교회 성수대 앞에 검은 옷을 입은 노인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그 노인은 은색 rosary를 손에 쥐고 있겠지요. 그녀가 성수를 건네면, 당신의 목걸이를 건네세요. 그녀는 구슬 수를 세어 다시 건네줄 겁니다.

그 후, 그녀를 따라가세요. 센 강 한쪽 다리를 건너 성 루이 섬의 한적한 거리로 들어갈 겁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당신을 한 집 앞까지 데려다줄 테고, 당신은 혼자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 집 지하실에 가면 아직 젊고 피부가 까무잡잡한 남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외투를 벗고 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제 코르셋 버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의 당황과 공포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는 차분하게 행동하십시오.

그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거나, 왜 그에게 다가섰는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묻는다면 아무 설명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대답은 다음 짧은 문장들로만 충분합니다.

"제 것을 찾으러 왔습니다. 당신을 모릅니다. 당신의 이름도 모르지만, 이 일을 피할 수 없습니다. 제 코르셋 버클을 되찾아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당신이 그 태도를 끝까지 굽히지 않고 견뎌낸다면, 이 남자가 어떤 연기를 펼치든 당신은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싸움은 짧고 빨라야 합니다. 승패는 오직 당신의 자신감과 성공에 대한 확신에 달려 있습니다.

이건 마치 권투 경기와 같습니다. 당신은 상대를 첫 라운드에 쓰러뜨려야 합니다.

당신이 차갑고 단호하게 임한다면 승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저하고 불안해한다면, 당신은 그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곤경에 처했다가도 이내 기세를 회복해 다시 우위에 서고, 몇 분도 안 되어 당신은 패배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즉각적인 승리, 아니면 패배뿐입니다.

이 경우,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제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친구여, 저는 어떠한 조건도 없이 이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해드린 일과 앞으로 해드릴 모든 일이, 오직 당신께 감사드리고 당신을 위해 더 헌신할 권리만 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당신은 제 모든 기쁨이자 생명이니까요.

이 편지를 읽은 후, 오르탕스는 resolution을 다짐하며 말했다.

"나는 가지 않을 거야."

먼저, 그 보석은 예전에는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다주는 부적처럼 느껴질 만큼 소중했지만, 시련의 시기가 끝났다고 생각한 지금에는 더 이상 큰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그녀는 '8'이라는 숫자를 잊을 수 없었다. 이 숫자는 새로운 모험의 순번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에 뛰어드는 것은 끊어졌던 사슬을 다시 잇는 일이었다. 그것은 레닌에게 다가가고, 그의 교묘한 술수로 잘 이용될 한 방패를 건네는 일과도 같았다.

정해진 날의 이틀 전, 그녀는 여전히 같은 마음가짐이었다. 전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갑자기, 잠시 망설일 틈도 없이 그녀는 정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평소 어린 시절 하던 대로 부들 세 줄기를 잘라 엮었다. 정오가 되자 그녀는 기차에 몸을 맡겼다.

열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들쳐 올렸다. 레닌이 건넨 이 모험이 선사할 재미있고 새로운 감각들을 거부할 수 없었다. 정말로 너무 유혹적이었다. 자이 코르셋 목걸이, 가을 단풍이 수놓인 토크, 은 rosary를 든 노부인…… 어떻게 신비로움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겠는가. 또 어떻게 레닌에게 자신이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지 보여줄 이 기회를 외면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된다는 거지?' 그녀가 웃으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파리에서 나를 부르다니. 내게 여덟 번째 시계 소리는 위험한 신호일 뿐이지. 그 소리는 파리에서 백 리나 떨어진, 할랭그르의 낡고 버려진 성 깊숙이에서만 나를 위협해.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시계 하나도 그곳에 갇혀 있고, 자유가 없단 말이지.'

그녀는 저녁 무렵 파리에 도착했다. 12월 5일 아침, 그녀는 재로 만든 목걸이를 사서 구슬을 여든아홉 개에서 쉰여섯 개로 줄였다. 파란색 드레스에 붉은 단풍잎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쓰고, 오후 4시 정각에 생에티엔뒤몽 성당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이번엔 그녀가 혼자였다. 그리고 이제야 그녀는 자신이 어떤 도움을 포기했는지 깨달았다. 그것은 이성보다는 무모한 두려움 때문에였다. 하지만 그 도움의 힘은 실감났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를 볼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검은 옷을 입은 노부인 한 명만 성수대에 서 있었다.

오르탕스는 그 노부인 쪽으로 걸어갔다. 노부인은 손가락 사이로 은색 구슬이 달린 rosary를 쥐고 있었다. 그녀는 성수를 권했고, 오르탕스가 건네준 rosary의 구슬을 하나하나 세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일흔다섯. 잘했소. 오시오."

그녀는 말 없이 가로등 불빛을 따라 작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투르넬 다리를 건너 생루이 섬으로 들어섰다.

그리고는 한적한 거리를 따라 걸었다. 그 길은 그녀를 한 사거리로 이끌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멈춰 섰다.

대철제 발코니가 달린 오래된 집 앞이었다.

"들어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노부인은 사라졌다.

호르타스 눈앞에 눈부신 간판이 달린 가게가 나타났다. 가게는 지하실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고, 전기 불빛이 번쩍이는 창문 너머로 낡은 가구와 잡동사니가 어지럽게 쌓여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서서, 눈은 먼 곳을 보듯 어렴풋이 가게를 바라보았다. 간판에는 '메르쿠르 신상(Au dieu Mercure)'이라는 문구와 상인 이름 '판카르디'가 적혀 있었다.

그 위, 1층 바닥을 감싸고 있는 돌출부에는 작은 신전 같은 공간이 있었다. 그곳에는 점토로 만든 메르쿠르상이 한 발을 들어 올리고, 발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 있었다. 호르타스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이 신이 너무 앞으로 쏠려 있어서, 달리는 도중 균형을 잃고 거리로 툭 떨어질 법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래, 들어가자."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손잡이를 잡고 안으로 들어섰다.

문과 종소리가 울렸지만, 그를 맞이하러 나서는 이 없었다. 가게 안은 텅 빈 듯했다. 하지만 끝자락에는 뒷간이 있었고, 그 뒤로도 또 다른 방이 이어져 있었다. 그곳에는 보석 같은 소품들과 가구가 가득 차 있었다. 그중 상당수는 엄청난 가치를 지녔을 터였다.

호르타느는 두 벽면 사이에 얽힌 좁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벽면은 찬장과 콘솔 테이블, 서랍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두 계단을 올라 마지막 방에 들어섰다.

한 남자가 책상 앞에 앉아 장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말했다.

"곧 오겠습니다. 부인은 구경하셔도 됩니다."

방 안에는 특별한 종류의 물건들만 가득했다. 마치 중세의 어느 연금술사 실험실 같았다. 표본화된 부엉이와 해골, 두개골, 구리 증류기, 별자리 측정기 등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출처가 제각각인 부적들이 매달려 있었다. 그중에는 두 손가락을 세워 나쁜 기운을 막는 상아 손과 산호 손이 특히 눈에 띄었다.

"무엇이 필요하신가요, 마담?"

판카르 씨가 서랍장을 닫고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물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오르탕스는 생각했다.

사실 그의 피부는 유난히 누렇게 빛났다. 회색빛 수염 끝이 두 갈래로 갈라진 턱수염이 그의 얼굴을 길게 보이게 했고, 그 위에는 광기 어린 광대한 이마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이마 아래쪽, 피부 바로 위에는 초조하고 피하는 듯한 작은 눈두덩이가 빛나고 있었다.

호르타느는 베일도, 코트도 벗지 않은 채 대답했다.

"저는 가슴 장식 버클을 찾고 있어요."

"여기 진열장이 있습니다." 그가 그녀를 중간 가게 쪽으로 이끌며 말했다.

그녀는 진열장 쪽으로 한 번 눈을 돌린 뒤 말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원하는 건 없네요. 제가 원하는 건 특정 버클이 아니라, 예전에 보석 상자에서 사라진 그 버클이에요. 제가 바로 그것을 찾으러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일순간에 일그러지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눈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서요? 당신에게 승산은 전혀 없어요……. 그건 어떤 거예요?"

"카르넬린석에 금 세공이 둘러져 있고, 1830년대 작품이죠."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녀는 베일을 벗고 코트를 벗어 던졌다.

그는 마치 자신도 모를 공포에 휩싸인 듯 뒤로 물러서며 중얼거렸다.

"푸른 드레스…… 모자……. 정말일까요? 자수조 목걸이가……."

아마도 세 개의 대나무 막대가 달린 채찍을 본 순간, 가장 격렬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는 그녀를 가리키며 손가락을 떨었고, 몸이 균형을 잃어 비틀거렸다. 끝내 익사하는 사람처럼 허공을 헤매던 팔을 휘저으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의식을 잃었다.

호르타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어떤 연기를 하든, 차분함을 유지하라.' 레닌이 그렇게 썼다.

비록 그가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호르타스는 스스로를 다잡아 침착함과 무관심을 가장했다.

그런 정적이 한두 분 이어졌다. 그러자 판카르디 씨는 졸음에서 깨어난 듯했다. 이마에 맺힌 땀을 닦고, 마음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나에게로 찾아왔소?"

"이 버클이 당신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소?" 그는 비난을 반박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소?"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버클이 여기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갈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다. 가게 간판에서 이름을 보기 전까지는 당신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에게 당신은 그저 제 것을 돌려줄 사람일 뿐입니다."

그는 심란한 기색이 역력했다. 가구들이 둥글게 쌓여 만들어낸 좁은 공간 안을 서성였다. 그는 어리석게도 그 가구들을 두드리며 균형을 무너뜨릴 뻔했다.

호르타스는 자신이 그를 압도하고 있음을 느꼈다. 그의 혼란을 놓치지 않고, 그녀는 위협적인 어조로 갑자기 명령했다.

"그 물건은 어디 있습니까? 반드시 돌려주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판카르는 순간 절망에 빠졌다. 그는 손을 모으고 간청의 말을 중얼거렸다. 그러다 곧 패배감을 느끼며 순순히 항복했다.

"당신이 그렇게 요구하시다니요?"

"저는 원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네, 그래. 분명 그래…… 동의할게."

"말해!"

그녀가 더 단호하게 명령했다.

말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글로는 써야지. 내 비밀을 적어 내려가면, 내 인생은 끝이 날 테니까.

그는 책상 앞으로 돌아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에 몇 줄을 급하게 적었다. 그리고 봉투에 넣어 밀봉했다.

"여기, 내 비밀이야."

그가 말했다.

"이건 내 온 삶이었어."

그와 동시에 그는 책상 위 서류 더미에서 권총을 꺼내 관자놀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하지만 호르타느는 재빠르게 그의 팔을 찼다. 총알은 거울을 뚫고 나갔다. 하지만 판카르디는 주저앉아 다친 사람처럼 신음하기 시작했다.

호르타느는 침착함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다.

'레닌이 미리 일러줬지.' 그녀가 생각했다. '그는 배우야. 봉투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 권총도 마찬가지고. 내가 그의 속임수에 걸리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돌아봤다. 겉으로는 차분해 보였지만, 자살 미수와 총성은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단단히 묶여 있던 힘이 끊어진 단단처럼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인식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의 발 아래 기어 다니는 남자가, 실은 서서히 우위를 되찾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는 힘없이 자리에 앉았다. 레닌이 예언한 대로 그 대결은 몇 분도 채 지속되지 않았다. 하지만 승리를 거머쥘 것 같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신경이 무너져 내리며 패배하고 말았다. 여성 특유의 예민한 신경이 원인이었다.

판카르 씨는 속임수에 속지 않았다. 이어질 대화의 맥락을 잡으려 애쓰지도 않았다. 그는 한숨을 멈추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호르타스 앞에서 우아하게 점프하는 동작을 선보이며 자신의 유연함을 과시했다. 그러고는 비웃는 듯한 어조로 외쳤다.

"지금부터 할 작은 대화인데, 지나가는 손님이 우리를 방해할 수 있게 놔두는 건 좀 그렇지 않나?"

그는 현관문까지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리고 가게를 막는 철판 덮개를 내려쳤다. 다시 점프하듯 뛰어가 호르타스 곁으로 돌아왔다.

"헐, 살아났다.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마담, 당신이 이기셨을 텐데. 하지만 나 역시 바보가 따로 없지. 당신을 과거의 어둠 속에서 나타나, 신의 메신저라도 된 듯이 나를 심판하러 오는 줄 알았으니까. 어리석게도 나는 모든 것을 돌려주려 했어. 아, 오르탕스 자매님—이렇게 불러도 되겠지? 난 원래 당신을 그 이름으로 알고 있었으니까. 오르탕스 자매님, 말씀대로 하시면 속이 약하시군요."

그는 그녀 곁에 앉았다. 표정은 사나웠고, 그는 단호하게 그녀를 향해 던졌다.

"이제부터는 솔직하게 말해야 해. 이 일의 배후는 누구지? 너는 아니겠지? 네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럼 대체 누구란 말인가?"

"제 인생에서 저는 항상 정직했습니다. 부끄러울 것 하나 없이 철저하게 정직하게요. 단 한 번을 빼고요. 그 클립 사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이 이미 끝났고, 묻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또 다시surface로 떠오른 거죠. 어떻게 된 일인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호르타스는 더 이상 저항하려 하지 않았다. 남자는 온몸의 기세로, 쌓아둔 원한으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격분한 제스처와 비웃음 섞인 나쁜 표정으로 드러내는 모든 위협으로 그녀를 짓눌렀다.

"말해! 내가 알고 싶어. 만약 내가 숨겨진 적수가 있다면, 그 적수를 막아야 하잖아. 그 적수가 누구지? 누가 너를 부추겼나? 누가 너로 하여금 그런 짓을 하게 했나? 내 행운이 그를 격분시켜서, 그가 다시금 그 버클을 노리고 있는 건가? 어서 말해, 천벌이라도 받겠어…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맹세코…"

그녀는 그가 다시 권총을 쥐려고 몸을 움직이는 줄 알았다. 그녀는 도망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으며 팔을 뻗으며 뒤로 물러섰다.

그들은 서로 몸부림쳤다. 호르탕스는 점점 더 두려워졌다. 그가 자신을 공격할까 봐 두려운 것도 있지만, 그 공격자의 얼굴이 경련처럼 일그러진 모습이 더 무서웠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때 판카르 씨가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팔을 앞으로 뻗고, 손가락을 벌린 채, 호르탕스의 머리 너머로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저기에 있는 건 뭐야? 어떻게 들어온 거야?" 목소리가 떨리며 새어나왔다.

호르탕스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확신했다. 레닌이 자신을 구하러 온다는 것과, 이 낯선 침입자의 불가사의한 등장이 노상점을 이렇게 놀라게 했다는 것을.

정말였다. 가난한 의자와 소파 더미 사이에서 가느다란 실루엣이 슬그머니 모습을 드러냈고, 레닌은 차분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당신은 누구요? 어디서 왔소?" 판카르디가 되물었다.

"저 위쪽입니다." 그가 아주 친절한 어조로 대답하며 천장을 가리켰다.

"저 위쪽?"

"네, 바로 위층입니다. 저는 이곳 위층을 세 달째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방금 전에 소리가 났습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였죠. 그래서 제가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기 들어온 거요?"

"계단을 통해서요."

"어떤 계단 말인가?"

"가게 뒤쪽에 있는 철제 계단 말입니다. 이전 세입자도 제 방을 썼고, 그 계단을 통해 바로 오갔죠. 그 문은 막아놨더군요. 제가 뚫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그러셨습니까? 이건 불법 침입이오."

"동료를 구할 때는 불법 침입도 허용되는 법이지."

"다시 묻지만, 당신은 대체 누구요?"

"레닌 공작입니다. 부인의 친구요." 레닌이hortense(오르타ンス) 쪽으로 몸을 굽혀 그녀의 손을 입에 대며 말했다.

판카르디는 숨이 턱 막힌 듯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아… 알겠습니다. 당신이가 공모의 배후군요. 당신이가 부인을 보낸…"

"그렇습니다, 판카르디 씨. 바로 저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 의도는 아주 순결합니다. 폭력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제가 찾으러 온 물건을 다시 돌려주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브로치 핀이죠."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상인은 단호하게 말했다.

"거절하지 마십시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저를 그런 짓을 하도록 강요할 수 없습니다."

"奧사모 부인을 부르시겠습니까?奧사모 부인이 당신보다 이 상황의 심각성을 더 잘 이해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예상치 못한 적대자 앞에서 혼자 남지 않게 될 생각은奧사모에게 꽤 매력적으로 보였던 듯했다. 그는 바로 옆에 있는 호출 버튼을 세 번 눌렀다.

"완벽해요!" 레닌이 외쳤다. "보시죠, 친애하는 친구여. 판카르디 씨가 얼마나 친절한지요. 방금 전 당신을 놀라게 했던 악마 같은 모습은 어디 갔나요. 아니요, 판카르디 씨가 남자를 대하면 예의와 친절함을 되찾는군요. 정말 순한 양이에요! 하지만 일이 순조롭게 풀릴 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양만큼 고집 센 동물도 없으니까요."

가게 끝, 골동품 상의 책상과 나선형 계단 사이에서 커튼이 들어 올랐다. 한 여자가 문짝을 잡고 서 있었다. 나이는 서른쯤 되어 보였다. 옷차림이 매우 소박했고,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 주인부인보다는 요리사처럼 보였다. 하지만 얼굴은 친근했고 태도는 다정했다.

호르탕스는 레닌을 따라 들어왔지만, 그 여성이 자신의 청녀 시절 하녀였던 루시엔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깜짝 놀랐다.

"세상에, 루시엔이세요? 당신이 판카르디 부인이라니요?"

새로 온 여인은 호르탕스를 바라보며 그녀를 알아봤다. 그리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레닌이 그녀에게 말했다.

"판카르디 부인, 당신 남편과 저는 당신 도움이 필요합니다. 꽤 복잡한 한 건의 일을 마무리해야 하거든요. 그 일에서 당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죠."

루시엔은 말없이 한 걸음 다가섰다. 분명한 불안감이 느껴졌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떼지 못한 채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죠? 대체 무슨 일이라고요?"

판카르디는 낮은 목소리로 몇 마디를 뱉었다.

"잠금장식…… 가슴에 달던 잠금장식이요."

판카르디 부인은 이 말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더 이상 태도를 유지하거나 무의미한 항변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했습니다… 오르탕스小姐가 발각한 모양이군요… 아, 우리는 망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겨우 대립이 시작된 순간, 남편과 아내는 더 이상 승리를 바라고 있지 않은 패배자들의 태도를 취했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고 시선을 고정시킨 채 울기 시작했다.

그녀 위에 몸을 굽힌 레닌이 말했다.

"여보시죠, 마담. 일을 명확히 정리해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고, 저는 우리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9년 전, 당신이 프로방스에서 오르텐스 양을 모실 때, 판카르디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곧 당신의 연인이 되었죠. 둘 다 코르시카 출신이었습니다. 즉, 미신이 강하고 행운과 불운, 그리고 악의 눈(jettatura)이每个人的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카르디는 당신의 고용주의 가슴 장식이 항상 그 소유자에게 행운을 가져다준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한 순간의 약점을 보이며, 판카르디의 자극을 받아 이 보석을 훔쳤습니다. 6개월 후, 당신은 직장을 그만두고 판카르디 부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몇 문장으로 요약한 당신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일시적인 유혹에 저항할 수 있었다면 정직한 사람들이 남았을 그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두 분 모두 얼마나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군요. 그 부적의 힘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두 분은 잡동사니 장수 중 가장 앞줄에 서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두 분은 부자가 되었고, '메르쿠리 신점'이라는 가게의 주인입니다. 두 분은 사업의 성공을 이 가슴걸이 버클 덕분이라고 생각하죠.

두 분에게 이 버클을 잃는다는 것은 파산과 빈곤을 의미합니다. 두 분의 인생이 모두 이 작은 물건에浓缩되어 있는 셈이죠. 바로 우상입니다. 보호하고 조언하는 가정의 작은 신이요.

그것은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뒤섞인 물건들 아래에 말이죠. 물론, 저는 다시 말하지만, 이 실수 하나를 제외하면 두 분은 훌륭한 분들이므로, 아무도 이를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연히 제가 두 분의 일을 처리하게 되지 않았다면요."

레닌은 잠시 멈추고 다시 말을 이었다.

두 달 전입니다. 두 달 동안 꼼꼼하게 조사를 했죠. 이미 당신의 발자취를 따라잡았으니, 안채를 빌려 쓰고 이 계단을 이용할 수 있어 수월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두 달은 꽤 아까운 시간입니다. 아직 결과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가게를 얼마나 뒤집어놓았는지 모릅니다. 가구 하나 빠짐없이 샅샅이 뒤졌고, 마루 바닥의 판자 하나도 모두 들춰냈습니다. 결론은 제로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부수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서재에 숨겨진 서랍장 안이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작은 일기를 숨겨두었더군요. 그 속에 당신의 양심 가책과 불안, 형벌에 대한 공포, 신의 진노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대단한 무모함이었군, 판카르디. 그런 자백서를 쓰다니. 더구나 그냥 내버려두다니. 어쨌든 나는 그걸 읽었다. 그리고 그중 내게 중요한 구절이 하나 눈에 띄었는데, 그걸 바탕으로 공격 계획을 세웠다."

"내가 빼앗긴 그 여자가 내게 오게 하라. 루시엔이 보석을 훔치고 있을 때, 내가 그녀의 정원에서 보았던 모습 그대로 오게 하라.

푸른 드레스를 입고, 붉은 나뭇잎 장식이 달린 모자를 쓴 채, 자코(검은 유리구슬) 목걸이를 하고, 그날 가지고 다니던 삼단 갈대 채찍을 든 모습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하라.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말하게 하라. '내 것을 돌려받으러 왔습니다.'

그때야 나는 이 행동이 하느님의 영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리고 신의 뜻에 따라야 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파칸디 씨, 당신의 장부에 적힌 내용입니다. 당신이 호르테ense Miss라고 부르는 여자가 왜 찾아왔는지 그 이유도 여기에 나와 있죠.

그녀는 내 지시에 따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고안해 낸 작은 연극에 맞춰서요. 당신 말마따나 '과거의 깊은 곳'에서 당신에게로 다가왔습니다.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그녀는 승리를 거두었을 겁니다.

불행히도 당신은 연기에 능숙했습니다. 자살 시도 때문에 그녀는 혼란에 빠졌고, 당신은 이것이 천재의 뜻이 아니라 옛 피해자의 공격일 뿐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제가 개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있습니다. 결론을 지어 봅시다.

파칸디 씨, 클립을 주세요."

"아니요."

안티크 상인이 말했다. 클립을 돌려주는 생각만으로도 그의 기운이 다시 솟아올랐다.

"당신은요, 판카르디 부인?"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자가 단호하게 말했다.

"좋소. 그럼 행동으로 보여주겠소. 판카르디 부인, 당신에게는 일곱 살 먹은 아들이 있소. 당신 마음속 깊이 그를 사랑하지요. 오늘 목요일, 평소처럼 그 아들은 이모 집에서 혼자 돌아올 예정이오. 내 친구 둘이 그 길목에 숨어 있소.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아이를 데려가겠소."

판카르디 부인은 즉시 당황했다.

"제 아들! 오, 제발요… 아니, 그러지 마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제 남편은 절대 저에게 속내를 털어놓지 않았어요."

레닌이 계속했다.

"두 번째 사항이오. 오늘 밤 곧바로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오. 증거로는 이 기록부의 자백이 쓰일 것이오. 결과적으로 사법 절차가 시작되고, 압수수색도 이루어지겠소."

판카르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태도로 보아, 그토록 거세게 날아온 위협들이 그에게 통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부적에 보호받는다고 생각하며, 불패의 존재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의 부인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레닌의 발치에 엎드렸다.

"아니요… 아니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감옥에 가게 될 테니까요. 원치 않아요… 게다가 우리 아들도 있고요. 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동정심이 일어난 호르탕스가 레닌을 따로 불러냈다.

"불쌍한 여자군요! 제가 대신 청원하겠습니다."

"걱정 마시오." 레닌이 웃으며 말했다. "당신의 아들에게는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을 테니."

"하지만 당신의 동지들이 숨어 있는 거죠?"

"그건 완전히捏造입니다."

"법원에 낸 고소장도요?"

"단순한 협박일 뿐이죠."

"그렇다면 대체 무엇을 원하시는 건가요?"

"그들을 당황하게 하고, 본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야. 그들이 실수로 내뱉는 단서를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얻으려는 거지. 우리는 모든 방법을 다 써봤어. 이제 남은 건 이 방법뿐이고, 이 방법은 나한테 거의 항상 통하는 수단이야. 우리 함께했던 모험들을 기억해."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반드시 나와야 해." 레닌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간이 다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그의 시선이 젊은 여성의 눈과 마주쳤다. 그녀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가 말하는 '시간'이 바로 여덟 번째 시계 종소리를 의미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그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모든 일을 끝내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이제 당신네 부부가 감당해야 할 결과를 보십시오." 그가 판카디 부부에게 말했다. "아이의 실종, 그리고 감옥 말입니다. 자백록이 있으니 감옥은 확실히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입니다. 클립을 즉시, 즉각 돌려주면 이십만 프랑을 드리죠. 그걸로 충분할 겁니다. 그 클립이 삼 루이보다 더 비싸진 않거든요."

대답은 없었다. 판카디 부인은 울고 있었다.

레닌이 말을 이었다. 제안 사이를 두고 천천히 말했다.

"이십만, 오십만, 백만…."

"아, 당신네 정말 요구가 많군요, 판카디 씨."

"그럼 딱 떨어지는 숫자로 할까요? 좋습니다. 백만 프랑."

그는 마치 보석이 이미 자신에게 건네질 것처럼 손을 뻗었다.

먼저 양보한 것은 판카디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향해 갑자기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인정해 봐요! … 말해요! … 어디다 숨겼는지요. 어쨌든, 고집을 부릴 건가요? 안 그러면 파산이에요. … 빈곤이 찾아오고요. 게다가 우리 아들은요! … 제발, 말해요."

오르탕스가 중얼거렸다.

"레닌, 그건 미친 짓이에요. 보석은 아무 가치도 없어요."

"두려울 것 없어요. 그는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레닌이 말했다. "하지만 그를 보세요. 얼마나 초조해하는지! 정확히 제가 원하던 상태예요. … 아, 보세요,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가요! 사람들을 자기 자신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에 대한 모든 통제를 빼앗는 것! …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들을 흔들어대는 폭풍 속에서 어딘가에서 튀어 오를 작은 불꽃을 발견하는 것! … 그를 보세요! 그를 보세요! 보잘것없는 돌멩이에 백만 프랑을 걸다니요. 아니면 감옥이죠. 머리가 돌아갈 노릇이죠!"

사실 그 남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입술이 떨리면서 침이 조금씩 흘러내렸다. 그의 온몸이 모순된 감정, 두려움과 욕망이 충돌하며 끓어오르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그가 갑자기 폭발하듯 말을 터뜨렸다. 정말 그의 말이 무작정 튀어나온 것이 분명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백만! 이백만! 오백만! 천만! 나는 개의치 않는다. 백만? 백만 원이 무슨 소용인가? 잃어버린다. 사라진다. 날아간다.

중요한 건 단 한 가지다. 너희 편이냐, 아니면 내 편이냐 하는 운명 말이다.

그리고 운명은 이미 아홉 해째 내 편이다.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내가 그 운명을 배신하라고? 왜? 두려워서? 감옥? 내 아들?… 헛소리다!

내가 운명을 내 편으로 부릴限り, 내게는 아무 악재도 닥치지 않는다. 운명은 나의 종이자 친구다.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겠나. 아마도 카르넬린 때문이겠지. 행운을 담고 있는 돌도 있다. 불을 담고 있는 돌, 황금을 담고 있는 돌처럼.

레닌은 그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의 말 한 마디, 어조 하나까지 놓치지 않으려는 듯했다.

노인 상인은 이제 신경질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자신감이 넘치는 남자의 태도를 곧장 되찾고 있었다. 그는 레닌 앞을 걷고 있었다. 제각기 다른 동작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점점 강해지는 결의가 느껴졌다.

"수백만? 하지만 저는 그런 건 원치 않아요, 친애하는 선생님. 제가 가진 그 작은 돌조각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의 증거는 바로, 그걸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이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보시면 알 수 있죠. 아, 아! 몇 달 동안이나 뒤졌다고 스스로 인정하시네요. 몇 달 동안이나 모든 것을 뒤집어놓으셨지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어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 방어했겠어요? 그 작은 물건이 스스로를 지켰

으니까요. 그것은 발견되기를 원치 않으며, 결코 발견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 곳에 딱 잘 맞아 떨어지거든요. 이 물건은 훌륭하고 정직한 사업들을 주도하며 저를 만족시켜 줍니다. 판카르디의 행운? 그건 이 동네 전체, 모든 골동품 상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저는 지붕 위에서 외칠 정도예요. '나는 행운아야.' 심지어는 행운의 신인 메르쿠리를 나의 수호신으로 삼을 용기도 냈죠. 그 역시 저를 보호해 줍니다. 보세요, 제 가게 구석구석에 메르쿠리 상을 가득 놓아뒀어요. 저 위, 그 판자 위에 보세요. 간판처럼 생긴 작은 조각상들, 유명한 조각가가 파산해서 저에게 팔아간 서명본들 말이죠. 하나 원하시나요, 친애하는 선생님? 당신에게도 행운을 가져다줄 거예요. 고르세요! 판카르디의 실패에 대한 보상용 선물입니다. 괜찮으시죠?"

그는 벽에 사다리를 기댄 뒤, 판자 아래쪽에서 작은 상자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는 그것을 내려 Rénine의 품에 안겨 주었다.

적군이 그의 공격 앞에 물러나는 것을 보고, 그는 더욱 흥분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잘했다! 그가 받아들인 거야! 받아들인다는 건, 모두가 동의했다는 뜻이지! 판카르디 부인, 걱정하지 마세요.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감옥 갈 일도 없답니다. 어서 가요, 오르텐스 양…"

"안녕히 가세요, 선생님. 저에게 안부 전하실 일이 생기면, 천장을 세 번 두드려 주세요. 안녕히 가세요… 선물은 가져가시고… 머큐르 신께서 당신을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친애하는 왕자님… 안녕히 가세요, 오르텐스 양…"

그는 그들을 쇠로 된 계단 쪽으로 밀어냈다. 한 명씩 팔을 잡고는, 그 계단 꼭대기에 숨어 있던 낮은 문까지 안내했다.

더욱 기이한 일은, 레닌이 항의하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저항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았다. 징계를 받아 문밖으로 내몰린 아이처럼, 그저 순종하며 따라갔다.

그가 판카르디에게 제안을 하고, 판카르디가 승리자의 미소를 지으며 조각상을 안긴 채 그를 문밖으로 내던지기까지, 오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레닌이 빌린 중간층의 식당과 거실은 거리를 향해 있었다. 식당 식탁에는 두 사람 분의 그릇이 차려져 있었다.

"준비 과정들을 봐주십시오." 르닌이 살롱 문을 열어 주며 말했다. "어쨌든 이 일들이 저에게 오늘 저녁을 함께 보내고 저녁 식사를 할 기회를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마지막 모험의 마지막 밤, 이 청을 거절하지는 마십시오."

호르텐스는 거절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보아 온 어떤 것과도 사뭇 다른 방식으로 전투가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이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녀는 왜 거절해야 했을까? pact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르닌은 하인에게 명령을 내리기 위해 물러났고, 2분 후 호르텐스를 다시 찾아가 그녀를 방으로 인도했다. 이때는 7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꽃이 놓여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판카르 씨가 선물한 머큐리 동상이 우뚝 서 있었다.

"행운의 신이 우리 식사 자리를 지켜주길." 레닌이 말했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다. 그녀를 앞에 두고 있는 기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아! 당신이 의도적으로 냉담했기 때문이오. 마담은 내게 문턱을 닫았고, 편지도 쓰지 않았소. 정말로, 친애하는 친구여, 당신은 잔인했소. 나는 그 사실에 깊이 상심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큰 수를 써서, 가장 기이한 모험이라는 미끼로 당신을 유인했소. 내 편지가 얼마나 교묘했는지 인정하시오. 세 개의 막대기, 푸른 옷차림…… 이런 것들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겠소? 더군다나 나는 내 생각으로 몇 가지 수수께끼를 덧붙였소. 목걸이의 칠십오 개 구슬, 은 rosary(십자고리)를 든 노파…… 말하자면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게 만든 것이오. 나를 용서하지는 마시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었고, 바로 오늘 만나고 싶었소. 당신이 왔소. 고맙소."

그는 이어 도난당한 보석의 흔적을 다시 찾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다.

"당신이 그 조건을 내걸었을 때, 내가 그걸 지킬 수 없기를 바랐겠지. 하지만 착각이야, 사랑하는 친구. 적어도 시작 단계의 시험은 쉬웠어. 그 시험은 확실한 단서 하나에 기반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그 버클에 깃든 부적의 성향이였지."

"그 성향이 어떤 사람에게든 어떤 식으로든 끌림을 일으켰는지 찾아보기만 하면 됐어. 그래서 나는 곧장 네 주변, 특히 하인들 중에서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지."

"그렇게 내가 작성한 인물 목록에서, 바로 코르시카 출신인 루시엔느小姐의 이름을 발견했어. 이것이 나의 출발점이었지. 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었어."

호르탕스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정작 현실에서는 antiquaire(골동품상)에게 명확히 패배했고, 조금은 조롱까지 당했는데도, 어찌하여 그는 자신의 패배를 그토록 태연하게 받아들이며, 심지어는 승리자처럼 말하고 있었을까?

그녀는 그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의 어조에는 실망과 수치심이 섞여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그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결국 당신이 도둑을 알아냈다고 해도, 도난당한 물건을 손에 넣지는 못했으니까요."

그 비난은 분명했다. 레닌은 그녀에게 실패를 익숙하게 만들지 않았다. 더구나 그녀는 그에게서 이런 무심함을 발견하고는 더더욱 화가 났다. 그 실패는 결국 그가 품었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는데, 그는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쉽게 받아들였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샴페인 잔 두 개를 채워, 한 잔을 천천히 비우며 머큐르 신의 동상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다. 마치 여행자가 기뻐하듯, 그는 그 동상을 받침대 위에서 돌렸다.

"조화로운 선이란 정말 놀라운 것이군요. 저는 색채보다 선, 비례, 대칭, 그리고 형태가 지닌 모든 경이로움에 더 매료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의 푸른 눈동자와 갈색 머리카락의 색상은 물론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의 얼굴의 타원형 윤곽과 목과 어깨의 우아한 곡선입니다.

이 작은 조각상을 보세요. 판카디가 옳습니다. 이 작품은 위대한 예술가의 걸작이죠. 다리는 가늘면서도 단단히 근육이 발달했고, 전체적인 실루엣에서 전진하는 기세와 빠른 움직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군요.

하지만 단 하나, 아주 미세한 실수가 있습니다. 아마 당신은 아직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네, 맞아요. 밖에서 간판을 본 순간, 그 신상이 저를 때렸어요. 말씀하시는 건 그런 균형의 어긋남이죠? 다리를 지탱하는 쪽으로 신상이 너무 기울었어요. 마치 앞으로 쓰러질 것 같아 보이죠."

레닌이 말했다.

"감사합니다. 그 결함은 미미해서, 훈련된 눈이 아니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논리적으로 보면, 몸무게가 더 큰 쪽으로 쏠려야

마땅합니다. 물질의 법칙에 따라, 이 작은 신상은 당연히 머리를 먼저 찧고 쓰러져야 했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欠점을 첫날부터 눈치챘습니다. 그럼에도 왜 결론을 내지 못했을까요? 저는 미적 법칙을 어긴 점에 충격을 받았지만, 사실 물리적 법칙을 위반한 점에 더 놀라야 했습니다. 예술과 자연이 하나임을 망각한 채, 중력의 법칙이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호르타스가 물었다. 이 논의가 그들의 비밀스러운 생각과는 동떨어져 보였기 때문이다. "정확히 무슨 뜻이신가요?"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다만, 왜 이 Mercure가 제 역할을 다해 물속으로 뛰어들지 않았는지, 제가 그 이유를 더 일찍 깨닫지 못했는지 의아할 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기는 무엇일까? 판카르디가 자기 목적에 맞게 그 작은 상을 만지작거리다가 균형을 잃었을 거야. 하지만 뒤쪽에서 무언가가 그 신상을

붙잡아 주고 있어서, 너무 위험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균형을 다시 찾았겠지."

"무언가라고?"

"그래. 정확히 말하면, 그 상은 고정되어 있을 수도 있었어. 하지만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 판카르디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틀에 한 번, 길면 사흘에 한 번씩 그 상을 들어 올리고 먼지를 털어내는 걸 내가 직접 목격했거든. 그러니 남은 가설은 하나뿐이야.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
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
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추추추,

일단 여기, 간판용 조각상이 있습니다. 받침대를 부수고, 뒤쪽에 납으로 밀봉된 주머니에서 당신의 클립을 꺼내야 할까요? 그 클립이 머큐르 신의 균형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아니요! …아니요! …불필요해요."HORTENSE가 낮은 목소리로 급히 대답했다.

직관, 레닌의 섬세함, 그리고 그가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주도해 왔는지. 그녀에게 이 모든 것은 이 순간에도 여전히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여덟 번째 모험이 끝났다는 것을, 시련들이 모두 자신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 시련의 최후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가혹하게도 그 사실을 지적해 주었다.

"8시 15분 남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모두 그 불편함에 시달렸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을 주저할 지경이었다.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레닌이 농담조로 말했다.

"그 착한 판카르디 씨, 내게 단서를 알려줘 고마웠어. 어차피 그를 격분시키면, 결국 그의 말 속에서 내가 놓치고 있던 작은 단서를 건질 수 있으리라는 건 알고 있었지."

"마치 누군가에게 성냥을 쥐어주며 '이거 쓰게'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아. 결국 한 번은 불꽃이 튀게 마련이니까."

"그 불꽃을 일으킨 건, 그가 무의식적이지만 필연적으로 만든 연결 고리였어. 운의 상징인 카르넬리아 석재 갈고리와, 운명의 신 메르쿠리를 연결한 거지."

"그걸로 충분했어. 나는 그 생각의 연결이 현실에서도 두 가지 운이 서로 얽혀 있다는 뜻임을 직감했지. 즉, 보석을 조각상 블록 속에 숨겨 둔 것이야."

"그 순간, 외부에 놓인 메르쿠리 상과 그의 불균형한 균형이 떠올랐지."

레닌이 말을 멈췄다. 그의 말들이 공허한 공간에 떨어지는 것 같았다.

젊은 여성은 이마에 손을 얹었다. 눈은 가려진 채,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매우 먼 곳에 있는 사람처럼.

사실 그녀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있었다. 이 특별한 사건의 결말이나, 그 상황에서 레닌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사가 되지 않았다. 그녀가 생각했던 것은 지난 세 달 동안 자신이 겪었던 모든 모험과, 자신을 헌신적으로 바쳐준 남자의 놀라운 행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마술적인 그림처럼, 그가 저지른 전설적인 행동들을 떠올렸다. 그가 가져다준 선함, 구한 생명들, 달래진 고통들, 응징당한 범죄들, 그의 의지가 미친 곳마다 다시 세워진 질서들.

그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었다. 그가 손을 대는 일은 반드시 성취되었다. 그가 향하는 목표는 모두 미리 이루어진 듯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과도한 노력 없이, 자신의 힘을 알고 아무것도 자신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자의 차분함으로 이루어졌다.

그녀는 그에게 뭘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왜 저항해야 했을까?

그가 복종하길 요구한다면, 그는 그녀를 강요할 수 있었을 테고, 이 마지막 모험은 다른 것들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만약 그녀가 도망친다 해도, 광활한 우주 속에서 그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과연 있었을까?

그들이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레닌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무기와 보호장을 찾고 있었다. 만약 그가 여덟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웠고, 여덟 번째 종소리가 울리기 전에 카르넬옥 돌 장식고리를 그녀에게 돌려줬다면, 그녀는 이미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여덟 번째 종소리는 하링그르 성의 시계종에서만 울려야 했기 때문이다. 다른 곳에서는 안 되었다. 그 계약은 명확했다.

르닌은 그날, 자신이 탐내던 입술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한 바 있었다.

"구리 진자가 다시 움직일 것이다. 정해진 날짜에 여덟 번의 종소리가 다시 울리면, 그때…"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그 역시 움직이지 않았다. 진지하고 평온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말하려다 말았다. 이미 준비한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간의 약속은 할랭그 시계종이 울려야 한다는 거였죠. 모든 조건이 갖춰졌지만, 이 한 가지 조건은 빠져 있네요. 그러니 저는 자유로운 거죠, 맞습니까? 저는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그 약속은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스스로 무효가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자유롭습니다. 모든 양심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 말입니다."

그녀는 대답할 틈도 없었다. 정확히 그 순간, 그녀 뒤에서 시계가 울리기 직전의 그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소리가 났다.

첫 번째 종소리가 울렸다. 이어 두 번째, 세 번째.

호르탕스가 신음했다. 그 소리는 하랭그의 오래된 시계 소리였다. 3개월 전, 버려진 성의 정적을 초자연적으로 깨뜨리며 그 소리는 두 사람을 모험의 길로 이끌었다.

호르탕스가 숫자를 세었다. 시계가 여덟 번 울렸다.

"아!" 그녀가 주저앉으며 중얼거렸다. 얼굴을 손으로 가리며. "시계… 여기 있는 시계… 저기 있는 시계… 나는 그 소리를 알아…"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다. 레닌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걸 그녀는 직감했다. 그 시선은 그녀의 모든 기운을 빼앗아갔다.

비록 기운을 되찾았더라도, 그녀는 더 이상 강해지지 못했을 것이다. 그녀가 저항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했다. 저항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모험은 끝났지만, 아직 한 번 더 겪어야 할 모험이 남았다. 그 기다림이 다른 모든 기억을 지워버렸다. 바로 사랑의 모험이었다. 가장 달콤하고, 가장 혼란스러우며, 가장 사랑스러운 모험이었다.

그녀는 운명의 명령을 받아들였다. 사랑하고 있었기에, 앞으로 닥칠 모든 일이 기쁨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억지로라도 미소 지었다. 사랑하는 남자가 카르넬옥트 반지를 가져다준 순간, 비로소 기쁨이 그녀의 삶에 돌아왔기 때문이다.

시계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호르탕스가 레닌을 올려다보았다. 몇 초 동안 더 그녀는 몸부림쳤지만, 매혹된 새처럼 반항할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여덟 번째 종소리가 울리자, 그녀는 그에게 기대어 입술을 내밀었다.

그룹의 수정, 편집, 컴퓨터 변환 및 출판:

http://fr.groups.yahoo.com/group/ebooksgratuits

그룹 웹사이트 주소: http://www.ebooksgratuits.com/

—

2004년 5월

—

— 조항:

우리가 제공하는 책들은 저작권이 없는 텍스트로,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트로의 모든 링크는 환영합니다…

— 품질:

원문은 원본의 완벽한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는 상태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무보수로 활동하는 아마추어들이며, 제한된 수단으로 문학 문화를 홍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문학 고전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